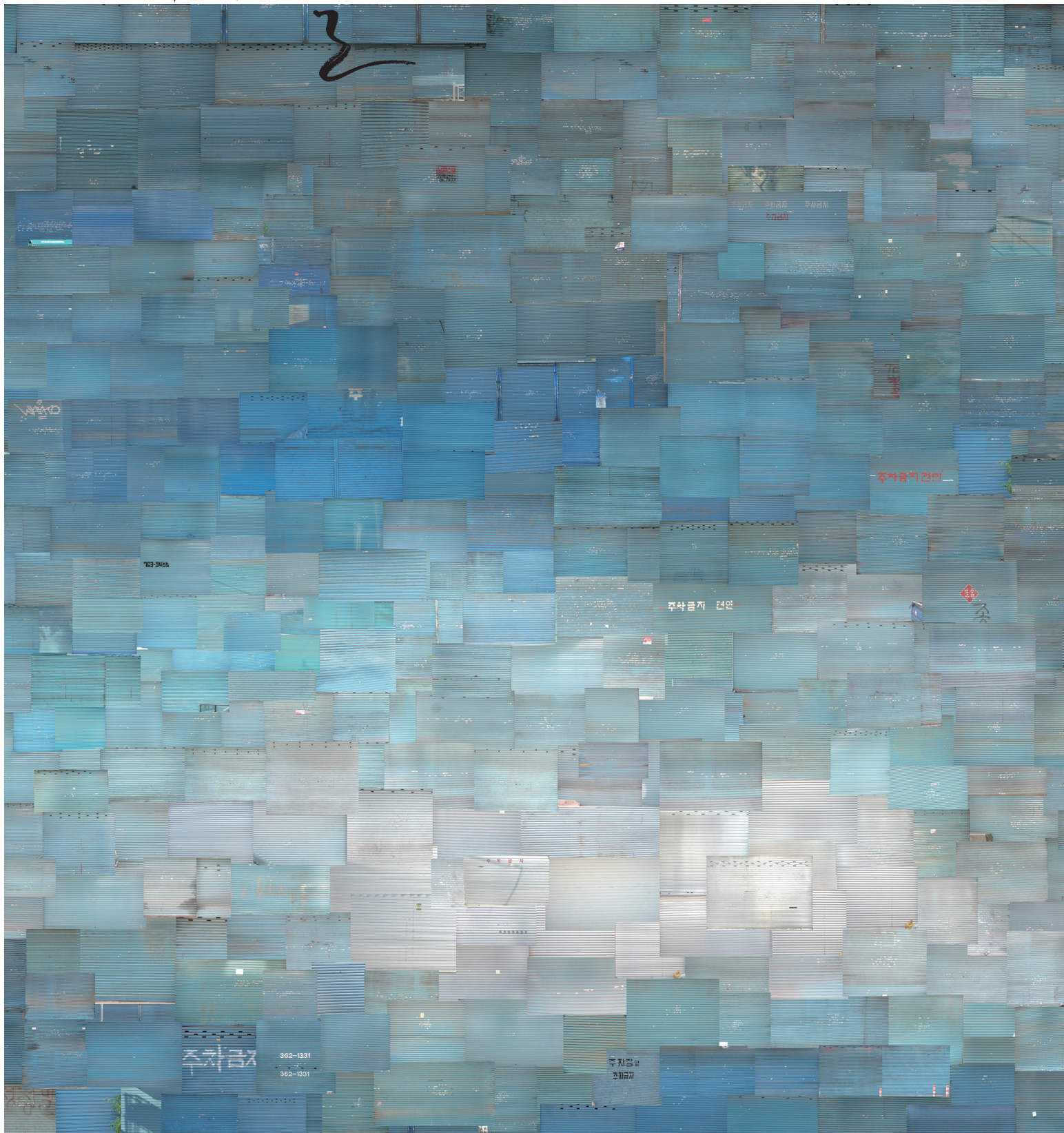


12. 2월 + 0
2월 117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4

2016





4월의 테마토크

이 공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작업과 전시를 겸하는 시각예술계 프로젝트 공간의 증가, 독립출판물의 다양화와 서점의 증가는 지난해 문화예술계에서 소리 없이 번진 현상이었다.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외부와의 소통을 고민하는 개인 혹은 소그룹의 창작자들. 작품 뒤에 숨어 있던 이들이 걸어나와 장을 마련하고 느슨하게 교류하면서, 최근 문화예술계에서는 전에 없던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불균질하게 파생된 이 에너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사람과 사람

현대무용가 김설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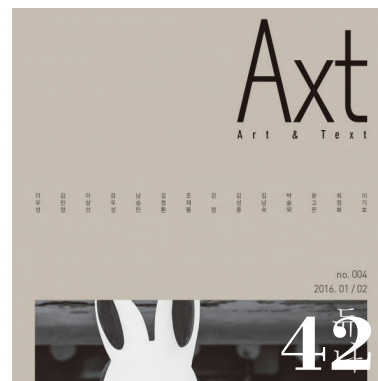
현대무용가 김설진(35)의 춤은 다르다. 백지 상태의 맨눈으로 봐도 시선을 땔 수 없게 하는 힘이 있다. 탄탄한 기술로 다져진 몸짓은 유려하고 맛있는 수준을 넘어 경이로울 정도다. 무엇보다 춤에서 감정이 전해진다.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예술적, 기술적으로 독보적 춤 세계를 선보여온 그가 비보이단 캠프블루크루의 〈신포니아〉를 안무했다.



진실 혹은 대담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정치·사회·예술적 의미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와 젠더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된 소녀상 현상에 대한 미술비평과 문화연구, 미학, 여성학 등의 관점이 함께하는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다. 소녀상 현상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과 더불어 그것의 예술적 의미를 돌아보는 자리다.



쟁점1

매거진 〈악스트(Axt)〉의 ‘듀나 인터뷰’를 둘러싼 소동

문학 매거진 〈악스트〉 1·2월호에 실린 SF소설가 듀나의 인터뷰 기사를 둘러싼 논란이 두 달여간 SNS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작품을 언급하기보다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신상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던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악스트〉 측의 공식 사과로 마무리되다가 지 꽤 긴 시간 지속된 이 논란은 그간 문학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화두를 던졌다.

contents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조선희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오니트(주)

디자인 오니트(주) 사진 249 스튜디오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6년 3월 29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2 커버스토리 | 이달의 표지 작가 장석준

테마 토크

이 공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06 새로운 공간, 독립된 창작자, 복합적 이벤트의 출현으로부터 | 고립되어 있기에 폭발할 수 있다

08 시각예술 플랫폼과 독립출판을 만나는 공간의 출현 | 불균질하게,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14 소그룹 창작자들의 또 다른 잔치 마당 | 홍대 앞, 광화문... 때 되면 그곳에서 열립니다

16 200/20, 300/20, 800/40 운영진 인터뷰 | 예술의 가치와 창작의 현실이 나아지도록

사람과 사람

20 현대무용가 김철진 | 계절과 사람을 추다. 한계를 뛰어넘는 춤을 모색하다

26 남산예술센터 <귀.국.전> 연출가 김민정, 이경성, 구자혜 | 불행하고, 슬프고, 폭력적인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다

32 진실 혹은 대담 |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정치·사회·예술적 의미

38 예술가의 밥그릇 |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

40 서울 할나 | 청계천에 찾아온 봄

이슈&토픽

42 쟁점 1 | 매거진 <악스트(Axt)>의 '듀나 인터뷰'를 둘러싼 소동

44 쟁점 2 | 대학의 획일화 우려되는 '프라이임 사업'

46 화제 | 문화체육관광부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48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공간, 공감

50 공간 1 | 남산예술센터 '남산여담-장정일의 연극읽기'

52 공간 2 | 등촌동 골목에 파고든 전시 공간 '일년만 미술관'

54 공감 1 | 뮤지컬 <마타하리>와 <뉴시즈>

56 공감 2 | 전시 <백세청풍>과 <이중섭은 죽었다>

58 공감 3 | 책 <나의 투쟁>과 <그들의 등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

60 예술적 상담소

Soul of Seoul

62 메모리 인 서울 | 최초의 국산 자동차인 '시발차'와 시민의 집꾼 '삼륜차'

64 서울 단상 |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 철거를 앞두고

66 강상준의 썰(設) | 오디션 프로그램의 끝판왕 <프로듀스 101>

68 신지수의 음악 정원으로 | 컴퓨터 사보 프로그램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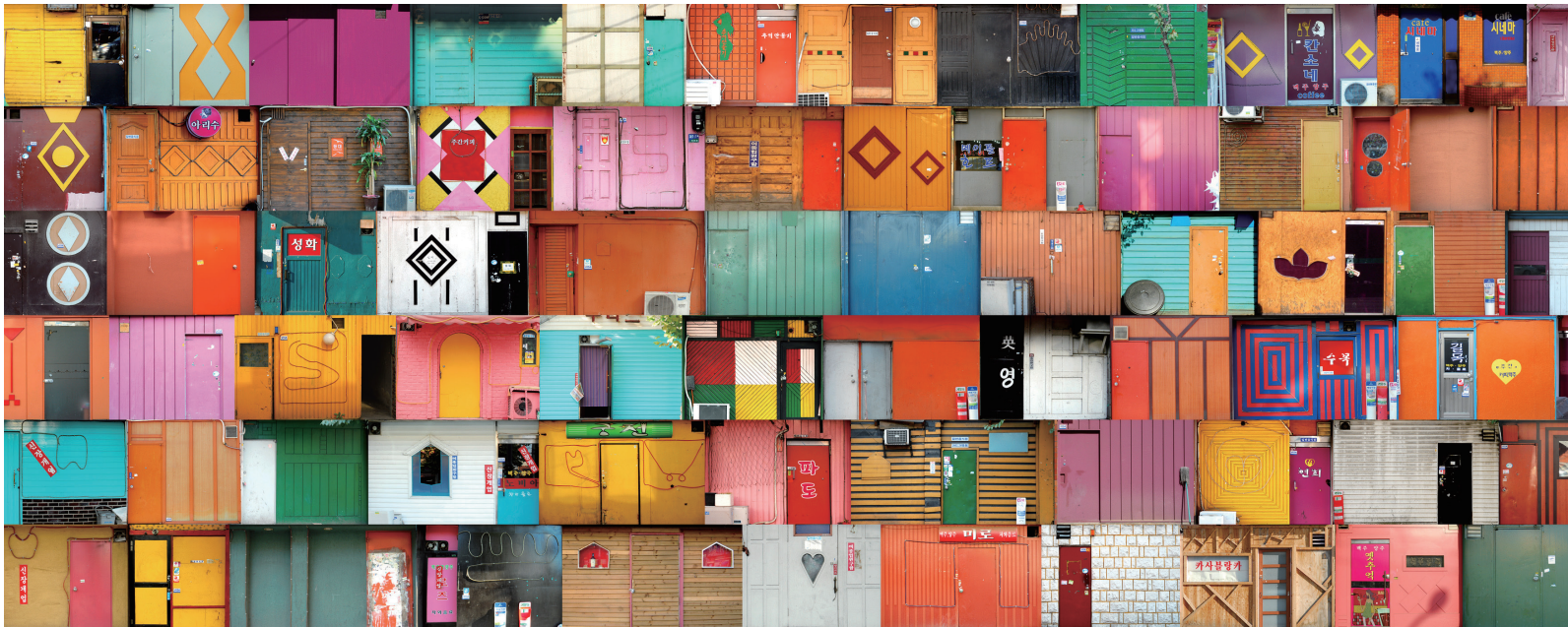
70 서울 건축 읽기 | 전형을 비껴 시인의 시간을 구현한 건축, 윤동주문화관

72 연극인 10분 희곡 릴레이 | 장재원 작 <사계(死契)>

4월의 서울문화매뉴얼

74 4월 Calendar

84 편집 후기



이달의 표지 작가 장석준

표지작 <하늘>은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같은 유형의 단면들을 수집해 제작한 사진평면화 시리즈 작업 중 셔터벽 이미지로 만든 작품이다. 셔터벽은 매일 스쳐지나는 길거리의 눈높이 풍경으로 붉은 벽 다음으로 자주 볼 수 있는 대상이다. 작업에 선정된 대상들은 산업화로 인해 대량 생성된 것으로 도시의 혼란 배경이지만 각각은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무수한 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생성, 확장돼 현재의 모습을 이룬 것들이다. 도시의 생태를 이루는 주요 단위이기도 하며, 이곳 삶의 일상적 풍경을 담담하고 있는 구조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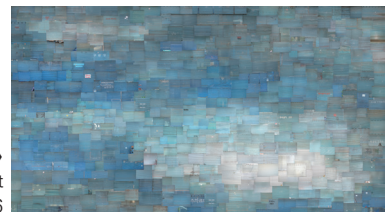
그래서 나는 가까운 주변부터 시작해 그것들이 확장돼 동네의 일상적인 풍경을 만들고, 어떠한 장소에서 토착화돼 주변 문화와 환경이 돼 있는지 찾아 사진 한 장 단위로 기록, 수집했다. 그리고 그 단위들이 모여 이뤄낸 풍경을 공간이 아닌 평면에 재배치해 도시 풍경화를 그렸다.

항상 있던 곳에 존재하기, 늘 보던 것, 아무런 이슈가 없는 것, 일정한 루트 안에서 반복된 경험은 현실의 공감각을 쉽게 무뎌지게 한다. 결국 '매일'이라는 일상성의 반복은 기억에서 현재를 조용히 지우는 일을 지속시키는 것이다. 나는 이곳 도시의 삶과 그 구조도 지워지는 기억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도시에서 우리는 이렇게 지워진 것이 쌓여 무뎌진 감각의 층위에, 과거·현재·미래가 공존된 시간이 담긴 낡은 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나의 작업의 시작은 이러한 흔해진 도시에서 공존하며 삶의

자생적 논리를 비춰볼 수 있는 대상을 풍경에서 찾는 것이다. 도시의 집합된 구조에서 대상들을 찾고 분류하며 재배치해 풍경을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가깝고도 먼 이곳을 이해하고, 친숙해서 잊힌 면면을 드러내는 시도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일상과 도시의 새로운 시점을 발견해내길 바란다.

표지작 <하늘>
digital c-print
| 250×380cm | 2006



장석준

2015년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 분야 지원작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장석준 작가는 <달려진 하늘의 무지개>(ArtspaceHue, 2006), <docu_META>(Mk2 Art space, 중국 베이징, 2011) 등 개인전을 4회 열었고, 인사미술공간 '열전'을 시작으로 <SeMA 2008> <System-pia>(영은미술관, 2011), <익숙한 낯설>(카이스 갤러리, 2012) 등 다수의 기획전에 초대되었다.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풍경을 다양한 매체의 기록 방식으로 제안해, 동시대 도시 현상의 새로운 읽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꽃마차〉

digital c-print | 46×220cm | 2007



〈문발1-menlien〉

LED light box, digital inkjet backlit film | 40×390cm | 2011



이 공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지난해 미술계에서는 젊은 예술가들이 직접 공간을 마련해 작업과 전시를 겸하는 프로젝트 공간의 증가에 대한 언급이 잦았다. 예술가 지원기금을 비롯한 기존 제도에 한계를 느낀 이들은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창작 활동을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예술과 현실을 둘러싼 담론을 생산하기도 한다. 자발적인 창작과 유통의 움직임은 독립출판물 시장의 활성화에서도 감지된다. 몇 년 새 독립출판물의 숫자와 해당 출판물을 판매하는 작은 서점은 시각예술 공간 못지않게 증가했다.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외부와의 소통을 고민하는 개인 혹은 소그룹의 창작자들. 작품 뒤에 숨어 있던 이들이 일어나와 장을 마련하고 느슨하게 교류하면서, 최근 문화예술계에서는 전에 없던 에너지가 감지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불균질하게 파생된 이 에너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4월 테마토크는 새롭게 생겨난 다양한 공간과 소규모 마켓을 소개하면서 그 에너지의 정체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공간, 독립된 창작자, 복합적 이벤트의 출현으로부터

고립되어 있기에 폭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종다양한 공간-시각예술 창작 및 프로젝트 공간, 독립출판과 문화가 매개된 서점 등-이 서울 곳곳에 생겨났다.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와 서점이 시작한 과자전, 언리미티드에디션 등의 행사는 '아는 사람만 아는' 규모를 훨씬 뛰어넘었다. SNS 소통의 보편화와 개인의 문화적 욕구가 어느 지점에서 교차한 결과다. 이 힘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숨어 있던 창작자들이 '잠깐' 모여들었을 때

1년에 한 번 독립출판물 제작자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 새로운 작업물을 선보이고 판매와 재생산을 복돋우는 시장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기획한 2009년으로 돌아가 본다. 핵심 설정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뒤편에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앞으로 불러 모으자.' 이 문장을 쫓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트북페어가 부흥하는 이유에 접근할 수 있다.

제작자들은 왜 뒤에 있는가. 독립출판은 일반적으로 작가 자신, '나'를 내세운 작업을 기초로 한다. 만든 사람의 자아와 감정과 철학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다. 과잉으로 넘치기도 하지만 절대 모자라는 법은 없다. 책 한 권이 그 자체로 자신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들은 특별히 자신을 규범적으로 서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산업이 흘러온 대로 마케팅할 생각이 없다. 회관에서 발간 기념회를 열거나 책을 사면 사인을 해주는 뻔한 사인회를 하거나 살 법한 사람과 회사에 전화를 돌려 정기 구독을 권유하지 않는다. 나 자신을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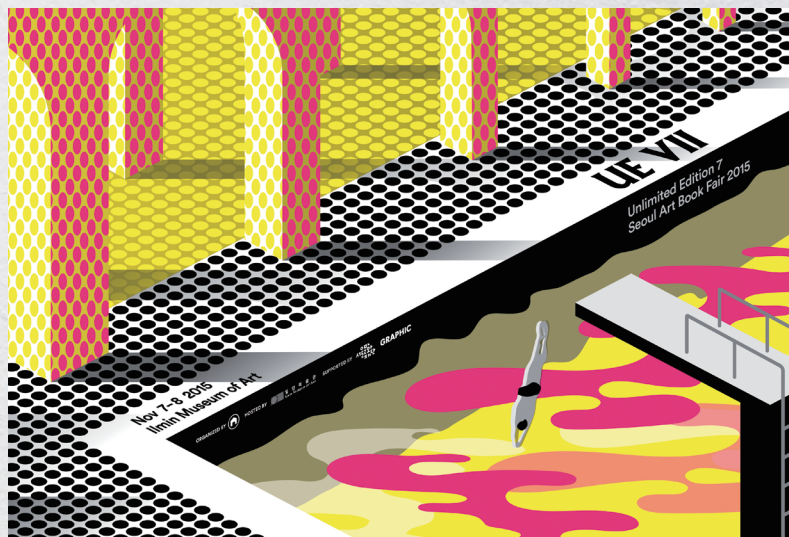
해 책 한 권을 만든 후, 그 책 뒤에 숨어버린다. 이 태도가 독자들을 새로운 신비주의와 소극적인 단절 사이를 오가게 만든다. 당연한 일이다. 산업의 바깥에서 태어난 책들이 산업 구조 안에 쌓인 관성적인 홍보를 반복할 리 없다.

신(scene)의 천성이 신의 고립을 부른다. 독립출판 신은 조금씩 확장하면서 언제나 동떨어져 있다. 거대 매체는 어떻게든 아직도 1990년대식 풀이(‘개성 만점’ ‘톡톡 튀는’ ‘광고가 없는’ ‘놀이로서의 출판’)를 거듭하지만 그런 낡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성의 논리에 쉽게 편입되지 않는다. 2016년 현재에도 거대 독자층에게 여전히 불친절한 벽(해설이 멀고 작가가 멀고 저점이 멀다)으로 가득한 신이다.

그렇게 고립된 문화가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 모이면, 굉장한 힘을 발휘한다. 그들이 책 뒤에 숨어 고립된 것은 일종의 기법이지 욕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두의 욕망은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그 욕망이 언어의 형태로 부글부글 끓는 아트북페어 현장의 기운을 무척 좋아한다. 누구도 협회식 사고(산업에 기여한다)를 하지 않지만, 역설적으로 그러지 않아서 끝내 전체 산업에 기여하게 된다. 방문객들은 독립출판이라는 큰 덩어리와 모두 다른 방식으로 끓고 있는 개인의 욕망을 동시에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공간과 이벤트, 다양한 필요와 욕망과 지향의 움직임

2010년대에 부각되고 있는 여러 행사(과자전, 굿-즈, 레코드페어, 언리미티드 에디션 등)는 그 역학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이들 행사는 제작자들이 ‘고립되어 있었음에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다. 평상시에 이 신을 회전시키는 작업실, 신생 공간, 전시장, 서점, 상점은 모두 상업 지역 혹은 대로에서 도망치는 형태로 위치한다. 인식과 접근에서 계속 바깥을 지향하던 예술가들이 일제히 안쪽으로 방향을 틀고 전진하면, 비정상적인 형태로 잠깐 팽창된다. 평소엔 그 공간들을 찾던 1,000명 내외의 독자·방문객 역시 이 행사의 주역이 되는데, 누구보다 신을 깊게 이해하는 이들은 단기간의 행사에 맞춰 자발적인 개인-매체로 변모한다. 주최 측-참여 예술가-핵심 관객-일반 관객이 서로 역할을 주고받거나 혼용하며 뒤섞인다. 이 벨트가 ‘이상한 잉여의 함성’을 만들어낸다. 그 누구도 전설로 남을 만한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서, 일견 무의미해 보이는 콘텐츠를 소비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보상 없이 민첩하



게 움직이면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처럼 튼튼한 목표를 향하지도 않는다. 이 한 문장에 들어 있는 모순과 불편함이 실은 현재 문화 공간과 행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통해 ‘출판의 다양성’도 느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욕망의 총합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역시 제대로 염탐할 수 있다.

욕망의 총합이기에 행사를 구성하는 요소도 자연스럽게 복잡해진 양상을 보인다. <과자전>에서 그래픽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은, <굿-즈>에서 퍼포먼스와 음악은, <레코드페어>에서 포스터 디자인과 음반 디자인은,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미술과 목공은 어떻게 연동되는가. 위 행사들의 다층적인 면모는 주최 측 역시 수요자·소비자이기에 발생한다고 굳게 믿는다. 행사 자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거나 따로 팀을 꾸려 부자연스럽게 기획할 때 생기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공백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주최 측이 곧 관객이므로 관객을 예상해 행사를 디자인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와 유사한 실제 관객을 위하는 길이 된다.

현재 대두되는 흐름은 서로가 상징한 관객층을 넘어설 때 일종의 벽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은 이 정도다’라고 그려놓은 범주가 깨질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형을 다시 그리거나 봉합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답하는 2016, 2017년이 되리라 예상한다. 불편하면서 뾰족한 문화의 확장은 어느새 이 신의 주체들에게 축제가자 과제로 남았다.

글
이로
무명의 쓰는 사람.
2009년부터 책방
‘유어마인드’와
아트북페어
‘언리미티드 에디션’을
운영하고 있다. <책등에
베이다>(이봄)를 썼다.

사진 제공
유어마인드

그림
손민정

테마 북크 이 공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시각예술 플랫폼과 독립출판을 만나는 공간의 출현

불균질하게,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최근 두드러진 문화 흐름 중 ‘공간’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자들이 마련한 다양한 형태의 창작, 전시, 플랫폼 공간이 눈에 띄었고, 독립출판물 시장 확대와 동네 서점의 증가를 중요하게 언급할 만하다. 이들 공간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생겨난 것은 이에 대한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일 터. 공간을 통해 문화예술의 현재와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가늠해볼 수 있겠다.

시각예술 플랫폼

: 작은 공간들이 각각 내는 작지 않은 목소리

제도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 목소리를 내려는 문화예술가들의 움직임은 어느 시대든 크고 작게 있어왔다. 예술이 가치를 얻는 것은 시대의 주요한 목소리를 반영할 때이고, 큰 규모의 국공립미술관이나 상업 갤러리에서 수용하지 못하는(혹은 수용하지 않는), 수적으로 훨씬 많고 다양하며 날 선 목소리와 의미 있는 창작 활동은 새로운 형태로 발표되곤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시각예술계에는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간들이 구도심 산업 지역을 중심으로 생겨났는데, 2015년에는 이것이 하나의 현상으로 보일 정도였다. 이들은 1990~2000년대에 주류 이외의 목소리를 담았던 ‘대안 공간’과는 확연히 다른 맥락과 방식을 가진 공간들이다. 20대 중반~30대 초반의 젊은 작가와 기획자들이 작품 활동을 선보이고 작가를 소개하는 데에 제도적인 한계를 느껴 스스로 마련한 공간이다. 1인 혹은 뜻 맞는 다수가 공동 운영하는 공간들은 대체로 ‘느슨한 연대’를 지향하며 공간에서 작품 활동과 전시를 겸한다. 공간의 지향점에 따라 일부 공간에서는 예술 작품 자체, 혹은 작품과 관련한 파생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이들이 생성된 이유와 활동 방식, 지향점 등은 공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들 시각예술 관련 공간의 생성 경향을 한데 묶어내는 것은 다소 거칠지만, 이렇게 다양한 시각예술가들이 다양한 공간을 열고 따로 또 같이 움직이며 제 몫의 고민을 풀어가게 된 결과는 분명 여러 가치를 시사한다. 예술가가 작품 활동을 통해 먹고사는 일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가 그중 하나다. 이 공간들은 대부분 임차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처음부터 기간을 한정해 운영하기도 한다. 취약한 활동 기반에서 현재를 직시하며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오늘’과 ‘내일’을 말한다. 관객으로 이들 공간을 찾는 시민 역시 시절이 말하는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터. 이들 공간이 각각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공간이 생겨난 흐름으로부터 예술의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야 할지 주목해보자.



800/40

‘800/40’은 이문동에서 작가 두 명의 개인 작업실로 처음 시작됐다. 보증금 800만원, 월세 40만 원에 임차한 공간에는 액면가 그대로의 이름을 붙였고, 작가 레지던시를 운영하면서 작업뿐만 아니라 작품을 선보이는 공간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2015년 을지로 대림상가로 이전했고, 현재 다섯 명의 기획자와 작가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800/40은 장르에 제약을 두지 않고 전시, 음악, 퍼포먼스, 영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작가 개인(또는 팀)의 활동을 지지한다.

2015년부터 800/40은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24시간 레지던시(하루 동안 작가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4시간 전시(하루만 전시 진행) 그리고 300/20, 200/20과 함께 운영하는 240시간 프로그램이다. 열흘 동안 한 작가를 세 공간에서 집중 조명하는데, 전시는 800/40에서 하고 전시 작가의 작품에서 파생되는 것을 300/20에서 판매하며, 작가의 텍스트는 200/20에서 판매하는 방식. 이 오픈 플랫폼은 앞으로도 유동적, 유기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80040.org

300/20

세운·청계·대림상가에 자리 잡은 예술 공간 중 가장 먼저 생긴 곳이 ‘300/20’이다. 예술 작품의 판매와 유통에 관심을 두고 움직이는 곳으로, ‘예술품이 아닌 예술을 팔자’는 것이 목표다. 800/40에서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창작 환경에 대해 고민하다가 300/20이 생성됐으며,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협력하는 열린 시스템을 구성한다. 예술의 가치가 그 자체로 인정받음으로써 창작자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작업을 지속하고자 한다. 홈페이지 30020.org

지금여기

종로구 창신동 해발고도 70m에 자리 잡은 ‘지금여기(nowhere)’는 시대적 풍경을 관찰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공유하려는 두 명의 젊은 사진가 김익현과 홍진현이 운영하는 전시 공간이다. 창신동은 홍진현이 어릴 적 살던 동네로, 작은 봉제공장과 좁은 골목,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김익현과 홍진현은 높고 주름지고 그늘진 이곳에서 한때 주차장이었고 봉제공장이었던 50여 평의 공간을 특별한 전시장으로 바꾸었다.

그들에게 지금여기는 젊은 예술가들이 사진을 중심으로 모여 ‘노는’ 공간이다. 지금여기에서 진행된 첫 프로그램 <접속유지>가 열린 것이 2015년 1월.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지금여기, 장님 꼬끼리 만지듯> <타임라인의 바깥> <어쩌다 이런 곳까지> 등의 전시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그들은 전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시공간을 응시하고 꺼내 보인다. 사적이고 일상적인 경험에서 생겨나는 의문들을 작

1
지난 2015년 10월 전시 <XS: 영스튜디오 콜렉션>이 진행 중인 창전동 ‘우정국’의 전시 공간.

2
800/40, 300/20, 200/20은 서울시립미술관의 전시 <서울 바벨>(2016. 1. 19~4. 5)에서 공간의 특성과 운영 시스템을 설치로 구현했다.

3
창신동 ‘지금여기’의 전경.

굿-즈

굿-즈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행사다. 동시대 미술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시각예술 작가 80명·팀이 참여해 작업의 파생물 등을 직접 판매한 일종의 미술 장터이자 전시였다. 예술 공간을 직접 운영하는 기획자 및 작가 30여 명이 주축이 되어 개최됐는데, 행사명 ‘굿-즈’는 흔히 특정 콘텐츠의 부가 상품을 가리키는 ‘굿즈(goods)’라는 단어를 통해 미술계가 처한 상황을 다르게 풀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붙인 이름이다. 기존의 아트페어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즉 판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설치, 퍼포먼스, 영상 등 형태 없는 작업들이 어떻게 유통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작가의 고민과 대중의 호기심이 만난 자리였다.



언리미티드 에디션

언리미티드 에디션(Unlimited Edition)은 작가와 출판인, 디자이너와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자신이 만든 책과 잡지, 음반과 문구류를 직접 들고 나와 판매하는 아트북페어이자 독립출판물 시장이다. 제작자와 관람객이 만나 독립출판물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시각예술 분야, 인디 음악과 관련된 다채로운 강연과 영상회 등이 부대 행사로 진행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하다. 2009년부터 매년 개최된 언리미티드 에디션은(해마다 새로운 개최 장소를 물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는데, 2015년 일민미술관에서 열린 제7회 언리미티드 에디션에는 180여 팀이 참가했고 1만 3000명의 관람객이 찾아왔다.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책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조망할 수 있는 행사로, 문화예술계 청년들의 교류와 유통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품으로 풀어내고,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작가들을 지속적으로 호명해왔다.

지금여기는 앞으로도 사진을 기반으로 하되 놀고 먹으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

홈페이지 www.space-nowhere.com



‘합정지구’는 마포구 서교동, 낡은 주거 공간과 오피스 빌딩이 섞인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전시 공간이다. 이 공간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미술인들이 창작을 매개로 삶과 예술이 함께 나아가 할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합정지구는 20~30대 작가들이 서로의 작품 세계를 보이고 느슨한 연대를 이루는 공간이다. 현재 합정지구에는 지난 2015년 2월 <지구>전 이후 전시에 참여한 작가 8명의 개인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회화, 사진, 설치 등 다양한 장르와 관심사를 다루고 있지만, 자신만의 미

술 언어를 삶 속에서 꾸준하고 진지하게 개발해온 내공을 갖춘 작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합정지구는 ‘기어가더라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공간’을 지향한다. 운영자이자 작가인 이제는 “열심히 작업하고 글을 쓰는 예술인들이 모여서 서로를 보이고 응원하면서 동적으로 진지하게 노는 삶을 꿈꾼다.”고 말한다. 작가들의 동력은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부지런한 모색과 작업의 연결, 그리고 작업과 삶의 맞물림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합정지구는 공간 공사부터 전시 기획, 운영까지 많은 예술인의 수고로 유지되고 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hapjungjigu



‘활활’은 기획자 신소우주와 작가 장성진이 이룬 기획자 그룹의 이름이자, 이들이 관악구 조원동 펭귄시장에서 운영하는 작업 공간이다. 2012년 봄, 38년 된 펭귄

시장 2-나-16호에서 시작된 활활은 문화예술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 혹은 본인의 창작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작가로 구성된 모임이다. 서로의 시공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를 모티프로 작업해온 기획자 신소우주와 살아가는 존재로서, 물리적인 기능으로서의 움직임을 사물의 성질에 빗대어 작업해온 작가 장성진을 주축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



다. 이들은 틀에 박힌 시스템 안에서 저지르지 못했던 다양한 주체적이며 작은 기획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또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개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연대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 2013년 <홀홀(털어 버렸어야)투어>, 2014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2015년 <자전거마을버스마포08-1번>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스튜디오 파이

마포구 성산동에 소재한 스튜디오 파이(Studio Pie)는 취미로 예술을 즐기고 싶은 비전공자들을 위한 다목적 예술 공간이다. 2013년 4월 소수 정예 화실로 시작해 2014년 10월 다양한 문화예술을 배우고, 즐기고, 창작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단장했다. 2013 아르코 작가 워크숍, 2014 <오늘의 살롱>, 2015 <아티언스 오픈랩> 등에 참여한 박현정 작가를 필두로 강은영(판화), 김혜원(뜨개질), 차슬아(모형복제) 작가 등이 함께 다양한 클래스를 이끌어가고 있다.

스튜디오 파이의 클래스는 크게 다목적반과 취미미술반으로 나뉘는데, 다목적반은 미술뿐 아니라 뜨개질, 베이킹, 소규모 독립출판 등의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되며 취미미술반은 유화, 수채화, 아크릴화, 드로잉 등 각종 그림 그리기의 전반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젊은 예술가들과 비전공자들의 교류를 장려하는 스튜디오 파이는 일상 속에서 예술을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예술의 저변을 확장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홈페이지 studiopie.net

우정국

우정국은 2015년 6월 마포구 창전동의 옛 창전우체국 건물에 자리 잡은 공간이다. 근처 우체국과의 합병으로 인해 사용처가 없어지면서 입찰에 부쳐진 공간을, 미디어아트 작가와 문화연구가, 공연기획자 등이 운영하게 되며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발현시키고 있다. 1층의 홀처럼 트인 공간에서는 시각예술 분야의 전시를 비롯해 미디어아트와 음악 공연, 퍼포먼스 등이 벌어지고 2층의 방처럼 구획된 공간과 옥상에서는 워크숍과 세미나 등이 진행된다. 이들에게 일단 주어진 시간은 5년. 임대차 계약을 1~2년 주기로 갱신해야 하는 다른 공간에 비해 긴 시간이기엔 운영진은 '장기 프로젝트'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갈까 고민한다. 개관 첫해에 아티스트 레지던시 운영을 알리며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프로젝트를 꾸준히 채워가는 '탈영역 우정국'은, 동네에도 자연스레 스미며 우체국이던 시절 지녔던 공간의 커뮤니티 기능까지 잘 이어나가 고자 한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ujeongguk

- 4 정덕현 개인전이 진행 중인 공간 '합정지구'의 내부.
- 5 '활활'은 관악구 조원동 평권시장에 작업 공간을 두고 있다.
- 6 미술비전공자를 위한 다양한 미술워크숍이 진행되는 다목적 예술공간 '스튜디오 파이'.
- 7 창전동 '우정국' 1층 공간에서는 전시, 공연,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작업이 진행된다.



독립출판물의 증가와 그 매개 공간

: 문화 연결고리로서의 서점

독립출판물은 ‘시장’이라는 단어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은 만큼 몇 년 사이 신의 규모가 눈에 띄게 확장됐다. 독립출판물 제작자와 소비자가 교류하는 장의 역할을 해온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7회째를 맞은 2015년 방문자 수가 전년 8000명에서 5000명 정도 늘어난 1만 3000명 규모로 집계됐다. 점진적으로 성장했지만 2013년부터 판매자나 방문자 모두 그 규모의 확대를 피부로 느낄 정도였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던 독립출판물 유통 채널 역시 홍대 앞은 물론 성수동, 해방촌, 을지로 등 다양한 곳에 작은 서점이 문을 열며 확대됐다. 최근 ‘동네 서점의 부활’로 언급되는 작은 규모의 책방 중 독

립출판물을 유통하는 곳에서는 독립출판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것을 비롯해 책의 콘텐츠 기획, 제본 등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워크숍을 운영한다. 색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책과 콘텐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독립출판물들은 이를 사랑하는 소비자에 의해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이것이 일종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책은 접근의 문턱이 비교적 낮은 매체

언더그라운드북마켓

2015년 8월 시작해 지난 3월 3회까지 개최된 독립출판물 마켓이다. 스토리지북앤필름이 주최하고 근거리 해방촌에 위치한 동네 책방들과 가게들이 참여한 소규모 플라마켓으로 출발했는데, 셀러 수가 1회 25팀에서 3회 80여 팀으로 크게 증가할 정도로 큰 호응 속에 지속되고 있다.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언리미티드 에디션이 대규모 마켓으로 시각예술, 디자인, 음반 등 다양한 장르에 종사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넓은 영역의 교류의 장이라면, 언더그라운드북마켓은 계절에 한 번꼴로 해방촌 일대에 자리한 서점 및 워크숍 공간에서 진행돼 좀 더 가깝고 친근한 독립출판물 마켓을 경험할 수 있다.

로, 동네에 하나둘 생겨나는 개성 있는 서점은 책 판매뿐만 아니라 독서 클럽 운영, 토크와 낭독회, 영화 상영 등 문화적인 경험과 담론 형성의 장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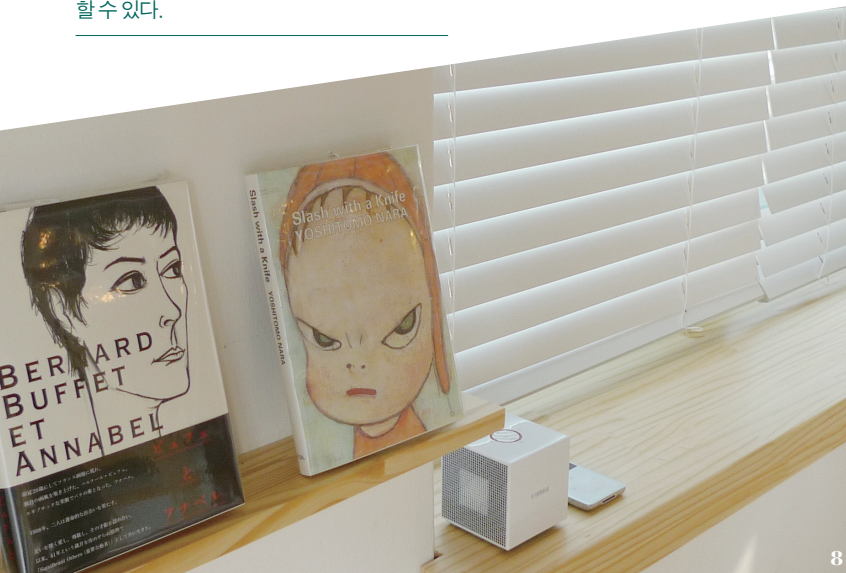
유어마인드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유어마인드는 2009년 시작했다. 온라인 유통을 먼저 시작한 뒤, 책의 물성을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이를 선보일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오프라인 공간을 오픈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국내의 소규모 출판물을 소개하고, 다양한 워크숍과 특별 판매전 등을 개최한다. 찾기 쉽지 않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 5층의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은 독립출판물의 제작자와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공간이며, 출판물 외에 소규모로 생산된 천가방, 문구, 음반도 유통된다. 정형화된 시스템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출판되는 책들을 만나고 동시에, 그 문화의 일원이 되는 자유로운 형태의 공간이다.

홈페이지 www.your-mind.com

스토리지북앤필름

스토리지북앤필름은 용산구 용산동2가, 동네의 경사진 골목에 위치한 서점이다. 이곳의 운영자는 필름 카메라에도 조예가 깊어, 카메라를 수입해 판매하다가 본인의 사진집을 만



8



9

들고 이를 정기적인 간행물 형태의 <WALK zine>으로 발전 시키며 독립출판물과 인연을 맺었다. 현재 스토리북앤필름에서는 독립출판물과 필름 카메라를 함께 다루고 있으며 손으로 직접 잡지를 만드는 '진(Zine) 메이킹 워크숍'을 비롯해 북바인딩 워크숍 등 책의 물성이 지닌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공간이 문을 열 당시에는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았지만 해방촌에 개성 있는 서점과 카페, 문화 공간이 여럿 생기고 스토리북앤필름도 이러한 동네의 주민으로 녹아들고 있다. 독립출판물을 주로 다루는 다른 작은 서점들과 함께 소규모 출판물 북페어인 '언더그라운드북마켓'을 진행한다.

홈페이지 www.storagebookandfilm.com

200/20 200/20은 2015년 2월 청계상가에 문을 연 서점이다. 텍스트를 파는 공간으로서, 이곳에 진열된 책 중 반 정도를 차지하는 일반 출판물은 운영자가 소장하던 책이고 나머지 반은 특정 주제(2015년의 주제는 '시간과 공간')에 맞게 구성해 들여온 책이다. 운영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생성, 채집하고 이를 독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이 공간의 기본 역할로 삼는다.

함께 유통되는 독립출판물의 경우에도 텍스트 중심의 책을 주로 판매한다. 그림, 사진, 그래픽 등 이미지 중심의 책

이 인기를 얻는 독립출판물 시장에서 텍스트에 방점을 찍는 책에 문을 열어두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와 함께 예술을 비롯해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게스트를 초대해 현실 문제와 예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프로그램 '어초문답(漁樵問答)'을 운영한다. 공간에서 생성되는 이야기도 일종의 '텍스트'로 보는 것. 문화평론가 서동진, 디자인연구가 박해천, 시인 심보선, 경제학자 홍기빈 등이 게스트로 참여해왔다. 홈페이지 200x20.org



지난 2015년 9월 이태원 우사단길에 문을 연 햇빛서점은 LGBT 콘텐츠를 판매하는, 한국 최초의 LGBT를 위한 서점이다. 성소수자의 문화가 음식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 운영자가 직접 적금을 털어 마련한 공간으로, '햇빛서점'이라는 이름에는 이 공간이 한낮의 햇살 속에 많은 이들이 오가는 커뮤니티가 되길 바라는 운영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다른 공간들이 그렇듯 햇빛서점의 운영 시간도 유동적인데,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두 운영자의 작업실을 겸하므로 방문 가능한 시간을 SNS를 통해 확인하고 찾는 것이 좋다. LGBT 매거진, 사진집, 관련 해외 도서 등을 만나볼 수 있다.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nnybooks.kr

8 다양한 독립출판물을 비롯해 그림, 사진 관련 해외 출판물을 만날 수 있는 서교동 '유어마인드'.

9 스토리북앤필름에서 주최하는 독립출판물 마켓 '언더그라운드북마켓'.

10 중림동 대림상가에 자리한 '200/20'은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채집, 판매한다.

11 LGBT의 사랑과 이야기가 따뜻한 햇살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길 바란다는 우사단길 '햇빛서점'.

사진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지금여기, 합정지구,
활활, 스튜디오파이,
우정국, 유어마인드,
스토리북앤필름,
200/20, 햇빛서점



소그룹 창작자들의 또 다른 잔치 마당

홍대 앞, 광화문... 때 되면 그곳에서 열립니다

시각예술과 독립출판뿐만 아니라 음악, 디자인 등 감각의 최전선임을 자처할 만한 다른 분야에서도 개인이나 소규모 창작 집단이 직접 만들고 운영하는 콘텐츠와 축제는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아울러 몇몇 문화기관에서는 이러한 흥미로운 문화가 오가는 자리를 상설로 기획해, 시민의 문화 접근 문턱을 낮추고 창작자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만날 수 있는, 고정 공간 외의 ‘잔치 마당’을 소개한다.



‘어떤 음악이 인기를 얻고 있는가’에 대한 현재 가장 보편적인 기준은 음반 판매량이 아닌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횟수다. 빠르고 쉽고 선택의 범위가 넓

으면서 아주 적은 비용이 드는 음악감상법이 있으므로 음반을 제작하거나(창작자) 구입하는 것(음악 팬)은 이제 ‘비용’의 문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그러나 책·출판이 그러하듯 음반 역시 물성이 지닌 가치는 ‘상품’ 그 이상이다. 음악으로 밥벌이를 하기 힘들어도 비용을 들여 CD를 찍는 뮤지션과, 음원에 비하면 수십 배가 비싼 테도 CD나 LP를 구입하는 음악 팬들에게 이는 경제가 아닌 문화, 음악에 대한 경험 등 다른 가치의 문제다.

레코드페어는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들이 모이는 자리다. ‘레코드페어’라는 이름은 본래, 역시 음반 컬렉터와 판매자의 잔치인 ‘레코드페어’에 초대받지 못한 이들의 행사라는 뜻에서 붙었다. 레코드페어는 오프라인 매장이거나 온라인을 통해 음반을 유통하는 판매자와 다수 음악 레이블, 해외 음반 수입유통처 등이 판매자로 참여하는 반면, 레코드페어는 밴드나 개인이 직접 소량 제작한 음반이나 데모 즉 개인의 창작물이 담긴 음반이라면 CD, LP, 카세트테이프 등 형태에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한 행사다.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공연 쇼케이스 역시 허가제가 아닌 신청제다. 자발적인 창작과 유통, 공연이 이루어지는 자리는 한 해에 두 번꼴로,



지난 3월까지 열두 번 개최돼 숨은 보석을 찾기 위한 음악팬들과 꾸준히 만나고 있다. 홍대 앞 (지금은 없어진) ‘살롱바다비’나 한남동 ‘테이크아웃드로잉’ 등 젠트리피케이션 이슈와 맞닿은 장소에서 벌어진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과자전은 두 명의 디자이너가 2012년 이태원에 워크스(Works)라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오픈한 후 공간의 이용과 홍보를 위해 이벤트로 시작한 행사다. 첫회는 셀러 5명이 참여한 작은 디저트 플리마켓이었는데, 반응이 좋아 점점 규모를 확장해갔다. 행사에 참여한 이들이 귀여운 모양과 색깔의 과자를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하면서 과자전의 존재가 알음알음 알려진 것. 작년까지 여섯 회 진행된 과자전은 이제 워크스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다.

과자전의 인기는 비단 디저트의 인기와 ‘먹스타그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 이전에 과자를 직접 만드는 이들의 즐거움이 있었고, 아마추어 베이커가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과자, 기성품과는 다른 맛과 모양의 과자를 만나는 손님의 즐거움이 있었다. ‘과자’라는 사소한 아이템이 얼마나 다양하고 재밌을지 전시해보자는 일종의 마니아 코드가 감지되지만 여기엔 DIY 문화가 갖는(그리고 과자라는 특성에 기인한) 보편적인 즐거움도 공존한다. 다만 지난해 6회 행사는 운영자의 예상선을 훌쩍 넘어선 호응과 이에 대한 준비 부족



으로 잡음이 생겼다. 운영자와 참여자의 경계가 불분명한 소규모 공간과 축제에서, 예상 범위를 넘어서는 호응에 대해 어떤 운영과 대처로 이 문화가 유지 혹은 발전할 수 있을지, 과자전은 축제만큼 큰 과제를 제일 먼저 맞닥뜨리고 있다.



KT&G상상마당은 디자인 습 운영, 전시장과 공연장, 영화관, 문화예술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성격에 맞게 알찬 콘텐츠를 채워 운영하는 곳이다. 홍대 앞이라는 지역 특성 덕에 문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해 이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 중 작은 단위에서 촉발된 문화를 일찌감치 정기 행사화해 꾸준한 호응을 얻어온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독립출판, 소규모 출판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어바웃북스(About Books)’와, 인디레이블의 음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레이블마켓(Label Market)’이다. 어바웃북스가 올해로 6번째, 인디레이블마켓은 올해 9번째 행사를 마쳤다.

이들 행사는 전시와 판매를 겸하는 마켓이라는 점에서 창작자·공간 운영자가 직접 개최하는 행사들과 맥락을 같이하고, 창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과 세미나를 마련해 관심 가진 이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레이블마켓에서는 원하는 음반을 직접 들을 수

있음은 물론, CD의 아트웍이 눈에 띄도록 전시하는 방식으로 음반의 즐거움을 선보이는 동시에, 디자이너와의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해 음악과 관련한 일종의 굿즈를 생산, 판매한다. 인디레이블로 참여 대상을 한정하고 이들의 다양한 음악을 시각적으로 경험하도록 하며 ‘소장’의 이유와 재미를 찾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음악 관련 페어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종예술시장 소소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세종문화회관 뒤뜰(예술의 정원)에서 벌어지는 예술시장이다. 2013년 5월에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소소는 독립출판물을 비롯해 디자인 소품과 드로잉, 일러스트, 사진 등 다양한 예술 아카이브가 선보이는 자리로, 가까운 도심으로 나들이 나온 가족·친구 단위의 시민에게 인기가 좋다. 언리미티드 에디션 등의 행사나 관련 공간들이 SNS를 주요한 홍보 매체로 삼기에 ‘이는 이들이 깊이 좋아하는’ 문화로 전문성을 더하는 동시에, 소소와 같은 일반 시민 대상의 예술 시장이 하나둘 늘면서 개인 및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의 다종다양한 작업은 외연을 넓히고 있다. 소소 역시 창작자가 신청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상과 예술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을 지향하는 마켓이다.

사진 제공
자립음악생산조합,
워크스,
KT&G상상마당,
세종문화회관

200/20, 300/20, 800/40 운영진 인터뷰

예술의 가치와 창작의 현실이 나아지도록

800/40, 300/20, 200/20은 세운창계상가와 대림상가에 자리한 공간들이다. 시각예술가의 작업실이자 레지던시인 800/40으로부터 다른 두 공간이 파생됐고, 이들은 현재 각각 작품 공개, 예술 작품의 판매 및 유통, 텍스트 판매라는 각각의 몫을 하면서 느슨하고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인다. 예술의 가치로 하여금 창작자의 현실이 나아지는 일, 그래서 다음 그다음 활동이 활발하게 선순환하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 공간은 최근 다양한 공간의 출현과 큰 맥락을 같이한다. 세 공간의 운영자들로부터 공간과 그다음에 대해 이야기 들어보았다.

각 공간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왕자은(이하 '왕') 300/20의 공동운영자 왕자은입니다. 300/20은 '예술품이 아닌 예술을 팔자'는 다소 거창한 목표로 시작한 공간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는, '예술 작품의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공간'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술비(이하 '전') 800/40을 다른 운영진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전술비입니다. 800/40은 저를 포함해 5명의 기획자와 작가가 공동 운영하고 있고, 연극이나 공연, 전시, 퍼포먼스 등 장르에 관계없이 작품을 소개하는 문화예술 오픈 플랫폼입니다. 이문동에서 작가 두 명이 개인 작업실을 오픈하면서 800/40이 시작됐고, 2015년 세운상가로 이전했습니다.

김진하(이하 '김') 200/20을 운영하는 김진하입니다. 세운창계상가에 800/40, 300/20에 이어 생긴 공간이죠, 서점의 형태를 가지면서 텍스트를 파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인데 지금은 '텍스트를 팔고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웃음)

이 세 공간은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나요.

전 일단 200/20과 300/20 모두 각자 프로그램을 기획해요.

800/40의 경우 기본 프로그램은 세 가지인데요, 24시간 레지던시(하루 동안 작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24시간 전시(하루만 전시 진행), 그리고 240시간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240시간 프로그램은 열흘 동안 한 작가를 세 공간에서 집중 조명하는데요, 열흘간의 프로그램을 잘 때 만약 전시라면 800/40에서 하고, 작가의 작품에서 파생되는 것을 300/20에서 판매하며, 그 작가의 텍스트는 200/20에서 판매하는 식이지요.

왕 처음에 800/40에서 작품을 발표한 작가들을 중심으로 창작 환경에 대해 고민하다가 300/20과 200/20이 나오게 된 셈이에요. 모두 관계하는 활동가라고 볼 수 있죠.

김 모두 각 공간의 운영자이자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은 열려 있어서, 각 공간은 공동운영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외부에서 작가가 전시를 제안하는 것도 가능해요. '따로 또 같이'인 셈이죠.(웃음)

이른바 '신생 공간'이라 불리는 곳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세 공간 모두 자주 언급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배경에는 창작자들이 다른 방식의 자립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모순 등 불가피한 환경이 맞물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각자 느끼는 점이 궁금합니다.

왕 '시장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까'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물을 통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데 대해 작품이 상품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어 경계하기도 합니다. 한테 창작을 지속하는 것은 금전적인 성과와 뗄 수 없는 일이에요. 계속 적자를 내면서 어떻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창작 행위의 결과물이 유용하게 판매될 만큼 상품적인 가치를 갖는 작품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상품으로서 무가치해 보일 수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도 저는 작품이 판매되어 작가들의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세도 내고 밥도 먹어야 하고 작품을 만드는 데도 비용이 들고, 이 공간의 운영도 사실 저 개인에게는 적자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유통을 해야 작가들이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겠죠.

전 300/20은 판매와 유통에 관심이 많은 공간이고, 800/40은 전시나 공연을 많이 하는 공간이에요. 처음에는 작업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고 내부 운영진은 이를 활용해서 창작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서로 '으쌔으쌔' 독려하며 작업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외부에서 공간 요청이 있으면 좋은 작업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게 잘 순환되는 게 800/40이라는 공간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점도 있긴 하지만 그걸 비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작업을 이어나가는 게 일차 목표이고요.

회화처럼 판매를 염두에 둔 작업도 있지만 설치미술이나 영상 작업처럼 판매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창작자들도 있죠. 작년에 열린 굿-즈가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마련한 작은 돌파구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창작자가 비슷한 맥락의 고민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왕 300/20이 판매와 유통을 기본으로 하는 곳이지만 사실 굿-즈와는 좀 다른 맥락이 있어요. 300/20의 전제는 ‘상품이 아닌 예술을 팔자’, 즉 비물질적인 것이라도 작품 자체를 팔거나 예술 자체를 팔자는 큰 목표가 있고, 행사 ‘굿-즈’는 작품에서 파생된 다른 생산품 즉 (말 그대로) ‘굿즈’를 판매하는 행사이거든요. 사실 구분하기 애매한 부분은 분명 있어요. 판매를 위해서는 가격이 책정되고, 자본 시스템을 차용해야 하니까요. ‘그럼 상업 갤러리와 300/20의 차이가 뭐냐’는 이야기도 듣는데, 이 공간에서 다른 형태로 작품의 가치

를 조명하고 작품을 사는 사람(관객)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판매와 작품에 대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진과 계속 고민합니다.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200/20에서는 판매하는 텍스트에 독립출판물을 포함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 텍스트를 판매하는 데 있어 기존 출판물과 독립출판물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어요. 독립출판물과 관련해 생각한 점이 있다면, 이미지나 디자인 중심의 출판물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책은 ‘책=텍스트’거든요.(웃음) 이미지 중심의 책에 비해 텍스트 중심의 책은 덜 주목받는 점이 있어서, 그런 독립출판물을 판매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텍스트와 관련한 무언가가 계속 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죠.

작가의 입장에서 느껴지는, 시각예술가들과 책을 만드는 이들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김 독립출판물을 내는 분들은 좋아서 하는 일이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 지점에서 공감이 되죠.



다만 '나만 좋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듯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워요. 요즘 소비자들은 디자인에 민감해서, 책을 손에 쥐었을 때 표지 디자인과 그림감이 좋으면 내용을 한 번 더 보거든요. 내용은 흥미로운데 왜 디자인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좀 안타까워요. 그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의 양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공간이 많이 생겨나는 현상과 관련해 '자립'과 '젠트리피케이션'이란 키워드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불과 1~2년 사이의 일인데 벌써 끝을 보이는 곳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처음부터 운영 기간을 한정된 프로젝트들이 있기도 해요. 혹시 공간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시나요.

왕 없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게, 이 공간이 없어지면 여기서 한 활동이 모두 없어질 테니 안타까운 거예요. 그전 800/40이나 200/20도 마찬가지죠. 각 공간은 많은 사람이 노력해 만들어진 공공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망치면 어찌지 하는 책임감도,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도 큼니다. 이 공간을 통해 생계와 바람직한 창작 환경을 도모할 수 있는 장치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죠.

전 800/40은 300/20이나 200/20과 달리 '판매'가 빠진 공간이에요. 완전히 수익이 없는 셈이죠. 그래서 운영진끼리 공간의 보증금과 월세를 충당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기금을 지원받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외부 작가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가 피(fee)를 지불하면서 서포트하

는 게 목표이고, 그렇다 보니 적자 폭이 조금 늘기도 하죠.

세운상가의 임차료가 오르면 우리 공간의 임차료도 오를 거고 그때마다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 '내 물질과 에너지를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유지하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거예요. 내 작업을 하고 작가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 만든 공간인데 그게 오히려 개인을 힘들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다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변화의 조짐이 혹시 있나요?

김 세운상가도 부분적으로 정비하는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년 중순쯤 완공이라는데 그럼 눈에 뵈는 만큼 달라질 테고, 2년 3년 후엔 외적으로 더 많이 달라지겠죠.

이런 새로운 공간이 지속적으로 생길까요? 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현상이 전체 문화예술 신(scene)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자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왕 300/20과 관련해 좁은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창작자에게 작업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건, 사건이나 현상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공간에서 재미있는 걸 많이 해봐야지 하고 생각해요.

전 1990~2000년대 새로운 공간들이 생길 때엔 이를 '대안 공간'이라 묶어 이야기할 만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상은 그때처럼 하나의 단어나 흐름으로 압축해서 논하기에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눈에 띄게 대단한 걸 만들지도 않고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단지 이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작업에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꾸려가고 싶습니다. 다른 공간도 각자의 다른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와 방향에 맞게 잘 간다면 좋겠고요.

김 요즘 플랫폼 공간이나 독립서점이 꽤 많이 늘어나는데 솔직히 과하게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시각 예술가들의 공간은 800/40처럼 각자 창작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 되고자 생겼는데, 이들을 위한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독립서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200/20이 생겨날 당시에도 수요 초과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책만 팔 수 없다, 다른 걸 팔아야지' 싶습니다.(웃음) 개인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게 끝이 되진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
이아림, 조아라

사진
김창제



어떤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나요?

춤추고 싶은 **서울시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청년, 가족, 주부, 노인, 직장동호회, 마을공동체 등 각종 커뮤니티

춤바람 커뮤니티는 무엇을 하나요?

커뮤니티 댄스 전담예술가와 함께하는 **춤 워크숍(1회 2시간, 총 12회)**이 진행됩니다.
※ 춤 워크숍은 몸을 살리고,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커뮤니티 댄스 워크숍입니다.
※ 댄스스포츠, 힙합, K-POP 댄스 등 특정 장르의 춤 워크숍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행돼요!

하나! 지원서를 접수해주세요.
둘! 접수된 지원서 중 서류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셋! 서류심사를 통과한 커뮤니티는 면접심사에 참여해주세요.
넷! 이렇게 선정된 커뮤니티는 오리엔테이션에 꼭!꼭! 참석해주세요.
다섯!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전담예술가와 일상 속에서 춤 워크숍을 진행해주세요.
마지막! 서울시민 누구나 춤추는 날! 서울무도회를 즐겨요!



※상기 일정 및 장소는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해주세요!

하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sfac.or.kr>)에서 [지원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둘! 참가신청서 문항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세요!
셋! 한 번 더 확인 후 지원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지원 신청 후 수정이 불가합니다.

이것만은 안돼요!

하나!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는 안됩니다.
둘! 영리목적 및 특정 장르 워크숍 운영은 제외합니다.
셋! 선정 후 위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궁금할 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울문화재단 축제지원센터 서울댄스프로젝트 담당자
☎ 02)3290-7167



현대무용가 김설진

계절과 사람을 추다 한계를 뛰어넘는 춤을 모색하다

현대무용가 김설진(35)의 춤은 다르다. 백지 상태의 맨눈으로 봐도 시선을 땔 수 없게 하는 힘이 있다. 탄탄한 기술로 다져진 몸짓은 유려하고 맛있는 수준을 넘어 경이로울 정도다. 무엇보다 춤에서 감정이 전해진다. 보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난수표 같은 현대무용에서도 망치려던 이들은 김설진을 접하고 발길을 되돌린다. 예술적, 기술적으로 독보적 춤 세계를 선보여온 그가 비보잉과 만났다. 비보이단 갬블러크루의 〈신포니아〉를 안무했다. 서울 서초구 연습실 ‘아틀리에’에서 만난 김설진은 “안무 제안을 받았을 때 완전 재밌겠다고 생각했다”며 활짝 웃었다.





댄서들의 풍경화 <신포니아>

<신포니아>의 씨앗이 뿌려진 건 2014년 11월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이던 갬블러크루와 서울문화재단이 김설진에게 안무를 의뢰하면서다. 작업은 지난해 9월까지 이어졌다.

“비보이에게 현대무용을 시키거나 현대무용에 비보잉을 재료로 쓰는 식은 절대 안 될 것 같았어요. 비보잉 자체가 춤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비보잉만으로 어떻게 긴 시간 동안 음악을 표현할까에 초점을 맞췄어요. 아마 갬블러크루 친구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비보잉은 5~10분 정도 공연하거든요. 이 작품은 퇴장 없이 30분간 무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에게 장거리 마라톤을 시킨 거나 마찬가지죠.”

<신포니아>는 지난해 가을 하이서울페스티벌과 안산 ‘ASAC몸짓페스티벌’에서 첫선을 보였다. 비발디 <사계>를 편집한 음악을 사용한다. 김설진은 “계절을 몸으로 담았다”며 “댄서들 자체가 풍경이 된, 약간 풍경화 같은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비보이들이) 하고 나서 토하더라고요. 첫 공연하는 걸 보는데 눈물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댄서란 직업이 쉽지 않아요. 남들은 재밌어서 한다 생각하지만,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하는 거예요. 그 얘기도 작품에 담고 싶어서 체력적으로도 힘들게 켜요. 그걸 다 아니까 공연 보는데 ‘짹’ 하더라고요.”

무대에 오른 <신포니아>는 대체로 만족스러웠지만 ‘두 장면 정도와 의상, 조명은 조금 보완했으면’ 하고 느꼈다. 요즘 그는 공연 전 ‘이 부분은 별로다’ 싶어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다. 최대한 다듬는 선에서 그친다. “계속 바꾸다 보면 자기 발전이 될 것 같아서, 채찍도 맞고 깨져야지 순간을 모면하려고 고치면 계속 그렇게밖에 못 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가 스스로 정한 모토는 ‘잘되면 무용수 탕, 안 되면 안무가 탕’이다.

할수록 새로운, 모두 다 다른 춤

김설진과 비보잉의 인연은 1990년 초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 소년이던 그가 TV에서 현진영과 와와의 ‘슬픈 마네킹’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건 유명한 얘기다. 그는 현진영보다 뒤에서 춤추는 댄서들에게 매료됐다. 바로 스트리트 댄스에 푹 빠졌다. 자연스럽게 비보잉도 접했다. 그는 “당시 이태원 문라이트 나이트클럽 뒤에 있던 옷가게에서 록 스테디 크루 같은 외국 유명 댄서의 비디오를 고가에 팔았다”며 “일본 댄서들이 문라이트에 오면서 하나씩 가져온 건데, 중학생 때 제주도에서 그 비디오를 공수해서 봤다”고 했다.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추면 세계적이 될 줄 알았다. 이제 열두 비슷하게 추는구나 싶을 때쯤 깨달았다. 이 비디오들이 10년 전 자료라는 사실을. 고등학교 2학년이 된 그는 아예 춤을 추기 위해 홀로 서울에 왔다. 친척집에 얹혀살았다. 방송댄스 팀인 ‘더 댄스’ ‘프렌즈’에 들어갔다. 재즈댄스, 탭댄스, 힙합에 ‘귀여운 춤’까지 음악에 맞춰 취야 했다.

“방송댄스할 때 비보이들이 잠깐 나와서 기술만 보이 고 들어가곤 했어요. 안타까웠어요. 20초 나오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했죠. 비보이도 댄서인데, 비보잉만으로도 춤을 출 수 있을 텐데 싶었어요. 장르별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스트리트 댄스와 그의 인연은 여기에서 멈춘다. 20대 초반 그는 우연찮게 영화 <백야>를 봤다. 스크린에서 러시아 무용수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울면서 춤추고 있었다. 멋있었다. 사람들에게 무슨 춤인지 물었다. 현대무용이라고 들었다. 김설진은 “사실 영화 속 춤은 모던발레였다”며 “그때 발레라고 말해줬으면 발레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서울예대 무용과에 입학했다.

“당시 내 체형이 스트리트 댄서처럼 돼 있었나 봐요. 목이 두꺼워지고 상체가 발달한 거죠. 선생님도 1년 동안 무용만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어요. 스트리트 댄스는 나중에 해도 전과 똑같이 될 줄 알았어요. 나중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시, 산문, 소설이 다르듯 현대무용과 스트리트 댄스도 상이해요. 게다가 춤은 더 힘들어요. 장르 간에 알파벳 자체가 서로 다르거든요. 힙합은 쿵쿵 내려가는 게 기본인데, 로킹(locking)에서는 쿵쿵 올라와요. 발레는 턴아웃인데 재즈는 턴인이 돼야 하고요. 로킹과 왁킹(waacking)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똑같이 팔 돌리는 춤 같지만, 움직임이 시작되는 지점들이 완전히 달라요.”





이후 그는 안성수 안무가를 만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 진학했다. 졸업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2008년 벨기에 피핑툼 무용단에 입단해 해외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먼 길을 돌아 다시 만난 비보잉의 세계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1990년대에 제가 비보잉을 할 때는 정말 주먹구구였어요. ‘더 세계, 더 차, 더 돌아’ 이랬죠. 무조건 ‘더 버터’ 하며 연습했어요. 이번에 작업해보니 예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체계가 잡혔더라고요. 역사 공부도 해요. 누가 이 스타를 만들었고 어떤 배경인지요. 진지하게 춤에 임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반성도 많이 했고요. 과연 현대무용 하는 친구들은 이 동작이 왜 나왔는지 알까. 스트리트 댄스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수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무용은 제가 보기에 ‘지잉’ 수평이에요. 100년 전에 현대무용이 시작된 어느 시점과 지금의 스트리트 댄스가 비슷한 거 같아요. 제도권에 들어와 체계가 잡히는 과도기죠.”

벨기에 ‘피핑툼’ 활동으로 배운 것

그는 요즘 다시 스트리트 댄스를 연습하고 있다. 이유는 “현대무용을 하니까, 알아야 하니까”다. 한동안 그는 ‘과연 현대무용이 뭘까’ 고민했다.

“현대무용이란 개념을 다시 정리하게 됐어요. 지금 한국 교육 체계 안에서 배우는 현대무용은 ‘현대무용이었던 춤’이죠. 과거에 그 시대에 추던 춤을 배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현대무용은 현시대에 추는 자유로운 춤이에요.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추는 춤을 다양하게 알아야 해요. 물론 과거도 알아야 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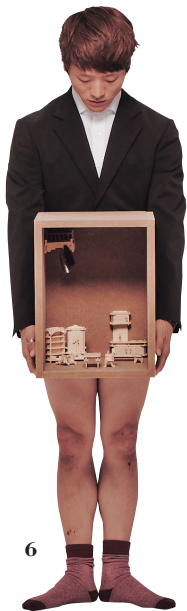
그는 춤 얘기라면 밤새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보였다. 그의 말은 겸손하면서도 솔직하고 예리하다. 대중 열버무리거나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자신을 깊이 파고든 끝에 몸짓으로 내보이기 때문인 듯했다. 생각이 곧 춤이 되기에, 늘변인 듯 달변이다. 국내 환경에 대한 비판도 그렇다. <신포니아>의 재공연 얘기가 나오자 그는 아쉬운

- 1, 2 작품 <안녕>(2014).
- 3 작품 <Sonata (in 서울역)>(2014).
- 4 지난해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선보인 <신포니아>(2015). 김설진이 안무를 맡고 갬블러크루가 공연했다.



5
김설진이 동료들과 만든
창작집단 'Mover'의
연습실에서.

6
작품 <룸>(2013).



6

표정을 비쳤다. “국내에서는 정말 힘들게 신작을 만들어 4번쯤 공연하면 또 다른 작품을 만든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극장 시스템의 문제예요. 극장마다 신작을 원하니깐요. 공연 하나 겨우겨우 할 정도로 지원해주면서 계속 신작을 원하니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외국 작품은 잘 사오고, 한국의 좋은 작품은 발굴하지 못하고.”

그가 속한 벨기에 ‘피핑툼’은 국내와 정반대로 소수의 작품을 오랫동안 공연한다. 피핑툼은 가브리엘라 카리조와 프랭크 샤르티에가 2000년 만든 단체다. 김설진은 춤과 연극이 적절하게 어우러진 피핑툼이 자신의 이상형과 가까워 벨기에행을 택했다. 피핑툼은 창단 후 내놓은 작품이 6편에 불과하다. 이외에 안무가들이 외부 단체에 초청돼 만든 작품이 3, 4편이다. 김설진은 이 중 두 작품에 조안무가로 참여했다. 그는 “피핑툼에서는 한 작품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린다”며 “그걸로 2년간 투어하며 수백 회 공연하니 작품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인이 세계적 현대무용단 피핑툼 단원이라 하면 일단 주목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래서인지 김설진은 일부터 자신을 ‘외국인 노동자’라고 표현한다. 벨기에서 보수

받고 일한 것뿐이라 목에 힘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국내에서 두각을 보인 것도 일부는 “사대주의 때문인 것 같다”고 꼬집는다.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절 이렇게 봤을까요. 외국에서 인정받고 오니…. 그전에 제가 뭘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화도 나요. 저는 자신을 보는 눈이나 나름대로 냉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특출하거나 뛰어나지 않았는데 첫째 운이 좋았고, 타이밍이 맞았어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그에게는 자신을 향한 완벽주의와 외부를 향한 겸손함이 공존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을 낮추던 그도 해외 평가 얘기가 나오자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온 기사 중 제일 황당했던 게, 2011년과 2012년 프랑스 파리 테아트르 드 라 빌에서 공연할 때였어요. <아 루에>와 <반덴브란덴가 32번지>를 했어요. 현지 언론에서 저를 ‘찰리 채플린과 마르셀 마르소를 뛰어넘었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났나 했죠. 너무 좋죠. 채플린과 마르소라니요. ‘나는 댄서인데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다니’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일본인으로 잘못 나가기도 했는데 이후로 이름이 제대로 나갔어요. 네, 저 자랑한 거예요. 다들 자기 자랑을 하길래. 근데 부끄럽네요…”

벨기에에 가기 전 그가 한국에서 올린 작품 중 다른 이들도 봤으면 하는 게 세 편이 있다. 하나는 아이들을 위해 만든 <카니발>이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전곡을 해석한 작품이다.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깊이에의 강요>다. 공연 횟수가 네 번밖에 안 된다. 극장 측이 저작권을 갖고 있어서다. 그는 “그전까지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작품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뭘까 생각하며 만들었다”며 “진지하게 고민한 작품인데 정말 좋았다”고 소개했다. 나머지 하나는 <강제휴식>이다. 2004년쯤 올린 듀엣 작품이다.

“한 명은 무대 뒤에 가만히 서 있고, 저는 무대 앞까지 걸어 나오면 끝나요. 발걸음, 눈 감는 것, 숨 쉬는 것, 침 삼키는 것까지 다 컨트롤한 작품이에요. 눈은 두 번 감고, 침은 한 번도 안 삼키고, 박자에 맞춰 입으로 들이쉬고 코로 내뿜고, 반걸음을 떼기 위해 얼마를 쉼터 일일이 정했어요. 숨 막히는 작품이에요. 무대 위에서 토하기도 해요. 호흡을 통제하니 자연스럽게 정확한 타이밍에 구토가 나오더라고요. 연습하

면서 보니 계속 똑같은 부분에서 구토가 나오기에 그렇다면 색깔을 맞춰야겠다 했어요. 3일 동안 하얀색 음식만 먹었어요. 끝내고 일주일을 앓아누웠죠.”

사람을 이해하는 춤, 춤만으로 먹고살 수 있는 삶

그 후로 지난 10년간 김설진의 춤은 얼마나 변했을까. 그는 가장 큰 변화로 몸 움직임에서 타인을 좀 더 이해하게 된 점을 꼽았다.

“전에는 춤 만들 때 사악했어요. (예시로 음료를 움켜쥐며) 소품을 이렇게 잡으라고 했는데, 무용수가 그대로 안 해서 7시간 동안 연습한 적도 있어요. 2년 지나고 알았어요. 그 친구 손가락이 저보다 짧은 걸.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 친구가 뭐가 다른지 몰랐던 거죠. 옛날에는 소품을 잡는 모습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걸 왜 잡는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관객은 알아채지도 못할 작은 동작까지 신경 쓰는 데는 그가 움직임에 유달리 예민한 것도 한몫한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움직임을 포착하고 분석한다. 어릴 때부터 남의 동작을 관찰하는 걸 좋아했다. 보통 ‘노인을 표현하라’ 하면 구부정한 허리와 절룩이는 다리를 떠올린다. 김설진은 고개를 젓는다. 그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목을 가누기 힘들어하고 아기들도 마찬가지”라며 “유치원생들은 전체 조희 시간에 ‘차렷’ 하라고 하면 고개를 살짝 흔들 흔들한다”고 몸짓으로 보여주었다. “도시, 날씨, 인종마다 걸음걸이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춤뿐 아니라 몸 움직임이 다 보여요. (춤) 움직임에서는 조금이라도 다른 게 너무 눈에 보여서 힘들었어요. 지금도 보이는데, 뇌주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움직임에서 심미적인 걸 보는 건 아니에요. 전 심미적이란 말 싫어해요. 굉장히 모호한 말이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걷게 됐을까 생각해요. 직업은 뭐고, 성격은 어떨까, 그걸 무대에 가져오면 어떨까 생각하는 거죠.”

그는 “미에 대한 사람들 생각이 자꾸 기형적으로 가고 있다”며 “자기가 느낄 때 아름다운 게 아름다움”이라고 정의했다. 이날 만난 장소는 그가 동료들과 만든 창작집단 ‘무버’의 연습실이였다. 무버는 “좋은 친구들과 재밌게 놀려고” 꾸린 단체다. 60분 분량의 솔로 작품으로 혼자 해외 투어를 다녀보니 “재미없고 미칠 것 같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계기가 됐다.

“우리는 무용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안무가, 무용수로

구분하지 않아서요. 다들 크리에이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건담 프라모델을 만들어도 아무 얘기 안 해요. 멤버들이 연습하다가 기타 치더니 건담을 만들고는 갑자기 쭉 가요. 옛날 같으면 ‘연습실에서 춤춰야지 무슨 짓이야’ 했을 거예요. 이제는 ‘저 메커니즘을 안무에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모든 놀이가 작업이 될 수 있거든요.”

‘무버’를 만들 때 그는 무용가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는 단체를 꿈꿨다. 그러려면 월급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다. 하지만 늘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다음 달에 어떡하지, 다다음 달에는. 이번 지원사업이 하나도 안 됐는데 어떡하지 해요.”

그가 한국과 벨기에의 차이점으로 꼽은 것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춤만 춰도 먹고살 수 있는” 현실이다. 벨기에에서는 정부 지원은 물론 일상처럼 무용을 보는 관객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피핑툼은 조직도 세분돼 있다. 기획·안무가 뿐 아니라 매니저, 드라마 투르그, 조명·음향 전문가, 트럭운전사까지 피핑툼 소속이다. 부러운 환경이다. 무버를 피핑툼처럼 만들고 싶지 않은지 궁금했다.

“아니요. 자존심 상하게. 무버처럼 만들어야지 왜 피핑툼처럼 만들어요.”

춤의 유한성을 벗어나기 위한 모색

올해 그는 한국에서 벌인 일이 많아 피핑툼의 제의를 거절했다. 피핑툼에서는 다시 ‘우리가 2020년에 이런 일을 하는데 네 일정은 어떠냐’고 물어왔다. 아직 답은 못 했다. 요즘 그의 머릿속은 다른 고민들로 가득하다. 그중 하나는 공연예술이 갖는 시공간의 제약과 유한성이다.

“과거 작품을 할 때 되게 힘들었고, 잘해내면 뭔가 될 줄 알았어요. 반응도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없어져 버렸잖아요. 제 기억에만 있고, 춤은 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야 하고, 할 때마다 사라져요.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고, 어떤 것으로도 남지 않아요. 그나마 영상이 있지만, 영상은 껍데기만 남는 거죠.”

이런 고민 때문일까. 그는 요즘 영상 작업에도 관심을 돌리고 있다. 앞으로 만들고 싶은 작품 중 하나가 ‘댄스 영화’다. 그는 “배우나 작가, 감독 어떤 형식으로든 가능하다”며 “춤을 소재로 한 기존 상업영화와 달리 춤만으로도 이야기가 흘러가는 작품을 그리고 있다”고 말했다.



글
송은아
세계일보 문화부
공연 담당 기자

사진
김형제

작품 사진 제공
김설진

남산예술센터 <귀.국.전> 연출가 김민정, 이경성, 구자혜

불행하고, 슬프고, 폭력적인 우리 사회를 이야기하다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주제기획전 <귀.국.전>이 오는 4월 7일
김민정 연출의 <불행>을 시작으로 관객을
찾는다. '헬조선'으로 표현되는
한국의 녹록지 않은 현실이, 개성 있는
연극언어를 선보여온 세 명의 연출가에
의해 각각 세 편의 작품으로 재구성된다.
'지금, 여기'에 대한 세밀화(혹은
지옥도)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남산예술센터라는 공간과 이들 작품은
어떻게 호흡할지 세 연출가에게
들어보았다.



연극은 현실의 반영이라는 상투적인 수식이 빠져리게 한 기되는 때다. 은유와 상징 또는 유희가 중심이 되는 연극만 선보이기에 ‘헬조선’으로 축약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버겁다. ‘무브먼트 당당’의 김민정(43), ‘크리에이티브 바키(VaQi)’의 이경성(33), ‘여기는 당연히, 극장’의 구자혜(34) 같은 연출자가 더 귀한 이유다. 이들처럼 현실을 그로테스크하게 전시(김민정)하고 세밀하게 기록하며(이경성), 재기발랄하게 풍자(구자혜)하는 연극인이 드물기 때문이다. 세 사람이 공연장 내에서 그린 세밀화는 이를 지켜본 뒤 공연장 문을 나서는 관객들에게 풍경화로 탈바꿈된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가 2016 시즌 주제기획전 <귀.국.전(歸國展)>의 연출자로 세 사람을 초대한 건 그래서 당연하다. 김 연출의 <불행>(4. 7~10)은 이 시대의 불행을 공연장 곳곳에 나열하며 대한민국의 불행한 현실을 모아

이크처럼 직조해낸다. 이 연출의 신작 <그녀를 말해요>(4. 14~17)는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엄마가 등장한다. 딸의 부재와 함께 사라진 하나의 세계에 대해 기록해나가며 앞뒤 맥락을 세심하게 파악해나간다. 구 연출의 <commercial, definitely-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4. 21~24)은 한국 사회를 폭로한다. 독일 샤우뷔네 극단의 토마스 오스터마이어 연출 등 현재 공연예술계에서 핫한 스타일을 끌고 들어와 풍자의 끝을 보여준다.

‘귀국전’이라는 타이틀은 앞선 세대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예술가들이 작품을 선보일 때 사용됐다. 이번 남산예술센터의 <귀.국.전>에 참가하는 세 연출은 해외에서 멋스럽게 금의환향한 이들이 아니다. 골방 또는 연습실 또는 소극장, 즉 허름하고 작은 곳에서 바라본 고국에 대한 이야기다. 남산예술센터는 “이들 눈에 비친 고국은 불행하고, 슬프고,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주제 기획 전 (歸國展)

4.07-4.10 **불행**
극: 연출 김민정
공동제작 무브먼트 당당

4.14-4.17 **그녀를 말해요**
작: 극: 연출 이경성
공동제작 크리에이티브 바키 VaQi

commercial, definitely -
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
4.21-4.24
작: 연출 구자혜
공동제작 여기는 당연히, 극장

NAMSAN ARTS CENTER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4.07-4.10 **불행**
극: 연출 김민정
공동제작 무브먼트 당당

NAMSAN ARTS CENTER

김민정 연출
<불행>
(4. 7~10)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4.14-4.17 **그녀를 말해요**
작: 극: 연출 이경성
공동제작 크리에이티브 바키 VaQi

NAMSAN ARTS CENTER

이경성 연출
<그녀를 말해요>
(4. 14~17)



폭력적이다. 하여, 이들의 작품을 보호할 타이틀로 한국 예술사의 어느 한때,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다는 '귀국전'이라는 말을 차용한다"고 전했다.

젊은 연출가의 언어로 그려질 '지금, 한국 사회'의 불행

세 연출은 지난 1월 제작발표회에서 박근형, 고선웅, 장우재 등 올해 남산예술센터 시즌을 장식하는 쟁쟁한 연출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도 당당하게 빛을 받았다. 공교롭게도 남산예술센터 이번 시즌 개막작으로 연극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를 올린 박 연출을 비롯해 고 연출(〈한국인의 초상〉), 장 연출(〈환도열차〉) 역시 지금 대한민국의 불행을 저마다의 방식과 통찰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세대와 묶여도 뒤지지 않는 존재감과 함께 이 연출, 구 연출 같은 신진들과 엮여도 모자라지 않는 신선함의

김 연출은 "동시대의 작업을 계속해나갈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귀국전〉에 대해 "다른 종류의 여러 연극 작업을 묶는 것인데 다들 곁이 달라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불행〉은 이미 지난해 '제22회 베세토 페스티벌'을 통해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됐다. 프로시니엄 무대와 이 무대보다 객석이 높은 원형 공연장 형식의 객석이 뒤섞인 이곳의 특성을 살렸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새로 정의해 호평받았다. 짐승의 가면들 쓴 이들이 무대와 객석 상관없이 곳곳에서 불행한 사건에 맞닥뜨린다. 관객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리 잡거나 곳곳을 돌아다녀야 한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불행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질감이 달라진다. 김 연출은 "이미 형식이 만들어져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공간을 채우는 내용의 밀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이 연출의 〈그녀를 말해요〉는 지난해 그의 신작 〈비포애프터〉의 연장선 격이다. 역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비포애프터〉는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뽑은 '올해의 연극 베스트3', 한국연극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한국연극〉의 '2015 공연 베스트7', 대한민국연극대상 신인연출상 등을 휩쓸었다. 〈비포애프터〉가 여러 인물의 기억을 통해 거시적으로 세월호 참사의 모순을 까발리는 묘를 발휘했다면, 〈그녀를 말해요〉는 좀 더 내밀한 시간을 끄집어낸다. 이 연출을 비롯해 배우들은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엄마'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인터뷰해왔다. 한 가정에서 약 18년간 자라며 겪었을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조심히 수집해왔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한 세계의 축을 담당한 이야기가 연극화되는 걸 알고 있다. 개인의 내밀한 방식인 기억이 예를 갖춰 사회적으로 승화될 순간을 앞두고 있다.

이 연출은 "〈비포애프터〉를 시작할 때 세월호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그런데 그 자체에 갇힌다는 생각이 들었다. 표현이 적확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의 고통을 마주하는 방식을 다룰 때 당사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는 이야기를 개진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이유다. "공동체의 상처에 대해 완전히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구 연출의 〈commercial, definitely〉는 지난해 그가 동인으로 활약 중인 '해화동1번지 6기'의 가을페스티벌 '상업극'에서 초연했다. 당시 '마카다미아, 표절, 메르스 그리고 맨

구자혜 연출
〈commercial, definitely-
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
(4. 21~24)



스플레인'이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담아 '검열, 사과'를 '표절, 메르스'에 대신했다. 대학로에서도 가장 작은 소극장으로 통하는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50석)에서 공연한 이 작품의 성격이 중극장 규모의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450석)에서 공연됐을 때 어느 정도 환기될지 기대를 모은다. 최신 공연계 흐름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상업성'이 짙은 작품을 표방하나, 그 이면을 탐색하게 한다.

공공극장 또는 국공립극장에서 연출하는 건 처음이라 구 연출은 "〈commercial, definitely〉는 표면, 즉 겉테기가 중요한 공연인데 홍보부터 예술적으로까지 상업적일 수 있는 의미가 담긴 남산예술센터에서 공연하게 돼 흥미롭다"고 말했다. 극은 초반에 영상 등을 통해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와 남산예술센터의 객석 수를 비롯해 제작비 등 각종 여건을 직접적으로 비교한다. 그녀는 "작년 공연은 상업적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면, 올해는 비로소 상업극이 됐다"며 "제작비가 몇 배 늘었다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면서 상업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한국연극사·현대사의 상징적 공간 '남산예술센터'의 의미

〈불행〉은 이미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를 작년부터 터전으로 삼았으나 〈그녀를 말해요〉와 〈commercial, definitely〉는 소극장 작품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무대로 확대한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연출과 구 연출의 작품은 작년 발언의 주제를 변주한 재창작 작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commercial, definitely〉는 '메타연극(meta theatre)', 즉 연극에 대한 연극이다. 구 연출 역시 그래서 "자기 반영성이 강하다"고 했다. "연극판에는 소위 말하는 연극, 극단에 대한 계급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거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비루한 혜화동 1번지는 극장 자체가 무대였다"고 말했다.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하는 이번 버전에서 무대는 개념이다. "국공립단체, 공공단체를 뭉뚱그려서 나타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극인들이 봤을 때 이미지를 다루고 싶다. 일반적인 국공립단체와 다른, 두산아트센터와는 다른, LG아트센터와는 다른, 대학로 소극장과 다른 남산예술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구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시즌 라인업 발표 때 우연 극장장은 구 연출이 남산예술센터에 대해 마음껏 비판해줄기를 바랐다. 구 연출은 "비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수단이 돼서 이곳에서 지원금을 받고 연극을 만들고 평가를 받는 것이 관객을 만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엄청 있어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연극"이라고 소개하며 웃었다. "소위 '있어 보인다'는 포장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는 관객들이 시선이 내리쬐는 구조라 빈 그릇 등 상상을 담지 않은 결핍의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이 연출이 이곳에서 선보인 〈남산 도큐멘타, 연극의 연습-극장 편〉 역시 메타 연극에 가까웠다. 1962년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가 개관한 이래 이 극장에서 만들어진 연극과 사건들, 사람들의 자취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 보이며 연극에 대한 연극을 제대로 보여줬다. 극작가 유치진이 주축이 돼 세운 드라마센터는 〈햄릿〉을 시작으로 〈밤으로의 긴 여로〉 〈포기와 베스〉 등을 공연했으나 1963년 재정난으로 1년여 만에 막을 내렸다. 이후 결혼식장, 미8군 공연단의 제즈 공연장, 영화 상영관 등으로 사용되며 극장 본연의 목표를 잃어버린 듯했다. 남산은 현재 데이트 장소나 산책 코스로 주로 연상되나 1960~70년대에는 어둠과 침묵의 이미지가 강했다. 드라마센터에서 불과 몇 십 미터 떨어진 지금의 서울유스호스텔 건물은 당시 안기부의 남산 본관,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유치장, 대한적십자사 건물은 안기부의 행정과 감청이 이뤄진 곳이다. TBS 교통방송청사는 감찰, 수사, 행정이 종합적으로 행해진 건물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엔 유덕형의 〈초분〉, 오태석의 〈태〉, 안민수의 〈하멜태자〉, 이상우의 민족 마당극 〈장산곶매〉 등 한국 현대 연극사에 방점을 찍은 작품들을 공연했다. 이 연출은 "〈남산 도큐멘타〉가 주목한 지점은 극장 안에서 급진적인 연극이 공연되고 있는데 옆 건물에서는 상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부분이다. 그런 극적인 부조리로 극장 안의 연극과 세상의 실제 일들이 충돌하고 만나는 지점이 바로 드라마센터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구조라 생각했다"고 알렸다. 그러니 당시에는 "굳이 무엇인가 다른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됐다"고 했다. 이번에는 "작품의 주제적인 맥락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이 무엇이고 극장 안의 구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이라며 "무엇보다 그간 생각해온 막연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퍼뜨릴 수 있는 통로가 생겨 반갑다"고 말했다.

이미 남산예술센터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한 김 연출은 "예전에 지어진 공간에서 동시대 지금의 연극을 해야 하는



데, 극장 공연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 중이다. 그런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각자의 지옥을 사는 지금, 연극이란

한편에서는 공연 장르를 담는 극장이 모바일, TV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가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수많은 매체가 있음에도 모든 목소리를 내는 대신, 자극적인 것에 편향된 목소리가 쏟아지는 이때 연극은 하나의 ‘대안 미디어’ 역을 해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연출은 “우리 작품을 보는 관객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우리 내부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것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 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 명이 보는 영화와는 다른 위치에서 다른 의미들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구 연출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는 당연히, 극장’의 배우가 그녀에게 “네가 연극이라도 하고 있으니 연출이라도 맡고 있지. 다른 곳에 있었으면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겠냐”라는 말에 정말 제대로 공감했다며 연극을 하는 이유를 자신의 내부에서 찾았다. “우리 공연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다. 짓궂고 까불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한 땀 한 땀 개념을 세우는 작업을 한다. 그게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라는 것이다. “연극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다. 그것이 연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연극을 해서 관심이 생기고 더 고민한 것을 알리고, 그렇게 즐기는 것뿐이지 경쟁은 없다”고 했다. 다만 “면 대면으로 이야기해도 부담스러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데 공연을 직접 와서 본다는 것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연출이 연극에 대해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좀 더 좋은 삶을 최대한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매개체”라는 점이다. 그러나 결국은 “삶이 연극보다는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좋은 연극을 만들기 위해서 연극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고민해야 한다”는 마음이다. “내가 정말 그런가 계속 생각해보고 있다. 오히려 이런 당위적인 명제로 나를 속이지 않는지도 생각해보고, 연극이 다른 매체를 쫓아가려고 할 때 오히려 연극이 가지고 있는 걸 못 할 수 있다. 연극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면, 내 주변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이 순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세 연출처럼 삶과 연극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해나가는 이들이 있어도 삶은 여전히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 연출은 “하나의 메시지, 명제를 가지고 조금 더 발버둥 쳤지만 ‘불행’이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 사회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개인의 미학적 성취를 내세우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구 연출은 그것이 안 되는 사회라 “짜증이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말했다.

이 연출은 현재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지옥이 아닌 “각자만의 지옥이 만들어져 그것이 모인 듯하다”고 봤다. 그래서 “연극이 이런 판 세상들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예전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따로 또 같이 하는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극장 안에서 연극을 하는 동시에 극장 밖에서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여겼다. 그런데 “두 과정을 동시에 한다는 것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 “극장 안과 극장 밖에서 내세우는 지향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가 되는데 그 경계에서 계속 고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연출가들에게 이번 ‘귀국전’은 또 다른 세계로 떠나는 ‘출국 전(前)’ 발판이 되고 있다.

이경성 연출이 지난해 선보인 신작 〈비포애프터〉의 한 장면.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4월에 남산 무대에 오르는 〈그녀를 말해요〉는 이 작품의 연장선상에 있다.



글 이재훈
뉴시스 문화부
공연 담당 기자

사진
서울문화재단, 김창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정치·사회·예술적 의미

소녀상의 예술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와 젠더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담론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적 관심사로 번진 소녀상 현상에 대한 미술비평과 문화연구, 미학, 여성학 등의 관점이 함께한다. 따라서 ‘소녀상의 예술학’은 소녀상 현상에 대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과 더불어 그것의 예술적 의미를 돌아보는 자리다.¹

¹ ‘소녀상의 예술학’ 자료집에서 발췌.
본 토론회는 김준기 미술평론가가 기획하고,
자율공공실천회의 준비위원회가 주최했다.

사회 안태호 부천문화재단 생활문화사업팀장
발제 이태호 (미술비평, 경희대 미술대학 교수),
전쟁기념비와 함께 살펴본 ‘평화의 소녀상’
김준기 (미술비평, 지리산프로젝트 예술감독),
사회예술로서의 소녀상 현상
이택광 (문화연구,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
소녀상은 무엇인가
토론 이나바 마이 광운대 교수
장수희 연구모임 아프폼 연구원
최범 디자인평론가
홍승희 소셜아티스트
일시 2016. 3. 19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 본 토론회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정책위원회의 <현장+담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담론>은 문화예술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정책담론으로 연결되는 것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토론의 내용은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주최 측의 독립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발제1 전쟁기념비와 함께 살펴본 '평화의 소녀상'

발제자 이태호 미술비평, 경희대 미술대학 교수

우리 주변의 수많은 기념비와 '평화의 소녀상'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조각 작품 중에서 '평화의 소녀상'만큼 주목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소녀상이 화두가 되면서 식민주의와 군사문화, 자국중심주의, 지역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 여러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쟁기념비를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해보면 첫째는 '승리의 환호와 영웅의 활약 등 긍정적 측면의 시각'입니다. 이것을 작품화한 것은 대부분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의 전쟁기념비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인물상들이 거의 앞으로 나가고 있고, 환호하고 있고, 격렬한 축제의 분위기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을 재앙으로 보면서 만들어진 전쟁기념비'인데요. 중국이 작년 12월 난징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를 기념관으로 개관하면서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 북한 피해자 박영심 할머니가 임신한 채 찍힌 사진을 모티프로 했습니다. 난징대학살기념관의 조각품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주의적으로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외국 작품들은 전쟁을 애도하고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세 번째는 기념비 자체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전쟁에 대한 긍정이나 부정의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전쟁이 무엇인지 관객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과 명상을 이끌어내는 의도로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최초의 작품이 마야 린(Maya Lin, 1959~)의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비(1980)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두 번째 성격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디에 세워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서는 표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가 심하게 흐르거나 속살이 드러나는 등의 표현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동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들의 고통에 비해 너무 암전하고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일본대사관이 움직이지 않는 한 '평화의 소녀상'은 그 어떤 협약이나 권력에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품은 '장소 특정적(site specific)'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위치를 떠나면 허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소녀상'을 설치할 기회가 있다면 지금의 소녀상을 그대로 재제작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졌으면 합니다. 극한의 비인간적 '폭력'을 보다 더 감동적으로 폭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으면 합니다.



발제2 사회예술로서의 소녀상 현상

발제자 김준기 미술비평, 지리산프로젝트 예술감독

저는 소녀상 현상을 하나의 사회예술로 재독해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좁은 의미의 사회적 예술을 넓은 의미의 공동체, 행동주의 예술로 본다면, 넓은 의미에서 비판예술과 공공예술까지 사회적 예술로 볼 수 있다는 프레임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소녀는 상투적인 어법이지만, 소녀상이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는 역사성과 장소성으로부터 나옵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앉아 있다는 점, 그것이 위안부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 때문에 소녀상은 그냥 소녀가 아니라 상징투쟁의 장으로 증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안부 관련 합의 때문입니다. 상징투쟁의 장이 한국 대 일본의 국가주의 프레임에서 국가와 시민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 대목에서 민족 정동(情動)으로부터 사회현상으로 이 작품에 대한 독해의 방향을 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예술의 프레임으로 보았을 때, 첫째, 소녀상은 크리티컬 아트입니다. 비판적 리얼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 예술 작품이지요. 국가 주도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주문을 예술가가 창조적으로 잘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 예술입니다. 예술가는 시민사회단체와 협업

했습니다. 작가 부부도 협업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 행동주의 예술의 요소입니다. 위안부 여성의 상처를 다루는 과거사 문제, 의제를 쟁점화하는 데 성공한 예술입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많은 사람과 나누고, 클라우드 펀딩으로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것은 소셜아트로서의 행동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평화의 소녀상’ 철거 논란에 온 국민의 마음이 소녀상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면, 이 작품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이 소녀상은 공동체의 연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직접적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시민사회와 개인들에게 다가서는 사회적 소통으로서의 예술공론장인 것입니다.



발제3 소녀상은 무엇인가

발제자 이택광 문화연구, 경희대 영미문화전공 교수

소녀상은 고정된 조형성으로서의 미학, 비평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데는 소녀상으로 표상되어온 그 무엇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민족주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소녀상이 무엇이라는 질문은 소녀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증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소녀상은 민족과 국가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가는 합의해주었는데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인지 그 질문을 소녀상이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녀상의 미학적 효과로 등장한 것이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상황과 소녀상이라는 오브제가 만났기 때문이고 위안부 문제라는 정치적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술이 파급력을 갖는 것은 정치와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작가가 맨 처음 빚어서 놓았던 그 소녀상이 아닙니다. 기존의 자리를 이동(relocation)해 있는 조

형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시킨 것이 민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은 민족주의와 상당히 다릅니다. 소녀상은 민족이라는 실재의 자리를 건드린 것입니다. 민족은 재현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민족을 재현하기 위한 민족주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형성되면서 그 국가로 완벽하게 포섭되지 않은 정치가 민족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은 국가의 대체보충(supplement)인 것입니다. 민족은 국가로 재현되는 순간, 우리가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입니다. 식민지를 거친 모든 나라의 공통점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일종의 숭고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남아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못한 것이죠. 이 지점에 소녀상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표상, 의미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녀상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위안부 협상에 있습니다. 쟁점을 쥐어버리는 협상을 해주었지요. 박유하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 논란의 핵심은 ‘국가적 범죄로 봐야 하는가, 개인의 범죄로 봐야 하는가’입니다. 저는 위안부 옆에 반드시 여공을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에 대한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쟁점인데 국가가 덮어버리고 온 것입니다. 소녀상은 말 그대로 사실주의적 접근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적 미학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술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라든지 미학적 정형성은 근대사회로 올수록 더 유동적으로 바뀌고, 이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소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태호 작년 12월 28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운데 소녀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소녀상의 예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겠지만,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논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나바 마이 국가 범죄인지 개인의 범죄인지에 대해 연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무엇보다 일본의 국가 범죄임을 한국에서 제대로 얘기해야 합니다. 개인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택광 이 문제를 계속 민족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국

가 범죄인지 개인 범죄인지의 문제로 간다고 봅니다. 두 개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자본주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식민지 지배 구조 내에서 여성의 차별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국가와 개인이 결합되어 있는 체제적인 문제라는 것이 밝혀진다고 봅니다.

이나바 마이 이태호 선생님께서 다른 곳에 있는 소녀상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는데요, 대사관이라는 권위적인 건물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소녀의 모습은 큰 호소력을 갖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하고 있는, 나쁜 뜻이 아닌 대량 생산은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태호 기념비에서 중요한 것은 주문자입니다. 작가들은 주문자의 요구에 저항하기 힘듭니다. 작가들도 바꿀 것은 바뀌가면서 해야 합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하지 못하는 원인은 따지고 보면 주문자의 문제라든지 시민의 요구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상승시키는 것도 미술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수희 중국 작품들은 감정을 격하게 드러낸 것이고, 한국의 소녀상은 감정을 좀 더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국 작품들에는 국가의 개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념관 내부에서 민족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재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작품과 비교하신 것이 저에게는 '너무 재미없는 조각상 아닌가'로 들렸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좀 더 재미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호 표현이 안 되었다는 것은 장소를 얘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작가의 개인전에서 서 있는 소녀상 작품을 보고 북한의 어린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관 앞은 굉장히 제약된 자리입니다. 거기에도 주문자의 입김이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 그 장소를 선택해서 한 것만으로도 중요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작품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부분이 다른 공간에서는 더욱 사람들을 울릴 수 있는 표현 방식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장수희 이택광 선생님은 일본군 위안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있던 사람들을 소녀, 성인으로 분류하셨는데요, 이런 분류가 쟁점이 되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의 기억을 역사에 어떻게 기록하고 잘 기억할 것인가가 쟁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택광 지금 <제국의 위안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쟁점이



대사관 앞에 가만히 앉아 있는 소녀의 모습은 큰 호소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나바 마이 광운대 교수

라는 것입니다. 국가 범죄냐 개인 범죄냐, 자발적으로 갔느냐, 돈을 받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이 문제가 되고 합의 사항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문제 삼으려고 한다면 제국주의와 식민지, 자본주의의 형성과 계급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잣집 딸들이 위안부로 간 경우는 없어요. 거기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민족으로 계속 회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장수희 김준기 선생님의 말씀에서는 소녀상이 당사자들을 고립시키지 않고 세대를 뛰어넘는 매체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피해 당사자를 집어넣은 사회적 소통으로서의 예술공론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준기 '소녀상의 예술학'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예술 작품으로 읽어보자는 차원에서였습니다. 소녀상은 할머니들의 이해와 요구, 느낌을 충실히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은 생산자 주체, 할머니 당사자들과 관계없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시공을 초월해서 새로운 컨텍스트 안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 예술 작품을 읽어보는 이유입니다. 예술 작품이 보편적 언어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소녀상이라고 하는 매우 장소 특정적이고 의제 특징적인 이 작품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보편성을 획득하고 다양한 층위에서 새로운 문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범 저는 소녀상을 재현의 정치학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작품이 재현하는 사건의 내용이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가 하는 부분에서 읽어내고 싶습니다. 소녀상 재현의 정치학 효과는 위안부라는 피해자를 재현하고 있다는 것



소녀상은 많은 질문과 확장이 가능하게 한 상징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승희 소설아티스트

입니다. 소녀상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는 소녀상이 순수한 피해자라는 것을 재현하고 있지요. 피해자가 있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가해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녀상은 순수한 피해자와 악마 같은 가해자 두 가지 표상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표상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이분법적 세계관이거든요. 식민지를 겪은 우리가 피해자이고 일본이 가해자임은 분명하지요. 소녀상이 재현하는 방식은 아주 극단적인 이분법의 세계입니다. 이는 역사를 이해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분법적인 세계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공산주의와 일본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이고 극복되어야 한다면, 우리가 재현하고 있는 예술 작품들도 이를 넘어서는 태도와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소녀상이 그러기는커녕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가치관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봅니다. 소녀상은 사회예술을 넘어서서 성격상 국가주의 예술이라고 봅니다. 이분법적인 세계는 필연적으로 폭력적인 세계입니다. 소녀상이 맑고 슬픈 모습이지만 사실 재현의 정치학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문주의 예술이라는 것은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 모순된 것들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해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소녀상에서 한때 진보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 민족미술의 지독한 역설을 봅니다.

홍승희 저는 예술인들이 처음 소녀상 앞에서 공연을 하고 대학생들이 농성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효녀연합’이라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상징이 예술 작품으로 나타

나면서 의도치 않게 오독이 되는 맥락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버이연합’은 소녀상을 지켜줘야 한다면 그 앞에서 용서를 강요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소녀상을 대상화된 존재로 보고, 평화라는 가치가 아름답고 숭고한 것이지만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할 여유가 있느냐면서, 소녀상과 여성적인 가치를 뭉뚱그려서 부차적인 가치로 해석하시더라고요. 예술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배제되었던 본질적 가치, 역사에서 누락된 것들을 인간의 언어로 드러나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어버이연합’과 대치할 때 사회에서는 좌파 대 우파, 이분법적으로 분류했잖아요. 예술가는 진실을 계속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소녀상은 인간이라는 가치, 그 상징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느꼈어요. 많은 질문과 확장이 가능하게 한 상징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태호 ‘평화의 소녀상’을 만든 작가님에게 할머니들의 반응, 토론을 들으면서 생각하신 부분, 작가로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운성 저는 사회적 예술에 좀 더 다가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찾아가서 만난 거예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려는 욕구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지만 참고 정제시키면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활동가들과의 끊임없는 토론 속에서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기에 어떻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된 것입니다. 최범 선 생님은 지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일본을 옹정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우리의 아픔만 있어요. 소녀상 밑에 깔린 할머니의 그림자를 같이 봐야, 할머니가 소녀고 소녀가 할머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계속 지독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을 극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한 작품입니다.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은 할머니들이 20년 동안 수요 집회에서 앉아서 했기 때문이에요. 그 소녀가 분노해서도 두려워서도 안 되는데, 시간과 날씨에 따라 마음에 따라 표정이 달리 보이게끔 굉장히 고민했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온 겁니다.

이택광 저는 역설적으로 순수한 피해자는 순수한 적이 아니라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를 만든다고 봅니다. 소녀상을 공격

하는 많은 분은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수성은 적을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권력이 부여하는 자격의 개념입니다. ‘누가 권력일까’라는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민족 담론으로 회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안부 문제는 계속 순수한 피해자, 순수하지 않은 피해자의 문제로 갈리게 되고 가르스 당사자들은 숨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는 논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쟁점을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최범 재현 이전에 어떤 종류의 모순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민족 모순으로 봤다면 최근의 논의들은 중첩적인 모순, 젠더 모순도 있고 계급 모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 의한 조선의 지배라는 관점에서만 봤기 때문에,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의 지배는 논외가 되는 것이고, 미국에 의한 한국 지배는 시야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민족 모순으로는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니 다른 모순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모순에 대한 인식이 재현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저는 재현하기 위해서는 재현의 불가능성에 대해 처절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재현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쉬운 재현이 문제인 거죠. 사실 위안부의 고통이라는 것은 재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의 고통도 재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이지요. 재현할 수 없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호 사실 재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재현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감동의 힘이 가장 큰 것입니다. 어쨌거나 소녀상이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녀상이 상상력 자체를 어느 정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모든 작품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하지요. 청소년들은 그 작품의 이미지에 간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인문학적인 전망을 가진 채 다양해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홍승희 소녀상을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기존의 예술은 만지지 말아야 하고, 무언가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소녀상을 안아주고, 목도리도 둘러주는 것이 새로운 예술이고, 예술이 어떻게 사람들과 공존하고 관계 맺는지에 대한 변화가 분명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소녀상은 사회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작품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작품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호흡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라



당사자의 기억을 역사에 어떻게 기록하고 기억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어야 합니다.

장수희 연구모임 아프콤 연구원



민족 모순으로는 위안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니, 다른 모순들과 함께 봐야 합니다.

최범 디자인평론가

고 생각하거든요. 시민사회의 장에 예술이 존재하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운성 소녀상 앞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하는 얘기와 겹치더라고요. 옷을 입혀주고 모자를 씌워주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녀상 작가의 역할은 사실 거기까지이지요. 그 역할은 활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가져가는데 그 얘기가 백 가지 천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뿌듯함은 있습니다.

이태호 ‘소녀상의 예술학’을 주제로, 소녀상의 예술적 의미로 시작해서 한국 미술의 스펙트럼 확장, 사회적 예술에 대한 논의, 민족인지 젠더인지의 쟁점, 재현의 정치학 등 다양한 논점이 풍부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
전민정

사진
최영진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

아이들은 학교보다 놀이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놀이터를 만드는 일은 대개 조정전문가 혹은 건축가의 몫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고 관계를 경험할 아이들의 입장은 정작 빠져 있기 일쑤다. ‘놀이터 디자이너’는 아이들에게서 놀이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다.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와 이를 만드는 ‘어른’의 간극을 좁히는 게 놀이터 디자이너의 일이다.

아이들과 함께 만든
적정놀이터
(안동, 편해문 제공).

놀이터는 커다란 모순에서 시작한다. 아이는 놀이터를 가장 꾸준히 쓸 주인이지만 놀이터를 만들 때는 정작 아무 힘이 없다. 그렇다면 놀이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센 주체는 누구일까? 놀이터가 만들어지면 한 번이나 올까 말까 하는 어른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놀이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자칫 시혜나 보여주기 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틈을 좁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놀이터 디자이너’다. 놀이터 논의가 시작될 때, 생각지 못했던 지점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만들어진 놀이터가 결과적으로 아이와 어른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놀이터는 아이들이 삶의 국면을 경험하는 곳

놀이터를 만드는 전문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놀이터에서 놀 아이와 부모 또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놀이터는 만들 때도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놀이터의 최종 마무리 또한 아이들이 할 것이다. 놀이터가 아이들이 변화시킬 가능성을 품고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놀이터는 그 자체로 완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놀이터는 아이들이 마침내 완성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놀이터 디자이너는 이 길을 함께 걷는 안내자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어렵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는 정확한 일은 ‘어린이 욕구에 적합한 놀이터 조성 중재자’다. 놀이터 설계나 시공, 놀이기구 제작사 쪽에는 아이의 놀이 욕구에 대해 이해시키고, 사는 곳 가까이 지어질 놀이터에 관한 공부나 처음인 부모와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놀이터 디자이너는 이 둘을 이어주고 나뉘는 비전을 제시한다.

나는 아이들이 학교보다 놀이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믿는다. 놀이터는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자신을 돌보고 함께 노는 상대방을 돌보는 내적인 힘을 기르기도 한다. 다툼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그 해결은 온전히 아이들 몫이다. 회복 가능한 부상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겐 다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놀다가 다치는 것은 교육의 분명한 한 과정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는 것이다. 놀이터까지 따라와 간섭과 제지와 금지를 일삼는 어른을 맞닥뜨릴 때 그들의 불안과 걱정과 그들을 본다. 그렇다. 놀이의 반대는 일이 아니라 불안이다. 불안하므로 아이들 노는 것조차 허용하지 못하고 자신 또한 일하는 삶에 비끄러맨다. 나는 놀이터에서 판타지보다 실제 삶의 다



양한 국면을 아이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놀이터를 주문한 집단이나 놀이터에 아이들과 함께 올 어른의 시각에 맞추려는 것에 극렬히 저항해야 한다. 이것이 ‘놀이터 디자이너’의 첫 번째 덕목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놀이란 무엇일까’ 고민해야

놀이터는 조경가와 건축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놀이터를 바꾸는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흔히 놀이터를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 놀이기구 회사, 관련 공무원이 모이면 딱딱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랬다. 앞서 만든 놀이터가 그랬고 그 결과는 지루한 놀이터의 난립이다.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어쨌든 현재의 놀이터가 이렇게 된 일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놀이터는 놀이터가 들어설 인근에 사는 어린이 그리고 그들의 부모, 교육운동가, 놀이터 활동가, 예술가, 시민단체, 지자체, 정치가, 기업이 수평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 놀이터가 어떠해야 할지 상상할 수 있다.

놀이터를 만들어야 하고 나아가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아이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아이한테 놀이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게 다음 순서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아이들이 놀 수 없는지 직시하는 것이

다. 놀이터가 없어서가 아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 갈 수가 없다. 우리는 아이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놀이터가 만만해 보이고 ‘아이들한테 이런 거 만들어줬어’ 하며 자기만족으로 삼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삶의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냉혹한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만약 아이들이 놀이터에 갈 수 있다면 그 놀이터가 비록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아이들은 그곳을 놀이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아이들은 시간, 공간, 친구가 있으면 놀이에 관한 창조주이기 때문이다.

내가 문학에서 시작해 놀이운동가를 지나 현재 놀이터 디자이너에 이른 여정도 이와 같다. 아이에서 놀이를 지나 놀이터에 이르기를 바란다. 놀이터에 바로 뛰어드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아이들은 어떤 놀이터를 좋아할까’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놀이란 무엇일까’로 나아가야 하고 마침내 ‘아이들은 누구일까’를 성찰해야 한다. ‘놀이 불가능’ 현실에서 ‘놀이 가능’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 ‘놀이터 디자이너’다. 올 4월 30일, 놀이터가 들어설 곳 가까이 사는 아이들과 주민 그리고 공원녹지과, 시민단체와 2년의 논의 과정을 통해 완성한 첫 번째 ‘기적의 놀이터’가 순천에 문을 연다. 조합놀이기구 없는 놀이터다. 오며 가며 들려주시기 바란다. ³³

올해 4월 말에 문을 여는 첫 번째 ‘기적의 놀이터’ 조감도 (순천시 연향동 호반 3공원, 순천시 제공).

글
편해문
안동에 귀촌한 지 13년이 되었고 동네 아이들과 ‘적정놀이터’를 만들어 본다. 어린이 욕구에 적합한 놀이터 만들기 중재자, 놀이터 디자이너, 놀이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고,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조성 총괄 MP와 서울시 창의 어린이 놀이터 디자인 및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서울 잘나

청계천에 찾아온 봄

청계9가 두물다리 아래





매거진 <악스트(Axt)>의 '듀나 인터뷰'를 둘러싼 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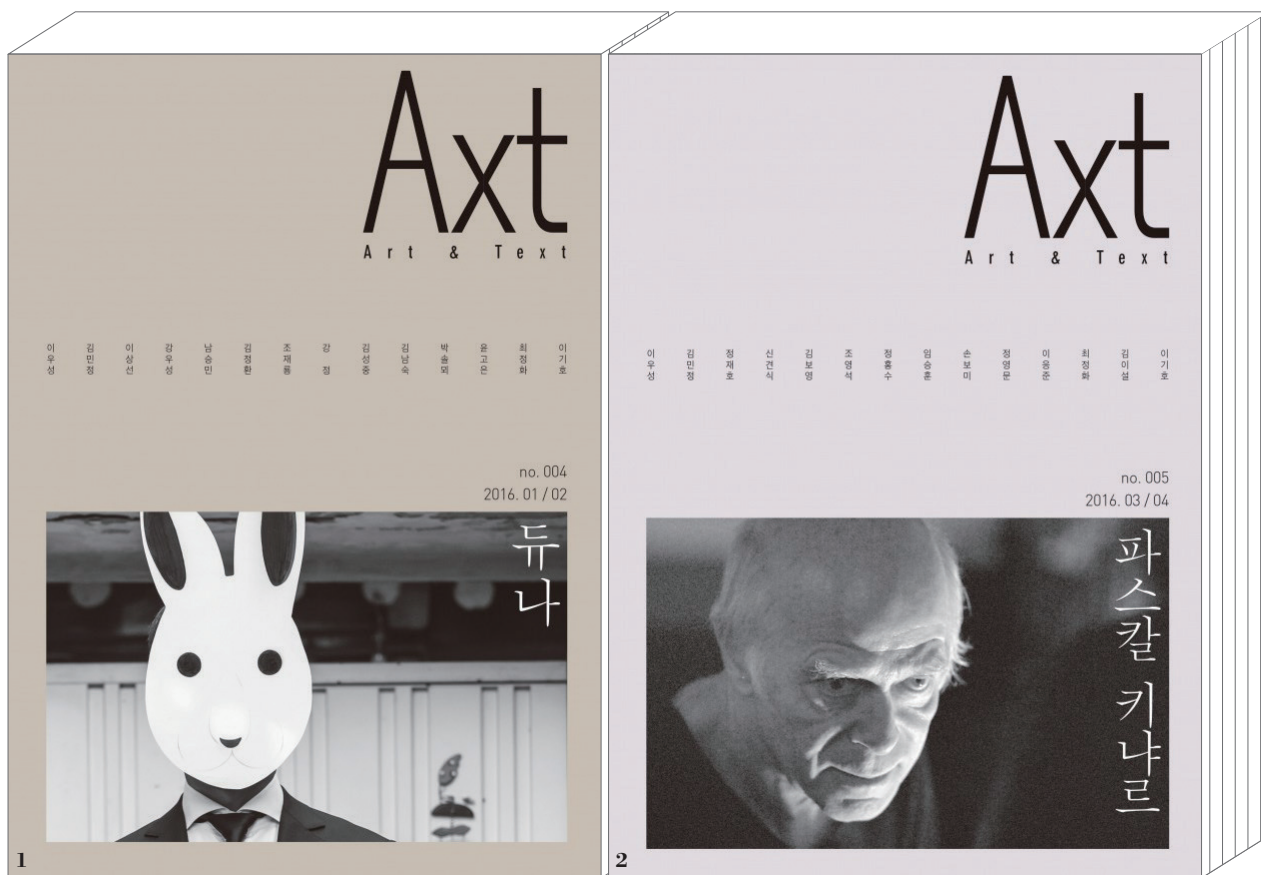
어설픈 시작, 난폭한 끝맺음

문학 매거진 <악스트(Axt)> 1·2월호에 실린 SF소설가 듀나의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이 두 달여간 SNS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뜨거웠다.

작품을 언급하기보다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신상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룬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악스트> 측의 공식 사과로 마무리되기까지 꽤 긴 시간 지속된 이 논란은 문학계에 다양한 화두를 던졌다.

SF소설 독자와 순문학 잡지 사이의 갈등을 빚었던 소위 '〈악스트(Axt)〉의 듀나 인터뷰 사태'가 두 달여 만에 일단락됐다. <악스트> 편집부가 3·4월호(통권 5호)에서 공식 사과하고 문학 전문 인터넷 매체인 <뉴스페이퍼>의 3월 17일자 인터뷰 기사에서 다시 한번 사과와 함께 반론 없이 비판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악스트>를 상대로 한 일종의 '확인 사실'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해를 시작하며 문단의 한쪽을 달군 이 사태는 이후에도 곱씹어볼 만한 여러 측면을 가진 문학장의 한 '사건'으로 보인다.

이미 이야기된 장르문학과 순문학의 대결이라는 요소뿐 아니라 출판사와 잡지, 트위터와 웹진 등 전통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대결, 그리고 순문학 독자와는 사뭇 다른 듯 보이는 장르문학



1, 2
논란이 된, SF작가 듀나의
인터뷰가 실린
<악스트> 4호(사진1)와,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한 5호(사진2).

독자의 적극성이 한꺼번에 드러난 흔하지 않은 예이기 때문이다. ‘문학에는 오로지 좋은 문학과 나쁜 문학만이 있을 뿐 그 외의 구분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이상일 뿐 현실에서는 대립은 아닐지라도 각 하위 문학에 다른 어법이 사용되고 있음도 이 사건은 보여준다.

순문학과 장르문학, 전통 매체와 새로운 매체의 대립

이번 사태는 <악스트>가 지난 1·2월호에서 SF소설계의 중견작가인 듀나를 ‘어설프게’ 인터뷰한 데서 시작됐다. 듀나는 익명으로 20년 이상 SF와 영화비평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다.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을 독자로 두고 있는 <악스트>는 지난해 창간 뒤 후 참신하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문단의 화제를 주도해왔다.

인터뷰에서 순문학 소설가들이자 편집위원인 백가흠, 배수아, 정용준 등은 익명으로 활동해온 듀나의 신상에 대해 집요하고 무례하게 질문한 반면 장르문학 자체에 대해선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표피적인 질문을 던졌다. 아울러 듀나의 작품은 한 편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악스트> 1·2월호가 배포된 후 듀나의 팬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 대대적인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특히 백가흠 소설가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성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그 와중에 1인 SF웹진인 <알트SF>가 백가흠 소설가에 대한 강력한 비난과 인터뷰 내용에 대한 긴 인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은행나무 출판사는 ‘과도한 양의 인용이 저작권 침해’라며 법적 제재를 암시하는 메일을 <알트SF>에 보냈고 <알트SF>는 휴간을 선언하면서 반발했다. 인기 소설가 장강명 씨가 가세해 ‘<악스트>가 과도하게 비판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한 매체에 발표했지만 <악스트>에 대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비판의 양상은 단순히 ‘인터뷰가 무례했다’를 넘어서서 ‘상업적인 의도가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로까지 확대됐다. 은행나무 출판사가 1인 웹진인 <알트SF>에 메일을 보낸 것은 ‘비평의 영역에 공권력을 끌고 온 것’으로, ‘입장을 <악스트> 5호에서 밝히겠다’고 한 <악스트> 측의 말은 ‘<악스트> 5호를 판매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문학계에 드물던 독자 중심의 논란, 토론 부재는 아쉬워

이 사태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번역가인 노승영 씨는 트위터에 “<악스트>의 듀나 인터뷰는 장르문학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이 어떤 참사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료’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승영 씨는 듀나의 항의를 받고서 <악스트>가 인터



- 3 이번 논란이 가장 활발하게 오간 곳은 트위터였다. 종이매체와 신매체의 대립이라는 점에서도 이번 소동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 4 <악스트> 백다흠 편집장의 사과문이 게재된 인터넷매체 <뉴스페이퍼> 갈무리 화면.

뷰를 폐기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이메일을 추가 수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낮선 장르와 낯선 작가를 대하는 비장한 작가의 반응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흥미로운 실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김한식 문화평론가는 ‘독자는 배제되고 문학인들만 논란을 벌인 신경숙 사태와는 달리 독자를 중심으로 논란이 벌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존(순문학) 문단보다 훨씬 건강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어두운 그림자도 던졌다. 창간 당시 ‘출판사가 기획에 참여하지 않고 내용적인 부분은 철저히 편집위원들에게 맡긴다’고 밝힌 대로, 실제 이 인터뷰 사태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던 은행나무 출판사, 그리고 인터뷰 사태와는 다른 사안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출판사의 타당한 지적까지 욕을 먹는 등 구별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무차별 공격이 이뤄진 것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SNS나 웹진 같은 기동성 있는 신생 매체는 ‘다음 호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느리고 안일한 대응을 한 종이 매체에 완승을 거두었고, SF 독자들은 <악스트>로부터 사과를 받아냈다. 하지만 문화에서는 사과나 승리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 토론이다. 너무 완벽하게 이겨 토론의 불씨까지 다 꺼뜨린 난폭한 마무리 아닌가, 하는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글 권영미
뉴스1 기자.
연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교육방송에서 프로듀서로 일했다.
미국 뉴욕시립대, 미주리 주립대 저널리즘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2년부터 뉴스통신사 뉴스1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학의 획일화 우려되는 ‘프라임 사업’

누가 대학을 쥐떼로 만드는가

몇 년 전부터 잇을 만하면 전해지는 뉴스 중 하나가 대학의 인문·사회 분야 학과와 예술계열 학과의 폐지 또는 통폐합 소식이다. 취업률 등 특정 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의 내실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초 학문과 예술 분야 학과를 폐지 및 축소하는 이유다. 정부의 ‘프라임 사업’은 큰 규모의 지원금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대학의 획일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봄빛이 완연함을 느낀다. 3월 초 개강한 대학가에도 따스한 봄빛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이런 봄빛 속에서도 대학 구성원인 학생과 대학 사이엔 찬바람이 뿜뿜 분다. 주요 대학에서 학생과 대학 간 마찰이 끊이지 않는다. 대학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나서고 학생은 대학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찌 된 일일까.

무엇을 위한 대학 구조조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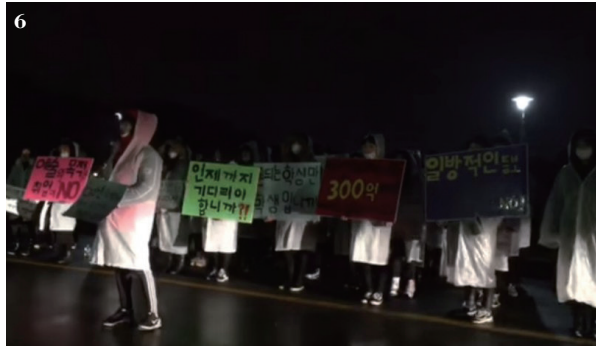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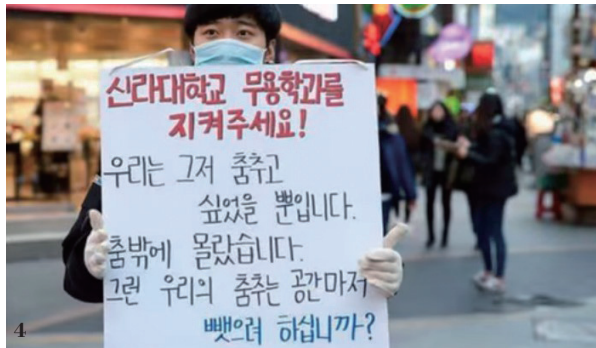
원인은 바로 ‘프라임(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다. 교육부는 대규모 정원 조정을 하는 대학을 뽑아 올해부터 3년간 매년 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대학은 전체 입학 정원의 5~10%를 조정해야 한다. 산업 수요와 대학 정원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2024년까지 공학·의학 분야는 21만 9000명이 부족하고, 인문·사회 분야는 31만 8000명의 초과 공급이 예상된다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전망이 주요 근거다. 선정된 대학은 한 해 30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대학가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의 대학 지원사업’으로 불린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4월 말까지 19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무려 100여 개 대학이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앞다퉂 정원 조정에 나서고 있다. 재정이 부족한 대학으로서는 어떻게든 정부의 지원금을 타내려 필사적이다. 지난해 사립대학교는 운영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모든 초점은 공대 정원을 늘리고 인문·사회 분야를 줄이는 데 맞춰져 있다. 공대가 없던 여대는 공대 신설을 추진하기도 한다.

대학가는 벌집 쑺신 듯 뒤숭숭하다. 예체능과 ‘문사철(문학·역사·철학)’의 무덤이 되고 있어서다. 중앙대는 이공계를 늘리고 인문·예술계를 대폭 줄이려다가 반발에 부딪쳐 총장이 사퇴하기도 했다. 신라대는 공대를 늘리기 위해 무용과 폐지를 추진했다가 지역 예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무용·음악 부문을 통폐합하고 교육·디자인 부문 정원을 대폭 줄이려 하고 있다.

학생의 반발에도 대학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자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올 초 서울대·고려대 등 수도권 지역 9개 대학 총학생회와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라임 사업 등이 대학의 기초 학문 정원을 줄이게 하고 대학을 ‘취업 몰입식’ 기관으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 사업은 정부 주창처럼 사회 변화에 맞춰 대학 체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재정 지원을





1, 2
사회대와 인문사범대
정원 감축을 추진한
성신여대에서는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3, 4, 5, 6
부산 신라대와 경성대는
교육부 프라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용학과 폐과를
결정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보류했다.
학생들은 거리로 나서
학교 측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신라대
무용학과(사진3, 5)와
경성대 무용학과
(사진4, 6)의 학생들.

미끼로 대학에 정부가 원하는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단국대 총학생회는 최근 전체 학생총회를 열고 대학 측에 '프라임 사업 불참'을 요구하기로 했다. 취업 전망을 토대로 한 구조조정이 예술과 순수 학문을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성신여대는 사회대와 인문사범대 정원 감축을 추진하다가 학생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학생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학교 측의 정원 조정 방안이 일방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취업이라는 미끼, 사회의 '획일화'로 이어질 위험

이런 움직임을 보면서 '랫트 레이스(rat race, 쥐 경주)'가 떠올랐다. 하나의 미로가 있다. 미로가 시작하는 곳(입구)에는 수많은 굶주린 쥐가 몰려 있다. 미로가 끝나는 곳(출구)에 치즈 한 조각을 놓는다. 입구를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쥐떼는 치즈를 먼저 차지하려고 미친 듯이 미로 곳곳을 헤집고 다닌다. 이 와중에서 서로 밟고 부딪히며 다치는 일이 속출한다. 결국 동작 빠른 한 마리가 치즈를 차지하지만 나머지 쥐는 굶주림과 상처로 지쳐 쓰러진다. 이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도시인의 고단한 삶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래서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랫트 레이스'는 성공을 위해

과도하게 벌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뜻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대학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학생 수가 줄고 있고 산업구조도 바뀌고 있어서다. 요즘 학생 사이에선 '인구론(인문계 대학생의 90%는 논다)', '문송(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이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가 효율과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랩트 레이스를 조장할 유혹에 빠지기 쉽다. 랩트 레이스의 치명적인 독은 획일화다. 취업이란 하나의 잣대로 모든 대학을 줄 세우다 보면 '공대가 강한 대학' '법대가 강한 대학' '사범대가 강한 대학' '예술대가 강한 대학' 등 대학 나름의 특성은 사라지고 만다. 미래 인력 수급을 예측해서 인위적으로 인문·예술 부문을 줄이고 공대를 늘렸다가 예측 자체가 틀렸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이는 투자회사(IB) 골드먼삭스는 신입 직원을 뽑을 때 경영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역사·문학·수학·공학 전공자까지 뽑는다. 최고의 인재라 해도 비슷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 모인 조직엔 사고의 다양성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 혁신과 창의는 다양성에서 나온다. 한국 교육은 다양성을 꽃피울 준비가 돼 있는가. 선택은 정부보다 시장(학생의 수요)이 더 잘한다.

글
김창규
코리아중앙데일리
경제산업부장

사진 출처
성신여대 과통폐합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savesswu)
'경성대 무용학과 존속을 위한 기원제' 영상(youtu.be/zQnyX0a-pts),
'1일 부산 신라대학교 무용과 '눈물의 출판' 기원제 퍼포먼스' 영상(www.youtube.com/watch?v=vtP-4Aqfs44).

문화체육관광부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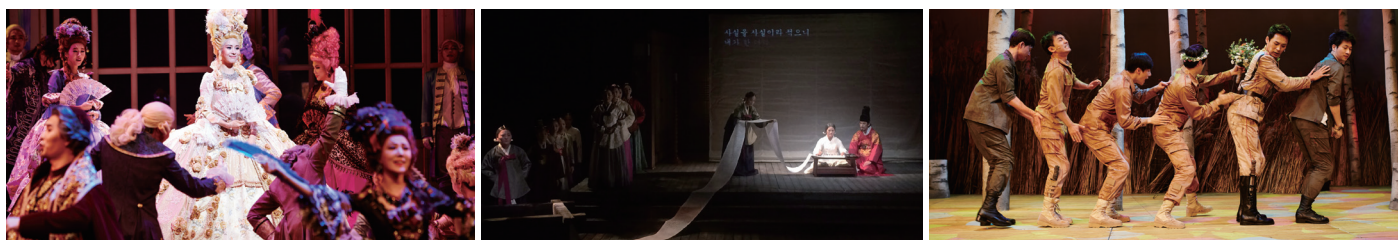
공연 시장 양적 성장 'OK' 질적 성장은 '...'

문화체육관광부의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2월 말 발표됐다. 2014년 한 해 국내 공연예술 시장 실태를 분석한 것으로 매출액 추이, 산업종사자 수, 공연장 가동률 등 실질적인 지표를 통해 문화예술 산업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2014년 공연 시장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전년 대비 성장세는 둔화되고 대형 기획사와 대학로 소극장의 격차가 커지는 등 질적 성장을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공연 시장은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세월호 여파로 관객 수가 줄고 성장률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공연기획사의 매출은 늘었지만, 대학로와 민간 공연장 매출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2014년 한 해 국내 공연예술 시장 실태를 분석한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는 '양호한 양적 성장과 아쉬운 질적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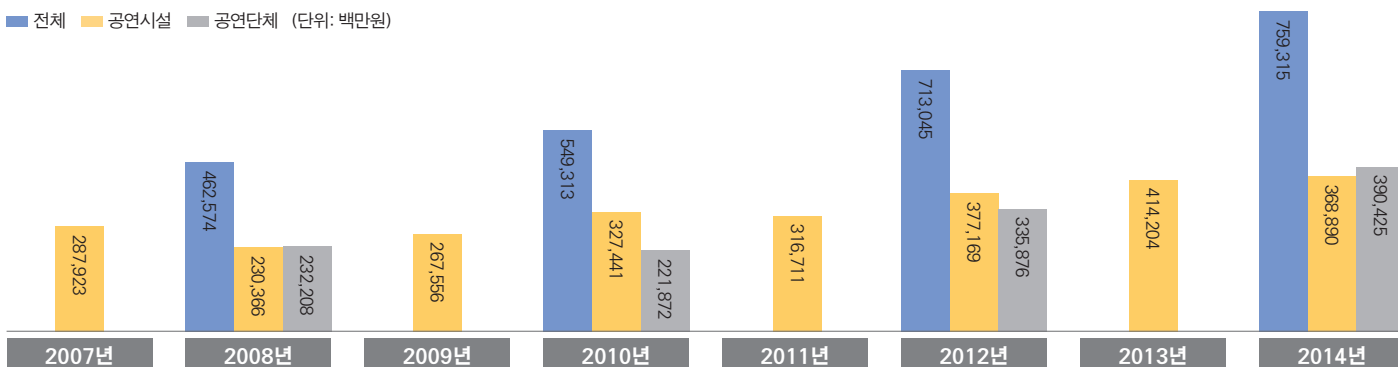
공연예술실태조사는 문체부가 2007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 매년(공연단체 매출은 2년에 한 번)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5년 6월부터 9월까지 공연작품의 창작(제작)을 담당하는 공연단체(2,284개), 공연작품의 유통(매개)을 담당하는 공연시설(1,034개), 공연행정기관(245개)을 대상으로 대인면



공연시설 및 단체 매출액 추이(2007~2014년)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4년 전년 대비 증감	
									증감수(백만원)	증감률(%)
전체(백만원)	-	462,574	-	549,313	-	713,045	-	759,315	46,270	6.5
공연시설(백만원)	287,923	230,366	267,556	327,441	316,711	377,169	414,204	368,890	▲45,314	▲10.9
공공	-	-	-	45,250	85,296	154,404	180,694	183,469	2,775	1.5
민간	-	-	-	282,191	231,416	222,765	233,510	185,421	▲48,089	▲20.6
공연단체(백만원)	-	232,208	-	221,872	-	335,876	-	390,425	54,549	16.2

■ 전체 ■ 공연시설 ■ 공연단체 (단위: 백만원)



접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공연시설 ±3.4%포인트, 공연단체 ±2.7%포인트이다.

덩치는 커지고

2014년 국내 공연단체와 공연시설의 매출 총합은 7,593억 원으로 2012년(7,130억 원) 대비 6.5% 증가했다. 공연시설 수는 1,034개, 공연장 수는 1,280개로 전년 대비 5.1%, 4.3% 늘어났다.

공연시설은 복합 시설 전체를 통칭하는 의미고, 공연장은 공연시설 내 실제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예컨대 국립극장은 공연시설로, 국립극장 내 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은 개별 공연장으로 집계된다. 공연시설과 공연장 수는 2007년 각각 662개, 891개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4년 공연시설 종사자 수는 1만 2,669명(전년 대비 7.9% ↑)을 기록했다.

공연단체 수는 2,284개로 2012년 대비 8.3%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5만 5,858명으로 9.9% 많아졌다. 전국 공연장에서 1년간 진행된 공연 건수는 총 4만 7,489건, 공연 횟수는 20만 228회로 전년 대비 각각 5.1%, 0.9% 늘어났다. 공연단체 또한 총 4만 5,308건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총 11만 9,968회를 공연하며 2012년 대비 각각 16%, 1.8% 실적 증가를 보였다.

영양은 아쉽고

양적 지표는 늘었지만, 실질적인 시장 환경은 크게 둔화됐다. 공연시설 매출액은 3,6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 감소했다. 국립극장이나 문예회관 등의 공공시설은 1,835억 원으로 1.5% 소폭 증가했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1,854억 원으로 20.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2012년 29.81%였던 매출 성장률은 2014년 6.49%를 기록해 23.3%포인트나 줄었다. 세월호 사건과 브라질 월드컵 이슈로 관람객 수도 전년(3,766만 명) 대비 5% 감소한 7,738명으로 집계됐다.

빈익빈 부익부

시장 주체별 매출 규모를 들여다보면 영양 불균형 상태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2014년 국내 공연단체 매출액은 3,904억 원으로 2년 전 조사와 비교해 16.2% 증가했다. 공연단체는 크게 국립, 공립(광역·기초), 민간 공연단체, 민간 기획사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연극·뮤지컬 장르의 민간 기획사는 매출액이 2012년 대비 21.7% 늘어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민간 기획사

연도별, 시설 특성별 공연장 가동률 추이(2007~2014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51.4	47.0	67.4	72.5	67.4
중앙정부 (%)	100.0	94.8	99.5	100.0	99.4
문예회관 (%)	34.2	31.4	52.9	56.1	55.4
기타(공공) (%)	28.6	39.1	56.1	60.2	51.0
대학로 (%)	81.4	84.7	94.9	99.4	94.5
민간(대학로 외) (%)	64.6	47.7	73.7	80.4	75.2
공공 (%)	34.6	31.7	57.0	60.7	56.4
민간 (%)	67.8	56.7	76.5	82.3	76.7

는 공연단체 총 매출액의 대부분인 63.5%를 차지했다. 문체부는 “매출 규모 100억 원대 이상의 대형 기획사의 실적 개선이 컸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다만, 매출액은 벌어들인 돈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하기 전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이익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 공연장은 관객 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대학로 소극장을 비롯한 민간 공연시설의 총 매출액은 2,335억 원으로 2012년 대비 20.6%나 쪼그라들었다. 공공 시설 역시 2,335억 원을 기록해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동률 격차는 여전

한편, 시설 특성별 공연장 가동률도 여전히 격차가 커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연장 가동률은 공연일수와 준비일수, 기타 행사일수를 합한 값을 1년(365일) 중 시설물 점검 일수와 연간 휴관일을 제외한 일자로 나눠 100을 곱한 수치로, 1년 중 공연장을 얼마나 실제 공연을 위해 활용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2014년 전체 공연장 가동률은 67.4%로 2013년 72.5%에서 크게 줄었다. 중앙정부 운영 공연장과 대학로 공연장은 각각 99.4%, 94.5%, 대학로 외 민간 공연장은 75.2%의 가동률을 보였지만, 지자체 문예회관은 55.4%에 그쳐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유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공연 횟수 ↑ 관객 수 ↓

공연 횟수는 늘었지만, 관객 수는 줄어들었다. 대내외적 이슈로 위축된 소비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 공연시설에서 올린 공연 건수(작품 단위)와 횟수(회차 단위)는 각각 4만 7,489건, 20만 228회로 5.1%, 0.9% 늘어난 반면 관객 수는 3,766만 7,737명으로 5.0% 감소했다.

글
송주희
서울경제신문
문화·레저부
공연 담당 기자

도표 및 그래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5 공연예술
실태조사
(2014년 기준)’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 호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구축하곤 하는 자신에 대한 우화와 그 속에서 걸어나올 비상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은진 작가의 <개인적 우화2>,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수필집 <월든>에 대한 경외와 작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표현한 이영희 작가의 <월든>을 소개한다.



강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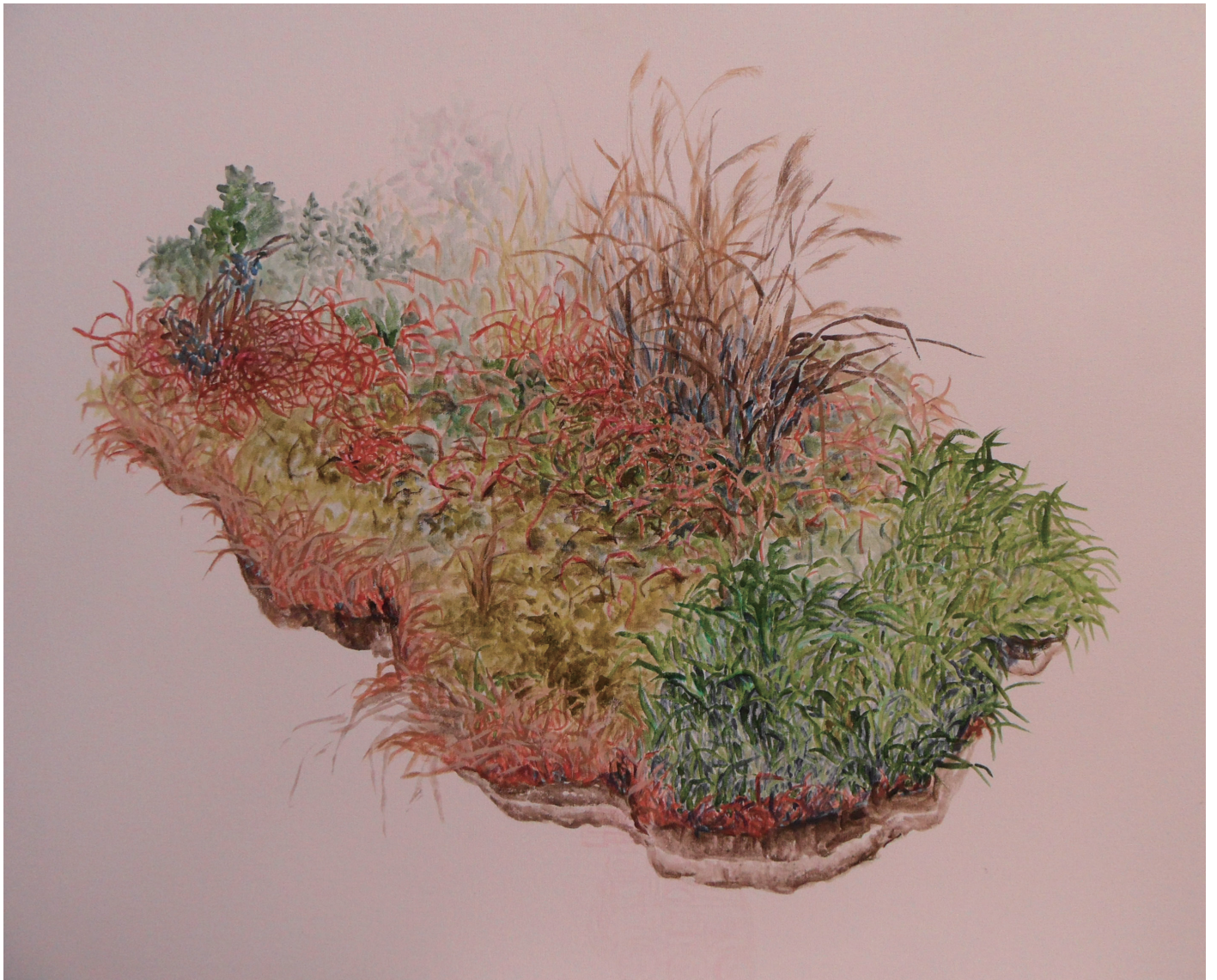
개인적 우화2

목판화

80×60cm

2015

90만 원



이영희

월든

캔버스에 아크릴

60.7×72.7cm

2015

100만 원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바람난 미술 전체 작품을 보려면?
바람난 미술 온라인 아트 갤러리를 방문해보세요.
www.sfac.or.kr/artsgallery

* 문의 02-3290-7140(서울문화재단 공공예술센터)

남산예술센터 '남산여담-장정일의 연극읽기'

무대와 객석 사이, 그윽한 시선

남산예술센터는 올해 공연과 관련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시즌 첫 번째 공연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는 개막 당일부터 전석 매진되었고, 연극계와 관객들의 요청으로 한 회차 특별 공연이 추가됐다.

이 작품 관련 동명의 희곡집이 출간된 데 이어, 공연 관련 대담 프로그램인

‘장정일의 연극읽기’를 통해 관객과 직접 작품에 관해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소설가이자 서평가, 희곡작가인 장정일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총 5회에 걸쳐 대담을 진행했는데,

공연을 본 관객의 호응은 고스란히 대담 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공연이 끝난 후에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남산예술센터 현장의 모습을 전한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여운을 나누는 시간 ‘남산여담’

남산예술센터는 올해 시즌부터 ‘남산여담’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연중 운영한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대담 프로그램 ‘장정일의 연극읽기’가 그 첫 시작으로, 지난 3월 12일(토)부터 26일(토)까지 주말 공연에 한해 진행됐다. 소설가이자 서평가, 희곡작가인 장정일이 진행을 맡았고, 작품을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대담자로 함성호(시인, 건축가), 조선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소설가), 김규향(‘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칼럼니스트), 안치운(호서대 교수, 연극평론가) 등이 참여했다.

장정일 작가는 사람 많은 행사와 모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희곡만 읽었지, 연극을 보러 극장에 온 것도 근 10년 만이라고 했다. 검열 논란의 중심에 서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 작품을 남산예술센터에서 선보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아주 단호하고 진실한 어투로 매일매일 극장에 오겠다고 했다. 지난달에 출간된 대담집 〈장정일, 작가〉 서문에는 “여기 초대된 저자들은 모두 제가 되고 싶었던 꿈을 이룬 사람들이거나, 제가 바라보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쓰여 있다.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의 작가 겸 연출가 박근혜 역시 그가 되고 싶은 마흔 세 명의 작가 중 한 명이니, 그렇다면 그의 애정을 생경하게 느낄 이유도 없었다.

한 편의 작품을 다채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첫 번째 대담자인 함성호 시인은 만화광, 건축평론가, 여행가 등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지만, 그의 본업은 건축가이다. 옛날 문을 여닫던 텔레비전의 형태가 실은 서유럽에서 유행했던 극장의 프로시니엄 무대양식에서 온 것임을 함성호 시인을 통해 이날 처음 알았다. 이어 극중 조선인 가미카제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다는 장정일 작가의 질문에, 한 관객이 “당시의 상황에서 가족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안타깝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됐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함성호 시인은 극중 마사키가 여동생의 뺨을 때리며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말랬지 않느냐고 외치면, 여동생이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라고 되받아치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오늘 공연의 무대에서 군인으로 나오지만, 결국 그들을 위한 위안의 장치만 없거든요”라며 “국가폭력에 희생당한, 예우받지 못하고 그 죽음이 형식화되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로 끼어들어 갔으면 어땠을까”라고 말했다.

다음 날은 박근혜 연출가와 연극평론가 조만수 충북대 교수





3

가 무대에 나왔다. 장정일 작가는 박근형 연출의 이전 작품 <대대손손> <너무 놀라지 마라> <쥐> 등을 언급하며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가 그동안의 작품에 비추어 뜻밖의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면으로 전쟁을 다루지 않았을 뿐, 모든 작품에는 군대나 전쟁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곳곳에 박혀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만수 교수는 “<쥐> <경숙이, 경숙아버지>도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전쟁이 반드시 총탄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황폐해진 풍경이라면 <삼 아니면 도끼>에서 교도소에서 나와 영화를 찍는 아무것도 아닌 무대들, 삶이 다 부서진 무대들도 난민 같은 의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라크 팔루자 에피소드에서 한 여배우가 영어로 소리칠 때, 책을 읽는 듯한 서툰 영어발음이 마치 이라크 무장단체를 희화화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장정일 작가의 우려에, 한 관객이 나서서 “중동 사람들의 영어를 따라 하려고 일부러 어눌하게 대사를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의 절절함이 더 와 닿았다”며 “박근형 연출님께 이 부분은 바꾸지 않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씨네21 편집장이자 소설가이기도 한 세 번째 대담자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할리우드 영화 <매트릭스>를 언급하며 이 연극에 등장하는 네 개의 상황 자체가 모두 각각의 매트릭스로 보였다고 말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실이 어쩌면 조작된 가공의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에서 시작하는 것인데 극중 네 개의 에피소드 가운데 일제말기 가미카제 특공대로 나가는 조선청년의 상황이 그런 매트릭스의 전형을 보여준다.” 조선희 대표이사는 “결국 우리 남산예술센터에서 무대에 올리게 됐지만 근래 창작초연작 가운데 드문 수작임에 틀림없다. 공공극장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없을 수 있어야 한국사회가 성숙했다 할 수 있는 것 아닐까.”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건축가의 눈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연극인의 관점으로, 영화인의 시선으로 공간과 작품, 개인의 가치관과 지식을 나누는 아주 지적이고 진지한 시간이었다. 이처럼 남산예술센터는 올해도 꾸준히, 조용히, 작품으로 얘기할 참이다.

1, 2, 3
3월, 박근형 연출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공연 후 진행된 '남산여담: 장정일의 연극 읽기' 건축가이자 시인인 함성호(사진 1),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사진 2), 연극평론가인 충북대 교수 조만수, 연출가 박근형(사진 3) 등이 참여해 연극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글
조유림
서울문화재단
극장운영팀

사진
서울문화재단



1

등촌동 골목에 파고든 전시 공간 '일년만 미술관'

1년 동안 이곳은 작가와 주민의 놀이터

강서구 등촌동은 주거지역과 오피스 빌딩이 적절히 섞여 있는 곳이다. 낙후되지 않은 곳이지만 문화적인 연결고리는 다소 취약한 편. 이곳에 얼마 전 전시 공간이 문을 열었다. 1년만 운영하는 공간이어서 붙은 이름은 '일년만 미술관'. 한정된 기간과 생경한 위치 덕에 호기심을 끄는 이곳은 일곱 명의 작가가 공동 운영하는 공간이다.



1년 동안 맘대로 작업하며 실컷 놀아보자

지난 3월 6~18일 등촌동 '일년만 미술관'에서는 이곳의 운영진인 작가 7명의 네 번째 그룹전 <사건-150306>이 진행됐다. 이 전시에서 <이미 일년만 미술관을 준비하고 있던 우주>라는 작품을 선보인 조은재 작가는 2015년 3월 6일의 수성, 금성, 지구, 달 등의 배열을 그림에 담으며 'A라는 사건이 그와는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은 사건 B와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다고 작품 설명의 운을 뚫었다. "건물의 재건축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항대로 53길'의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었다면, 경기가 불황이지 않았다면, 그래서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아 비어 있던 어느 상가 건물 2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예술의 잔당들 각 작가들의 개인적 상황이 달랐다면, 아마 일년만 미술관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준비돼 있던 사건과 상황이 만나 일년만 미술관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한다는 게 조은재 작가의 작품, 그리고 공간에 대한 설명이었다. 애정과 위트가 엮보였다.

2015년 12월 강서구 등촌동에 개관한 일년만 미술관은 이름처럼 1년만 운영되는 곳이다. 미술관이 아닌 '미술관'인 이유는 미술관이 법적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획 하나를 뺀 '미술'을 이름 삼으며 단어에 대해 '아름답고 곱다'는 정의를 내렸다. 공동운영진인 7인 작가(박종혁, 심윤아, 썬썬, 이은경, 이정우, 조말, 조은재)는 '예술의 잔당들'이라 칭한다. 이 역시 '예술의잔당'의 '전'에서 획 하나를 바깥으로 돌

려 만든 이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긍정적인 '잔당'이 되고자 하는 뜻을 담았다.

이름처럼 이들은 자발적으로 공간을 마련했다. 시작은 박종혁 작가였다. "작가들이 전시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고 전시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요. 작가 대부분이 공모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찾게 되는데, 그냥 여럿이 모여서 공간을 만들면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전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는 2014년 겨울부터 주변 지인들을 모아 모임을 꾸렸다. SNS를 통해서도 뜻이 맞는 사람들을 수소문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각자의 사정과 지향이 다르니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지인으로부터 1년만 무료로 쓸 수 있다는 공간을 소개받았다. 강서구 등촌동 골목 어귀에 있는 건물의 2층 공간은 임대가가 안 돼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철거 시한을 1년 정도 남긴 상황이었다. 다시 사람을 모았다. 지인의 동료, 학원 제자, 친구, 사부 등 나이, 사는 곳, 하는 작업도 모두 다른 7명의 작가가 모였다. 공간의 지향점이나 1년 뒤 이야기는 일단 접어두고 작가들 각자 하고 싶은 작업을 실행하며 "놀아보자"는 데 만장일치했다(일년만 미술관 운영의 기본은 '만장일치'다). 그렇게 '일년만 미술관'은 작년 12월 첫 그룹전 <1>을 선보이며 문을 열었다.

동네에 파고드는 미술, 마실 가듯 들르는 미술관

일년만 미술관의 올해 일정은 이미 '꽉꽉' 채워져 있다. 대체로 매월 초 1~2주에는 예술의 잔당들의 그룹 기획전들, 3~4주에는 객원 작가전을 진행하는 것이 기본. 이 패턴이 9월 30일까지 유지되고 그 후에는 잔당들 일곱 작가 각각의 개인전을 진행해 1년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시 기획과 작업, 설치, 크리틱 모두 잔당들이 직접 한다. 개성 뚜렷한 작가들이 견해 차로 부딪히는 일은 없을까. "의견이 부딪치면 끝까지 설득하고 합의를 봐요.(웃음) 오히려 의견이 부딪칠 때마다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의견을 정리하거나 몰랐던 부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학교 때 그렇게 싫었던 크리틱도 지금은 즐거워요. 이 공간이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갈 수 있을까를 공통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심윤아 작가) 작업 외의 재능도 각자 달라 누구는 SNS 관리를, 다른 이는 인테리어 공사를, 또 어떤 이는 전시 서문 작성을 담당하는 식이다. 공간 운영과 작업을 병행하기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개인 작업을 오래해 생각보다 다른 작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들에게 지금은 잔당들과 같이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사실 일년만 미술관이 자리한 등촌동은 조금 생뚱맞은 동네



다. 이른바 '신생 공간'이라 불리는 시각예술 공간이 구도심 곳곳에 산발적으로 생기고 있지만 등촌동은 산업의 맥락과도 거리가 있는 주거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 작가들은 '어디에나 있을법한 동네 골목에 문화 공간이 자연스레 녹아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 미술이 대중에게 외면당하고 삶과는 별개의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동네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 체육관이 골목에 어우러지듯 미술관도 골목골목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작가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 떡집 아주머니, 애견숍 가족, 너무 와보고 싶어서 매달 한 번씩 아자에서 도망 나오는 고딩... 이런 관객이 더없이 반갑죠."(박종혁 작가)

1년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한정된 시간과 행운처럼 주어진 공간 덕에 예술의 잔당들은 작업의 동력을 얻어 각자의 실험을 이어가고 있고, 이 공간을 의미 있게 나누기 위해 객원 작가 8팀의 신청을 받아(공모가 아니다!) 전시를 선보이게 됐다. 공간 운영과 그룹전의 A부터 Z까지 모두 잔당들의 몫이기에 손이 부족하지만, 공간이 빌 때 공연과 퍼포먼스 등 전시 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 그 첫 시도로 지난 3월 19일에는 <회기단편선의 갈라쇼> 공연이 열렸다. 이 공간이 지속될 때까지 더 많은 사람이 동네 마실 가듯 미술관에 들 수 있도록 예술의 잔당들은 즐겁게 움직일 계획이다. 여기서는 1년이지만 전국 곳곳에 다른 '일년만 미술관'이 하나둘 계속 생겨나길 바라며.

- 1
3월 전시
<사건-150306>의 오프닝 행사 장면.
- 2
3월 전시
<사건-150306> 전경. 사진2의 왼쪽 벽에 설치된 작품이 <이미 일년만 미술관을 준비하고 있던 우주> (조은재)다.
- 3
3월 전시
<사건-150306>에서 선보인 이은경 작가의 <재구성> 연작 중.

글
이아림

사진 제공
일년만 미술관



뮤지컬 <마타하리>와 <뉴시즈>

공연계에 훈풍 불어넣을 '어벤저스 급' 초연작

올봄은 2016년 뮤지컬 시장의 '알짜 시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명 '기대작'으로 꼽히는 대형 뮤지컬 2편이 국내 초연되기 때문이다. 제작비 250억 원이 들어간 세계 초연작 <마타하리>와 아시아 초연으로 막을 올리는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발 뮤지컬 <뉴시즈>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무대에 오른다. 얼어붙은 뮤지컬 시장에 훈풍을 불려줄 것으로 예상되는 두 작품을 미리 들여다봤다.



치명적 매력의 여인 '마타하리'

<마타하리>, 3. 29~6. 12,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인도네시아어로 '여명의 눈동자'라는 뜻을 지닌 '마타하리'. 3월 29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세계에서 세계 초연 무대를 갖는 <마타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이중간첩 혐의로 프랑스 당국에 체포돼 죽음을 맞은 마타하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눈길을 끄는 건 '어벤저스 급'의 창작 인력을 자랑한다는 점이다. 뮤지컬 <뉴시즈>로 토니상 최우수 연출 부문 후보에 오른 브로드웨이 유명 연출가 제프 칼훈이 연출을 맡고, <지킬 앤 하이드> <황태자 루돌프> <몬테크리스토> 등 히트작을 낳은 세계적 작곡가 프랭크 와일드혼이 곡을 썼다. 또 <엑스칼리버> <보니앤클라이드> <데스노트> 등을 쓴 작가 아이반 멘첼이 대본을 맡고, <뷰티풀: 더 캐롤 킹 뮤지컬>로 그래미상 베스트뮤지컬앨범상을 수상한 제이슨 하울랜드가 편곡에 참여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9일 월드 프리미어 공연일에는 해외 18개국 400여 명의 바이어가 <마타하리> 공연장을 찾을 예정이다.

화려한 캐스팅도 관객의 구미를 당긴다. 지난해 8월 <마타하리> 오디션 현장에는 무려 2500명의 배우가 몰렸다. 치열한 오디션 경쟁 끝에 <엘리자벳> <레베카> <위키드> <아이다> 등을 통해 원 톱 배우로 입지를 다진 옥주현과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해 온 김소향이 마타하리 역을 꿰찼다. 프랑수아 대령으로 마타하리를 만난 뒤 그에게 집착하는 라두 대령 역에는 류정환, 김준현, 신성록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마타하리가 유일하게 사랑한



남자인 아르망 역에는 엄기준, 송창의, 정택윤이 출연한다.

25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인 만큼 무대 스케일도 남다르다. 제작비의 80%가량이 무대에 쓰였을 만큼 무대 세트는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한다. EMK 측은 30개의 모터를 하나의 콘솔로 제어할 수 있는 오토메이션 무대장치를 통해 1900년대 파리 물랭루즈 등을 재현해낼 계획이다. 출연진 의상도 화려하다. 작품의 배경인 19세기 말 유럽은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린 ‘벨 에포크’(좋은 시대·La belle époque) 시대였다. 무대에는 총 200여 벌의 의상이 등장하는데 화려함과 모던함이 특징이다. 주인공 마타하리의 의상은 총 15벌로 특히 물랭루즈에서 파격적인 춤을 출 때 입는 의상은 화려한 자수와 비즈(구슬) 장식으로 디테일한 아름다움을 살렸다. 3월 29일~6월 12일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6만~14만 원, 문의 1577-6478.

아시아 초연의 디즈니 뮤지컬 <뉴스지>

<뉴스지>, 4. 12~7. 3, 충무아트홀 대극장

4월 국내에서 아시아 초연으로 막을 올리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뉴스지(Newsies)>는 디즈니의 동명 영화를 각색한 작품이다. 1899년 실제 뉴욕에서 신문팔이 소년들이 대형 신문에 맞서 파업을 벌인 이야기가 배경이다. 출판계 거물인 조지프 풀리처와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뉴스보이들이 부담하는 배급료를 인상하자 신문팔이 소년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승리하는 과정을 그렸다.

주인공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신문팔이 소년들의 리더 잭

켈리. 제작사 오디뮤지컬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오디션을 통해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인 잭 켈리 역과 주요 배역을 선발했다. 잭 켈리 역에는 영화에서 주로 활동해온 배우 온주완을 비롯해 서경수, 이재균이 트리플 캐스팅됐다. 특히 데뷔 13년차를 맞은 온주완은 이 작품으로 뮤지컬 무대에 데뷔한다. 주연 외에도 총 16명의 뉴스지가 등장한다. 이들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포카혼타스> 등의 음악을 담당한 전설적인 작곡가 알란 멘켄의 경쾌한 음악에 맞춰 탭댄스, 애크러배틱, 발레 등 고난도 안무를 선보이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삶의 희망을 표현한다. 1992년 디즈니가 제작한 동명 영화를 무대화한 이 작품은 2012년 브로드웨이에 입성해 약 1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디즈니 뮤지컬 사상 최단 기간에 손익분기점을 넘은 성공작이기도 하다. 작품은 그해 토니상 음악상과 안무상을 받았다.

아시아 초연 무대는 논레플리카(non-replica)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논레플리카란 외국에서 수입한 라이선스 작품이지만 원작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제작 방식을 말한다. 제작사 오디뮤지컬은 <뉴스지>의 음악과 대본만 디즈니 버전을 따르고, 무대·의상·안무·조명 등은 새롭게 바꾸었다. 오디뮤지컬 측은 기존에 <지킬앤하이드> <맨오브라만차>를 논레플리카 방식으로 제작해 성공한 만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한국만의 독창적인 <뉴스지> 무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4월 12일~7월 3일 충무아트홀 대극장, 5만~13만 원, 문의 1588-5212.

1, 2
뮤지컬 <마타하리>는 전설적인 인물 마타하리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해 세계초연되는 작품이다.

3, 4
디즈니 동명영화를 원작으로 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뉴스지>는 4월 아시아 초연으로 막을 올린다.

글
김정은
동아일보 문화부
공연 담당 기자

사진 제공
EMK,
오디뮤지컬컴퍼니

전시 <백세청풍>과 <이중섭은 죽었다>

두 100세 화가의, 각자의 오늘

태어난 지 100년이 된 두 화가의 전시가 나란히 열린다.

한 사람은 신작을 통해 건재함을 알리는 김병기 화백, 다른 한 사람은 너무 일찍 신화가 되어버린 이중섭이다. 두 전시의 작품에서는 각 작가의 '현재'를 읽을 수 있다. 2016년 현실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과 1950년대에 가족을 사랑하는 한 사내의 따뜻한 시선이다.

이중섭과 김병기. 똑같이 평양 지역에서 1916년 태어났다. 보통 학교 6년 내내 같은 반 '절친'이었다. 화가를 꿈꾼 것도 닮았다. 고교(고등보통학교)는 달랐으나 일본으로 유학 가 같은 미대를 다녔다. 1930년대 도쿄 문화학원에서 아수파, 추상, 초현실주의 등 아방가르드 미술의 세례를 받은 그들은 광복 이후 한국 화단을 이끌어가는 중추가 됐다.

그런데 우리는 이중섭은 알라도 김병기는 잘 모른다. 비슷한 길을 걸은 두 사람. 생의 후반부는 극적일 만큼 다르다. 이중섭은 41세(1956년)에 요절했다. 그리고 신화가 됐다. 김병기는 지금 살아 있다. 오늘의 현실을 그리는 만 100세의 열정 작가로.

100세 작가가 신작 개인전을 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해라' 유행을 낳은 노래 '백세 인생'의 장수 로망을 넘어서는 장수 만세다.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김병기 화백의 <백세청풍(百世淸風)>전이 5월 1일까지 열린다.

강렬한 선으로 현실을 말하는 '오늘의 화가'

<백세청풍>전, 3. 25~5. 1, 가나아트센터

"100세 화가니, 이중섭이니 그런 거 다 떠나 제발 작품으로만 봐주세요." 전시 개막(3. 25)을 앞두고 3월 16일 만난 그는 신신당부했다. 또 말했다. "이중섭, 이중섭 하지만 내 절반도 못 살았어요. 나는 중요한 작품을 하고 있는 오늘의 작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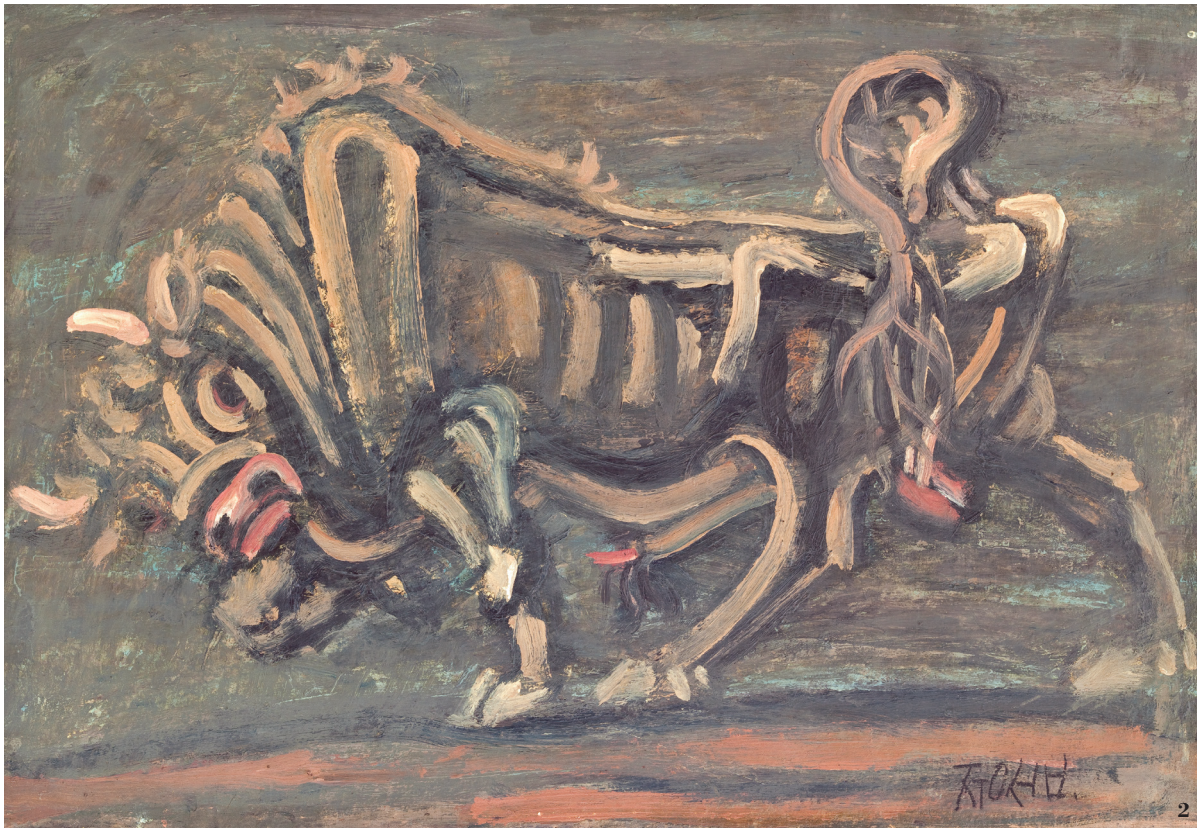
여기서 잠깐 설명이 필요하다. 김병기를 잘 모르는 건 그의 탓이기도 하다. 그는 한국 미술사에서 '증발'된 사람이었다. 부친은 고희동, 김관호에 이어 일본에 유학한 한국 세 번째 서양화가 김찬영이다. 평양 갑부 집안이다. 1960년대 화가로, 서울대 강사로, 비평가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는 1965년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커미셔너로 갔다가 귀국하지 않고 미국 뉴욕 주의 시골 사라토가에 홀연히 남는다. 49세의 간단치 않은 나이. 오로지 작가로 살고 싶어 잠행을 결정했다. 수십 년 잊혔던 그를 한국 미술계에 소환한 이는 윤범모가 천대 교수다. 뉴욕에서 우연히 그의 소식을 전해 듣고 국내 전시를 주선했다. 1986년 가나아트센터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개인전에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 국내에 체류하며 그려온 신작 15점을 포함해 총 50여 점 회화를 선보인다. 그의 그림에는 형상과 비형상이 공존하며, 이분법의 경계를 가로지른다. 1990년대에 그린 그림만 해도 형상성이 지금보다 강했다. 한국에 와서 그린 그림에선 생략이 한결 과감해진다. 면보다는 동양의 서예를 연상시키는 선이 화면을 장악하는 요소가 됐다.

반추상이면서 민중미술만큼이나 구체적으로 현실에 대해 발언한다. <공간반응>(2015년작)이 대표적이다. 전체를 검게 칠한 화면 양끝에 내리그은 붉은 선 두 가닥은 폭력적으로 비칠 만큼 강렬하다. 사람과 빌딩을 연상시키는 형상이 휘청거리듯 뒹그러져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1 김병기 작가의
〈공간반응〉
(Oil on canvas,
145.3×97cm, 2015).

2 이중섭 작가의 〈황소〉
(종이에 에나멜과 유채,
35.5×52cm, 1953년경).

반추상이다. 〈바람이 일어나다〉(2016), 〈살아야 한다〉(2016) 연작은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 시구절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를 패러디했다. 공산 치하 평양에서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왔다는 노작가는 당시 현실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정부의 무능에 대한 무력감, 피난 시절을 보낸 부산에 지금은 초고층빌딩이 들어서 바다가 빌딩 사이로 ‘세로로 보였을 때’의 놀라움…. 그림의 주제는 그렇게 동시대에 대한 고민과 비판, 사유를 담고 있다. 전시는 무료다.

신화를 걷어낸, ‘인간 이중섭’의 삶과 작품 〈이중섭은 죽었다〉, 3. 16~5. 29, 서울미술관

김병기 개인전을 본 뒤 인근 부암동 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이중섭 탄생 100주년 기념전’에 가보자. 이중섭의 죽음은 김 화백에게도 각별하다. 서울 적십자병원에 행려병자로 처리돼 있던 이중섭의 주검을 발견하고 장례를 치러준 이가 그였다. 이중섭은 경제적 곤궁함 때문에 아내와 두 아들을 처가가 있는 일본으로 보내야 했다. 전시가 성공하면 가족을 데려와 살겠다는 꿈으

로 외로움을 버티었다. 서울과 대구에서 연 개인전은 성공했다. 그러나 수금에는 실패하면서 더 큰 절망에 빠졌다. 우울증에 시달린 그는 끝내 홀로 생을 마감한다. 이번 전시는 신화를 걷어내고, 가족을 지극히 사랑한 인간 이중섭을 부각했다. ‘이중섭은 죽었다’는 제목은 그래서 나왔다.

미술관 소장품만으로 꾸민 기획전이다. 여러 군데서 작품을 빌려오는 다른 전시에서처럼 대표작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눈의 호사는 없다. 대신 복제품과 각종 소품을 적극 활용해 이중섭의 삶을 간접 체험하게 하는 전시 방식이 대중에게 어필할 듯하다. 생의 매 시기를 10개의 구역으로 나눠 공간화했다. 유학 시절의 도쿄 문화학원, 가족과 함께라서 가장 행복했던 제주 서귀포읍의 피난지 단칸방, 6·25전쟁 후 예술인들과 어울렸던 부산 루네쌍스 다방, 창작 열정을 불태우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시절, 첫 성공을 거뒀던 서울 미도파 화랑, 대구 개인전 때 머물렀던 경북여관 2층 9호실…. 공간별로 그 시기 제작한 작품을 걸어 이해를 돕는다. 5월 29일까지. 성인 9000원, 대학생 7000원, 초중고생 5000원, 어린이 3000원. 한글

글
손영옥
국민일보 문화부
미술담당 선임기자

사진 제공
가나아트센터,
서울미술관

책 〈나의 투쟁〉과 〈그들의 등 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

여러분, 삶은 투쟁입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 것들이 있다. 시간이 쌓여야만 알 수 있거나, 타인의 눈으로 볼 때 의외로 쉽게 발견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소설 〈나의 투쟁〉과 그래픽노블 〈그들의 등 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는 그런 순간들로부터 시작해 작중 화자(=작가)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작품이다. 미처 깨닫지 못한 삶의 의미를 찾는 건 일종의 투쟁이다.

우리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이다. 지난 삶을 송두리째 기억할 수 없는 인간에게 자신이야말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내가 어떤 연유로 이러저러한 어른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나조차 나를 온전히 기억해낼 수가 없다니! 〈나의 투쟁〉 〈그들의 등 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의 두 작가는 자신의 지난 삶을 어떻게든 남김없이 기억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두 책의 주인공은 작가 자신이다. 우리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타인의 미스터리한 삶 속으로 가까이 걸어가는 일, 흔치 않은 초대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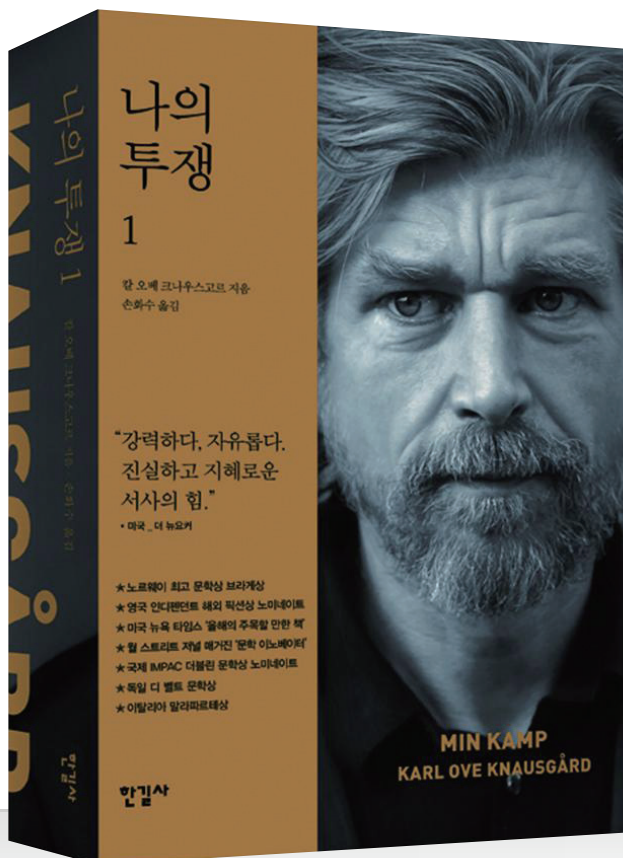
시간에 뜰겨나간 삶의 의미를 찾아서

〈나의 투쟁〉,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 지음, 손화수 옮김, 한길사

“심장의 삶은 단순하기 그지없다. 힘이 다할 때까지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멈추어버리면 되니까.” 첫 문장에 따르면 우리는 대개 심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심장은 곧 시간이다. 심장 박동은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심장과 시간을 일시 정지시킬 수 없다. 느긋하게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볼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칼 오베 크나우스고르의 세 번째 소설 〈나의 투쟁〉은 총 6권 3,622쪽 분량의 방대한 소설이다. 그중 〈나의 투쟁 1〉이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굳이 완역되길 기다렸다가 읽을 필요는 없다. 이 책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 아니다. 짐작건대 작가가 자신의 기억을 ‘떠오르는 순서’대로 쓴 소설일 확률이 높다. 심지어 주인공 이름도 칼 오베 자신이다.

칼 오베는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고향을 찾는다. 그에게 아버지는 그다지 유쾌한 존재가 아니었다. 아버지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는지조차 가물가물할 지경이다. 부음을 듣고 그가 맨 처음 떠올린 것은 아버지가 서른두 살이던 해, 마당에서 잔디를 깎던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당당했고 자신만만했다.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게 없었다. 칼 오베가 마흔 살이 되어서야 뒤늦게 떠올린 자신만만한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없다. 죽기 몇 년 전까지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에 불과했다.



까맣게 잊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는 순간 작가는 깨달았다. 시간이 삶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뜯어간다는 사실을. 〈나의 투쟁〉은 그 뜯겨져 나간 삶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기대를 걸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 역시 알게 모르게 뜯겨져 나간 삶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고!

투쟁, 일상적인 행복을 확대하는 자신과 싸우는 일

〈그들의 등 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 오사 게렌발 지음,
강희진 옮김, 우리나라비

스웨덴의 그래픽노블 작가 오사 게렌발은 대략 15년 동안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반복해서 그려왔다. 작가에게 기억은 어른이 될 수록 점점 어린 시절에 가까이 다가가는 미지의 것이었다. 그것은 내내 어두워서 작가 자신조차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세계였다. 시작은 이렇다. 그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 육아에 시달리고 있다. 그녀의 지인들은 육아에 지칠 때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고 충고했다. 그녀가 살면서 들은 말 중 가장 놀라운 말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단 한 번도 다정다감하게 그녀를 대해준 적이 없었다. 상담가는 그녀가 심각한 방치 속에 자라왔음을 지적하고 치료를 권했다. 이전까지 그녀는 부모의 무관심과 외면이 오로지 자신의 잘못된 줄로만 알았다. 여태껏 자신을 나쁘고 그릇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늘 잘못을 빌었지만 부모는 언제나 냉담했다. 애당초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이리라. 오사 게렌발은 뒤늦게 어린 자신을 세계 끌어안았다.

〈그들의 등 뒤에서는 좋은 향기가 난다〉는 오사 게렌발의 9번째 작품이다. 이 작품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다. 작가 후기에 이런 말이 있다. “작품 활동은 투쟁이며 나의 책들은 곧 투쟁에 관한 것”들이라고, 삶의 의미는 삶과 투쟁하는 데 있으며 그 투쟁은 또한 삶을 아름답게 한다고.

칼 오베 역시 〈나의 투쟁〉에서 내내 삶은 투쟁이라는 말을 거듭하고 있다. 거창한 의미에서의 투쟁이 아니다. 칼 오베에게도 육아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아이의 기저귀를 가는 일이 그렇다. 그것은 행복한 일이지만 자부심을 주는 일까지는 아니었다. 칼 오베는 아이를 키우는 일 앞에서 번번이 절망하는 자신을 억지로라도 일으켜 세워야 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확대하는 자신과 싸우는 일, 그것이 삶의 투쟁이었다고 칼 오베는 고백한다. 그 모든 투쟁을 기록하고 복원하는 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확대하지 않는 일,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단순해지지 않기 위해, 투쟁!



글
황현진
제16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저서로는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
〈달의 의지〉가 있다.

사진 제공
한길사, 우리나라비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온라인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리니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sfac.or.kr) - 열린광장 혹은 페이스북 탭에서 예술적 상담소를 찾아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지지부진한 삶의 돌파구는 없을까요?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올해 나이 스물일곱이라는 청취자가 “회사에서 진급도 하고 학업도 마치고

제 인생이 피려나 봐요”라고 보낸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부럽더군요. 30대 중반인 제 처지에선 나이도 그렇거니와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가본 건 언제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직장인입니다. 밤샘과 야근이 많아서 언젠가부터 ‘일-잠-일-잠’으로 생활이 단순화됐고 여가 가 사라졌죠. 건강, 미모, 연애 이런 말은 사어(死語) 같고 이대로 순직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 나이가 발목을 잡아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결혼이나 부모님 부양 등 앞으로 책임질 상황이 늘어날 텐데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변화 없이 쳇바퀴 돌 듯 사는 것도 앞이 안 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걸어도 걸어도 제자리인 삶의 돌파구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술적 상담소

회사가 가시밭길이라면, 바깥은 중력 없는 안드로메다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모든 직장인의 로망이겠죠. 저도 예전에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남의 일을 소처럼 말처럼 하는 이 노력과 열정으로 내 일을 한다면 분명 성공할 것이다!’ 라는, 돌이켜보면 어이없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당연히 그렇게 굴러가지 않았습니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누가 공동이를 걷어차지 않으면 꿈쩍도 못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원한다고 생각했던 일은 실제로 해보니 재미도 없고 재능도 없고 전망도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저는 곧 회사 생활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달이 나오는 월급과 매일 아침 갈 곳과 할 일이 있다는 현실이 주는 안도감과 안정감, 칭찬과 보상, 자판기 앞에서의 수다, 심지어는 마감과 회식까지도요.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인생은 계속해서 내가 나를 복돋워야 하고 내가 나를 채찍질해야 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면서도 손에 쥐는 돈은 한숨이 나올 정도였어요.

흔한 멘토 스타일로 말한다면, 독자님의 인생 돌파구를 가로막는 벽들은 스스로 갖다 붙인 핑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살라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 눈 딱 감고 도전해보라고 부추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애프터서비스는 없다고 살짝 덧붙일 거예요.



<http://bit.ly/ltAX44>



인생은 쉽게 흥하지 않아요 물론 쉽게 끝나지도 않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주는 물질적, 심리적 보상을 쉽게 뿌리칠 수 있었더라면 독자님이 지금처럼 고민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사실 그게 욕망을 일으키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 이렇게 말해드리렵니다. 일에는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도 일이 되면 괴로워져요. 지금 이 일만 아니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사실은 이 일이야말로 내가 가장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회사가 아닌 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고 싶다면, 회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회사에 다닐 때는 새벽같이 지하철을 타고 무표정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하루 종일 쫓기듯이 일하다가 하늘 한 번 못 쳐다보고 회사를 빠져나오면 한 밤중이었습니다. 계절이 오는지 가는지도 몰랐어요. 일에 치여 가족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고, 소처럼 일하는 나를 위한 보상이라며 가게에서 싸구려 물건이라도 마구 쓸어담았어요. 지금은 해가 지기 전에 일을 마치고 가족과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진이 빠지도록 일하지 않으니 쇼핑 중독도 사라졌습니다. 회사 다닐 때 밖에서 먹던 산해진미보다 집에서 먹는 소박한 식사가 훨씬 만족스럽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을 한다는, 이 시간이 모두 내 것이라는,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간다는 작은 만족감에 불안한 미래와 적은 소득도 감내할 힘이 생깁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이 회사 밖의 인생이지만, 사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 아니겠냐며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회사를 박차고 나가기 전에, 이불을 박차고 나가봅시다

피천득의 수필집 <인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다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 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며 살고 싶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있건,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을 줄 아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다면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마음이 복잡할수록 몸을 많이 움직이세요. 좋아하는 길을 산책하거나 운동장을 가볍게 달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꼼짝도 못하고 앉아 일하면, 머리는 혹사했지만 몸에는 여전히 에너지가 남아 있는 불균형 상태 때문에 진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요. 이상태가 계속되면 번아웃 신드롬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너무 많이 써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날에는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이라도 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요.

이토록 복잡한 세상이지만 사는 건 단순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라는 단순한 구호 아래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걷는다고 고민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걷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수희}

답변
한수희
매거진 <MAXIM>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매거진
<AROUND>에 칼럼을
기고한다. 몇 년 동안
여행 경비로 모아둔
돈을 털어 작은 북카페
'책과 빵'을 열었다.
오늘도 카페에서
성실히 빵을 굽고,
공장장처럼 글을 쓴다.
저는 책으로는
<당신의 연애는
틀리지 않았다>(공저),
<우울할 때
반짝 리스트>가 있다.



〈사진 1〉 1950년대 시발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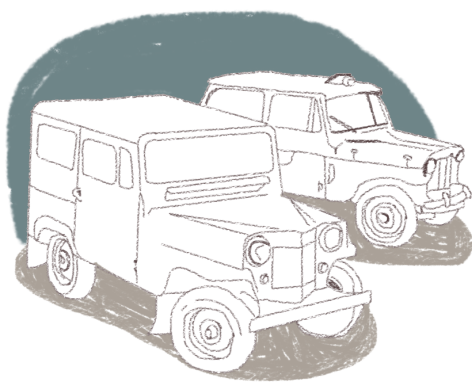
최초의 국산 자동차인 '시발차'와
시민의 집꾼 '삼륜차'

대거린했던
첫 국산
자동차의 등장

1950년대 서울 거리를 누비던
'시발택시'를 아십니까.
기우뚱거리며 달리던
'삼륜차'를 기억하시나요.



〈사진 2〉 1959년 삼륜차.



최초의 국산 자동차인 ‘시발’은 드럼통을 펴서 외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양은 군용 지프를 닮았고요. 이 자동차의 로고 ‘시바라’는 첫출발을 의미하는 ‘시발(始發)’이라는 한자어를 풀어쓰기 방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1955년 8월부터 1963년 5월까지 국제차량제작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이 지프형 자동차는 1955년 10월 광복 10주년을 기념해 국산장려회가 주최한 산업박람회에 출품돼 최우수상품으로 선정되고,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며 일반인에게 알려졌습니다. 시발차 가격은 처음에는 8만 원대였다가 택시 회사들이 관심을 가지며 3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이후 영업용 택시로 많이 이용되며 시발택시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차는 현재 한 대도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륜차’는 1962년 기아산업(현 기아자동차)에서 처음으로 생산했습니다. 삼륜차는 대부분 짐을 실어 나르는 용달차로 사용됐습니다. 주로 이삿짐을 옮기는 데 쓰였죠. 삼륜차를 떠올리면 새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짐을 가득 싣고 조수석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짓는 아주머니의 표정이 그려집니다. 1975년 삼륜용달차의 기본요금이 700원이었습니다. 웬만한 거리를 가도 5000원이면 충분했을 듯합니다.

한국 자동차 생산의 발판이 된 ‘시발자동차’

〈사진1〉은 시발택시가 서울 남대문로를 느릿하게 달리는 모습입니다. 시발은 1960년대 초 ‘새나라’가 나오면서 판매량이 급감했고, 1960년대 말 ‘관광 한국’을 위한 도시 미화의 일환으로 폐기됐습니다. 뭐든 처음 시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대한 일도 시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시발자동차는 한국을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든 든든한 발판이었습니다.

시발택시가 한창 유행하던 1950년대 후반에 택시 강도가

성행했습니다. 1958년 4월 시발택시만 노린 강도가 하루밤 사이 세 차례 강도 행각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12번이나 시발택시 운전기사를 털었다고 합니다. 또 그해 12월에는 승객을 가장해 시발택시에 탄 강도가 나무로 만든 모의 권총으로 운전기사를 위협하다 검문에 걸려 잡힌 일도 있습니다.

당시 교통이 그리 혼잡하지 않았지만 사고는 많았습니다. 1959년 7월 종로1가 전차길을 달리던 시발택시가 노면전차 사이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는 대파됐고, 운전기사는 전치 1주의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택시 미터기가 없었습니다. 택시 미터제를 추진하던 서울시는 1961년 11월 1일부터 임시로 택시 기본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시발택시는 2km를 기본요금 거리로 정하고, 250원을 받았습니. 또 500m마다 50원씩 추가됐습니다. 대기료는 10분에 50원이었으며 교외 등 특수 지역 운행 시 요금의 2할이 붙었고, 왕복 운행 시에는 요금의 2할을 빼줬습니다.

시발자동차, 삼륜차… 한국 자동차 역사에 기억될 만한 존재

1966년 한 신문에 폐차 위기에 놓인 시발자동차를 위로하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은 당시 폐선 위기에 놓인 호화 여객선 ‘퀸 메리’호를 빗대서 썼습니다. “그 호화선이 폐선된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문득 ‘시발’이 생각이 난다… 그 배처럼 세계적 에피소드와 찬란한 항해의 역사는 지니지 못했지만 시발이 처음 서울 거리에 등장했을 땐 그래도 대견스러웠다… 시발은 세월이 흘러 감에 따라 ‘새나라’에 밀렸고, ‘코로나’에도 밀려 그만 고물상에 가게 됐다… 앞으로 살길은 골동품적인 가치를 노릴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처음 생긴 시발택시, 슬퍼 말라. 그래도 자동차사의 첫 페이지에 이름이 오를 터이니…”

〈사진2〉는 1959년 종로구 수송동 옛 숙명여고 옆길에서 찍힌 삼륜차의 모습입니다. 당시 국내에서 삼륜차가 생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해 들여온 차로 보입니다. 이 차는 조금 불안해 보이지만 꽤 달렸나 봅니다. 1972년 6월 ‘운전자에게 피로가 빨리 오고, 앞바퀴가 하나여서 방향 조종할 때 위험하다’는 이유로 통행이 제한될 때까지 고속도로도 달릴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삼륜차가 고속도로를 운행하며 사고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앞바퀴가 하나라 빠른 속도에서 중심을 잃는 일이 많아 대부분 전복사고였습니다.

시발자동차와 삼륜차 모두 처음 나왔을 당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세월의 그늘 속에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추억의 산물이 됐습니다. 우리네 사는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진
김현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평론가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서대문형무소 ‘옥바라지 골목’ 철거를 앞두고

우리는 도시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종로구 무악동, 서대문형무소 앞 무악제2지구는 ‘옥바라지 골목’으로 불린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 등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이들의 가족이 옥바라지를 위해 드나든 곳이라서 생긴 별칭이다.

서울에서 역사적 의미와 시간의 흔적을 조용히 지닌 몇 안 되는 곳이다.

이 옥바라지 골목이 재개발계획에 의해 철거된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반복되는 듯하다.

한몫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불리는 방법은 부동산밖에 없다는 생각이 팽배했고 헌집 주면 새집 준다는 말로 건설사들은 오래된 동네들을 무분별하게 부수고 아파트로 대체했다. 건설사와 재개발 찬성 조합에 무한한 권한을 주는 일, 그것을 시에서는 거버넌스 즉 민관협치라 했다. 아파트 재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널리 알려져 있다. 높은 분담금으로 막상 원주민들은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살 수도 없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돈을 보상받는다. 정당한 보상을 원하면 구청과 조합 측은 떼쓰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결국 제대로 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외곽으로 쫓겨난다. 예를 들어 길음 뉴타운의 실질적 원주민 정착률은 20%도 안 되며, 서울 지역 뉴타운 대부분의 사정도 같다. 결국 서울 어디든 작은 주택가나 골목은 지난 10년 동안 거의 사라졌고 모두 아파트라는 동일한 형태의 주거 방식을 강요받게 되었다. 주거의 형태는 삶과 문화와도 직결된다. 한 가지 주거 방식만을 권장하는 도시에서 과연 다양한 문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아파트만이 허용되는 서울

서울은 600년 가까이 된 도시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와 잔혹했던

6·25전쟁 때문에 이 도시가 정말 그리 오래된 도시인지 그 흔적

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2000년대 서울을 휩쓴 재개발 광풍도

구식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100년 된 마을

무조건 부수고 모두 새로 짓는 개발 방식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경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06년부터 도시재생 연구를

시작해 도시재생법이 2013년 4월 30일 제정되었고, 서울시도





2014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구식 재개발 방식은 여전히다. 서울에 뉴타운이 200여 개 해제되었지만 아직 300여 곳이 넘는 곳에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져 분쟁 중이다.

구식 재개발은 100년 넘는 역사적 마을 옥바라지 골목도 비껴가지 않았다. 서대문형무소 앞 무악재 2지구는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져 있다. 서대문형무소는 본디 일제강점기에 독립 투사나 항일 세력을 가두려고 만든 감옥으로, 김구·김좌진·손병희·유관순 등이 투옥되었으며, 4·19혁명과 5·16군사정변 등 많은 시국사범이, 군부독재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가들이 수감되었다. 수용수들의 밥이며 옷가지를 챙겨주기 위해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여관이니 식당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옥바라지 골목이 형성되었다.

1963년부터 1988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장기수 생활을 한 박인수(92세, 가명)선생의 부인 김수영(83세, 가명) 씨는 치마바위에 올라 남편이 수감된 서대문형무소를 바라보던 때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된 남편을 기다리며 김수영 씨는 20년 넘게 옥바라지를 했고, 서대문형무소 앞 옥바라지 골목을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했다. 감옥에 갇힌 누군가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로 치마바위 앞은 늘 붐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초를 하도 태워 바위가 거무죽죽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리슨투더시티'가 가장 주목한 기억은 바로 이 마을에 36년째 살고 있는 최은아(50) 씨의 평범하기 그지 없는 기억이다. 초등학교 때 이사 온 이후로 이 골목에서 자라고 결혼해 자신의 아이까지 같은 집에서 키우고 있다. 어릴 적 여관이 많아서 너무 창피하기도 했던 이 마을, 좁은

계단과 골목이 있는 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 "늙아도 문화가 있는 동네에서 살고 싶어요. 구불구불한 골목이며 100년 넘은 집들이 문화가 아닌가요?" 자신이 성장한 곳의 기억은 독립투사의 가족의, 민주화 열사 가족의 옥바라지에 대한 역사와 기록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

기억은 구체적인 장치 없이도 유지되지 않는다

역사학자 후지이 다케시는 "기억은 구체적인 장치 없이도 유지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 사람들이 요즘 복고니 골목에 열광하는 것은 인간이 기억으로부터 심리적, 존재적 안정을 얻기 때문이다. 아파트로 뒤덮인 서울에 서울의 역사를 기억할 장소는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무악 2구역은 10층 아파트 달랑 네 동 짓는 작은 개발 사업이다. 아파트 네 동과 옥바라지 골목을 맞바꾸는 건 아무리 봐도 밀지는 장사다.

아직 주민들이 살고 있는 무악동은 현재 예비 철거가 진행되었고, 서울시에서 구청에 문화재지표조사 권고를 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서 만든 강제퇴거 금지 조례도 종로구에서는 무시하고 있다. 강제철거를 멈추고 역사 보존과 주민의 권리에 대한 투명한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에서 무엇을 추억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토론한 경험이 거의 없다. 지난 10년, 유구한 역사의 피맛골이 상가로 변하고 동대문운동장이 사라지고 청계천상가가 반토막 났다. 수많은 상인이 가게를 잃었고 재개발로 동네는 사라졌다. 삶과 문화는 직결된다. 자신의 보금자리와 일터에서 지속적으로 쫓겨나는 시민이 과연 문화를 창조하고 영위할 수 있을까?

- 1 골목에는 대서소, 형무소에 면회를 하거나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대신 써주는 가게들이 있었다(2016).
- 2 옥바라지 골목에는 100년 넘는 한옥, 적산가옥, 다수의 여관 건물들이 있었다. 현재 10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강제 철거를 진행중이다(2016).

글·사진 박은선
도시 예술 디자인 창작공동체 리슨투더시티 기획자로, 순수 미술과 도시공학을 전공했다. 도시를 비롯한 공동공간의 개념에 관심이 많으며, 내성천친구들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엠넷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은 방송 기간 연일 화제를 낳으며 인기를 끌었다. 아름다운 10~20대 소녀들이 재능과 노력을 한껏 발휘해 노래와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시청자의 선택을 받아 가수로 데뷔하는 포맷. 여기에는 한국인의 취향과 욕망, 가치는 물론 불공정한 구조까지, 한국 사회의 면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완전체가 나타났다

1년간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 나라는 미국이 아닌 인도다. 흔히 '발리우드(Bollywood, 봄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 영화'로 통칭되는 인도 영화는 관습과 변화라는 서로 다른 가치관의 대립을 다루는 경우가 많으며, 스토리와는 별개로 뮤지컬 형식의 화려한 군무를 보여주기 일쑤다. 이러한 특성은 영화를 대하는 인도 사람들의 태도에서 기인한다. 인도인들은 영화에서 단순한 유희만이 아니라 고단한 현실을 위무하는 치유와 안식까지 함께 얻길 바란다. 말하자면 그들은 3시간이라는 비교적 긴 러닝타임 동안 인생의 희로애락을 한꺼번에 '체감'하길 원하는 것이다. 이런 인도인들의 태도는 발리우드 영화를 굉장히 이질적인 장르로 만들어냈다. 덕분에 오늘날 발리우드 영화는 인도인들의 가치관을 오롯이 담아낸 문화로 평가받는다.

발리우드 영화가 일정 부분 인도인의 속성을 대변한다면,

한국인의 특성은 급변하는 방송에서 읽어낼 수 있다. 한동안 갖가지 오디션 프로그램이 각광받더니 '국방' '먹방'이 바통을 이어받았고, 최근에는 인테리어를 다루는 '집방'이 점차 떠오르는 추세다.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 예전만은 못하지만 무한 경쟁 사회의 일면을 반영하는 양 여전히 다양한 방식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또한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뜨거운 프로그램은 단연 엠넷(Mnet)의 <프로듀스 101>이다. <프로듀스 101>은 연예기획사의 아이돌 지망 연습생 101명이 경연을 벌여 최종 11명을 선발, 국민 걸그룹을 구성하겠다는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동안 주춤했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불씨를 되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과거 <슈퍼스타K>(Mnet)나 <K팝스타>(SBS) 등의 인기 견줄 만한 화제의 프로그램으로 떠올랐다. 실제로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오디션 프로그램의 집약체, 나아가 완전체를 자처하듯 한국인이 좋아하는 요소는 모두 끌어담은 것처럼 보일 정도다. 발리우드 영화가 인도인의 특성을 대변하는 문화라면, <프로듀스 101>은 오늘날 한국과 한국인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

한국인이 열광하는 요소가 총망라된 세계

<프로듀스 101>이 기존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우선 참가자들의 면면에서 찾을 수 있다. 기존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대부분 아마추어 음악인이었던 것과 달리 이들은 이미 연예기획사에 소속돼 있는 '준(準)연예인'이다(물론 개

중에는 소속사가 없는 개인 연습생도 있다). 참가자 모두가 아이돌 그룹이라는 비교적 협소하고도 분명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도 특별하게 작용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음악적 자질만이 아니라 춤과 외모 또한 이들이 갖춰야 할 중대한 덕목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프로듀스 101>에는 심사위원이 없다. 오로지 시청자들의 투표만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 참가자들은 매번 주어진 미션(대부분 합동 공연으로 이루어진다)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미션이 완료되면 지금까지의 득표 수에 따라 정해진 수만큼 탈락한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는 만큼 <프로듀스 101>에는 인기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요소가 모두 담겨 있다. 주어진 미션을 완벽히 수행하는 실력자들의 뛰어난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자극함으로써 하모니와 불협화음의 재미를 동시에 유발한다. 자연히 10대, 20대 초중반의 어린 여성 참가자들은 극한의 압박감에 시달리며 이를 슬기롭게 헤쳐가거나 혹은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이다. 제작진은 시청자로 하여금 참가자에게 훨씬 입입하기 쉬운 구조를 취하며 이 과정을 더욱 면밀히 보여준다. 마치 이겨내든 무너지든 어쨌든 재미있을 거라고 말하는 듯하다. 게다가 평가의 절대 기준이던 심사위원을 아예 배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게임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풍긴다. 그동안 정직한 게임에 목말랐던 시청자들은 외모나 나이 같은 조건들을 배제한 채 오로지 개인의 역량으로 승패를 가른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환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눈물의 드라마 역시 빠질 수 없다. 심지어 <프로듀스 101>에서는 거의 1분에 한 번씩 울음이 터져 나온다. 소녀들은 기뻐서 울고, 슬퍼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서러워서 울며, 안타까워서 운다. 여기에 더해 참가자 전원을 아이돌을 지망하는 어리고 예쁜 여자들로 구성해 지금까지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플러스 알파'까지 갖췄다. 마침내 외모지상주의마저 아무런 저항 없이 용인되는 세계가 완성된 것이다.

공정함이란 없다, 한국 사회가 그렇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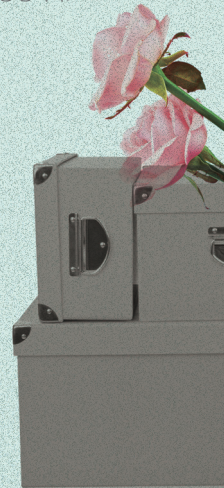
단지 이런 점만이 한국인의 습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합집산을 통해 다양한 미션을 준비하는 사이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시청자에게 평가받는다. 심사위원을 완전히 배제한 결과 춤과 노래 실력만이 아니라 성격이나 인품마저 어느덧 당연하다는 듯 심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를 장려하고자 제작진은 '몰카'를 통해 이를 더더욱 충실히 보여준다. 정치인에게나 적용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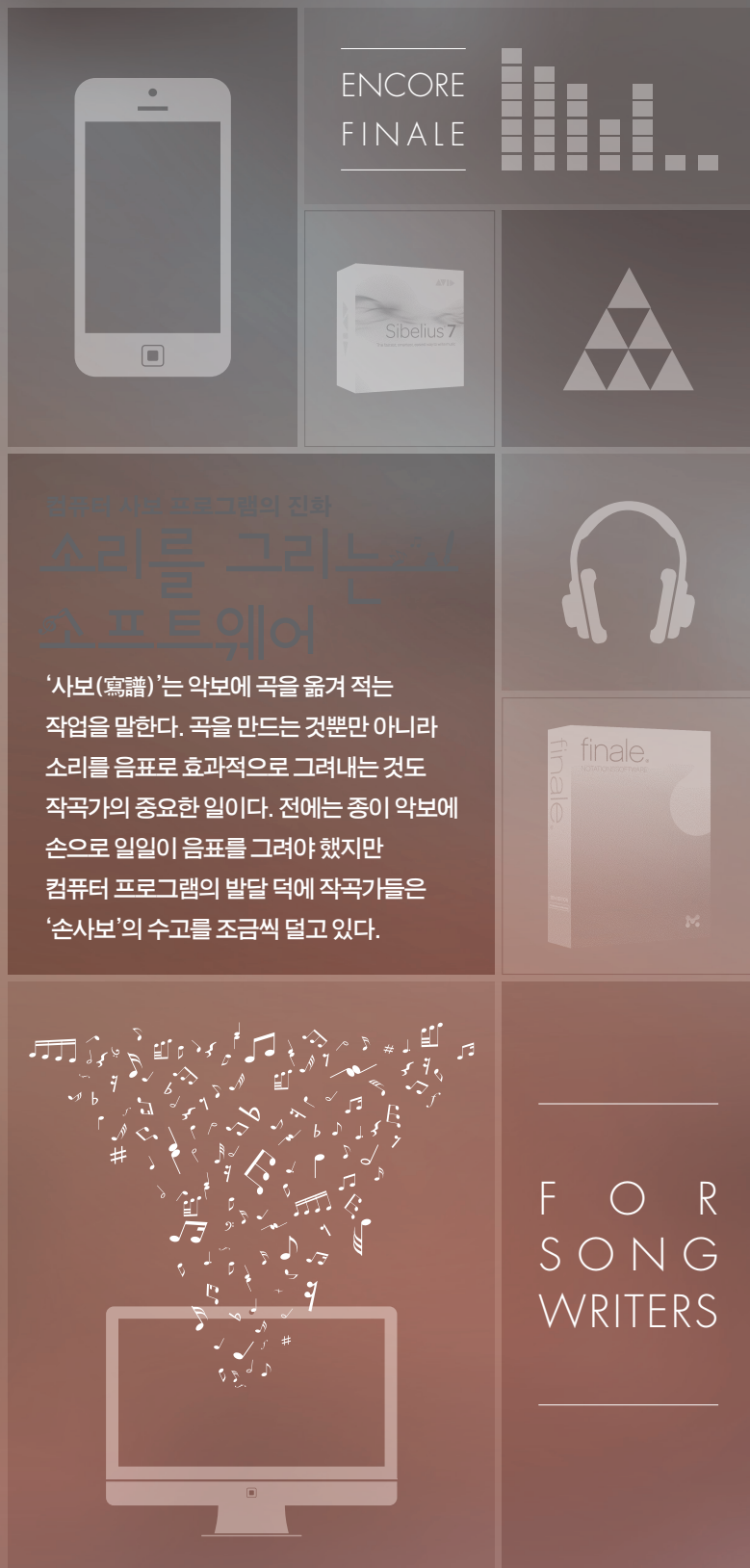


어야 할 잣대를 고작 연예인에게 요구하는 우리네 특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또한 가장 공정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모양새와는 달리 카메라에 비치는 횡수나 다루는 방식도 참가자마다 천차만별이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을 통해 본의 아니게 비판 여론에 휩쓸린 연습생이 있는가 하면, 누가 봐도 실력은 모자라지만 적당한 성장 드라마로 포장해 월등한 인기를 누리는 참가자도 있다. 스포츠가 아닌 이상 이 정도의 불공정은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카메라에 비칠 기회조차 별로 없었던 몇몇은 실력을 보여주기도 전에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마치 연줄이나 '뺨', 혹은 운이 곧 실력이라는 한국 사회의 면면을 그대로 투사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이 밖에도 <프로듀스 101>은 참가자들의 출연료를 '0원'으로 못 박았을 뿐 아니라 방송 후 어떠한 사유로도 민·형사상 법적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계약서로도 구설에 올랐다. 이런 불공정 계약을 감수하고도 소녀들은 모험에 임했다. 아니, 임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 몇 년 더 연습해야 데뷔할 수 있을지, 데뷔한다 해도 지금 같은 아이돌 포화 시장에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이나 할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이 기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이유 때문이다. 그만큼 이들은 절박하다. 그렇게 힘 있는 자들은 절박한 이들이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관장하며 돈을 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재미와 위안을 얻는다. 예쁘고 재능 있는 소녀들의 노력과 성장, 승리를 지켜보는 것은 그만큼 즐거운 일이니까. <프로듀스 101>이야말로 오늘날 한국 사회의 명암을 모두 담아낸 참으로 멋진 우화다.

글
강상준
<DVD2.0> <FILM2.0>
<IMBC> <BRUT> 등의
매체에서 줄곧 기자로
활동하면서 영화, 만화,
장르소설, 방송 등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글을 쓰며 먹고살았다.
<위대한 망가>를 썼고,
<매거진 컬처>
<젊은 목수들>을
공저했으며, <공포영화
서바이벌 핸드북>을
번역했고, <좀비사전>
<탐정사전>을 기획,
편집했다.
현재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겸
프리랜스 편집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일류의 사보 프로그램의 진화

소리를 그리는 소프트웨어

‘사보(寫譜)’는 악보에 곡을 옮겨 적는 작업을 말한다. 곡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음표로 효과적으로 그려내는 것도 작곡가의 중요한 일이다. 전에는 종이 악보에 손으로 일일이 음표를 그려야 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의 발달 덕에 작곡가들은 ‘손사보’의 수고를 조금씩 덜고 있다.

처음으로 작곡을 한 것이 중학교 1학년 때였다. 피아노를 연습하다가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참 지루하고 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이미 있는 것 말고 뭔가 새로운 곡을 지어서 친다면 더 재미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짧은 피아노곡을 작곡했는데, 문제는 악보로 그리는 작업이었다. 음악 시간에 간단하게 배우기는 했지만, 악보를 읽는 것만 많이 했지, 쓰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다. 결국 곡을 쓰는 것보다는 악보를 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이후에 곡을 쓰지 않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를 시작하면서 다시 쓰게 되었다. 음악을 만드는 것 자체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음표를 그리는 작업이 고되고 힘들어서 작곡이 꺼려진 것이다. 결국 자신이 생각해낸 소리들을 음표로 효과적으로 그려내는 것 또한 작곡가로서 갖춰야 할 능력이었던 것이다.

손사보의 고단함을 덜어준 ‘앙코르’와 ‘피날레’

글을 쓰기 위해선 글자로 적어야 하듯이, 곡을 쓰기 위해선 음표를 그려야 한다. 이 음표 그리는 작업을 ‘사보’라 하는데, 작곡과 대학 입시를 치르는 수험생 대부분은 손으로 사보를 깨끗하게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손에 굳은살이 생길 정도로 사보를 많이 하게 되고, 보기 좋게 음들을 나열해가며 예쁘게 음표를 그리려고 노력하면서 틈틈이 연필을 꺾고 있다 보면, 내가 치르는 입시가 음대인지 미대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 사보 작업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입학과 동시에 컴퓨터로 사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다. 지금은 많은 음대생이 다룰 줄 알지만 당시만 해도 손사보를 하는 사람과 컴퓨터 사보를 하는 사람이 비슷하게 공존했고, 심지어 선배들 사이에선 과연 컴퓨터로 사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으로 사보했을 경우, 각자의 필체가 고스란히 악보에 배어 나오고 작곡가의 개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록 번거롭더라도 더욱 아름다운 결과물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손사보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이는 마치 소설가에게 직접 글을 손으로 써서 출판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시인 정도면 모르겠지만, 장편소설을 쓰는 소설가에게겐 무리한 요구 아닌가. 음악도 간단한 피아노 소품이라면 손사보를 할 만하겠지만, 악기 수십 개가 나오는 교향곡을 손사보 하려면 손가락에 관절염이 생기고 시력이 급격히 나빠질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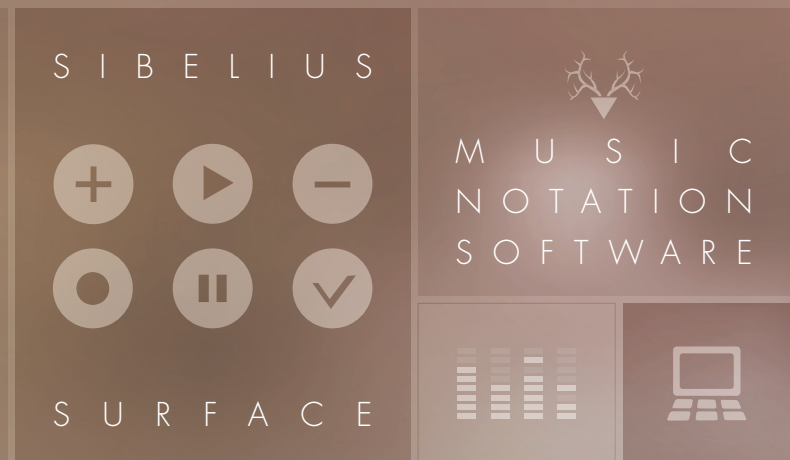
귀찮고 번거로운 일은 질색하는 필자로서는 컴퓨터 사보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고, 하루빨리 이를 익혀서 손사보에서 해방되는 날만을 고대했다. 이때 당시 처음 접한 사보 프로그램은 ‘피날레(Finale) 97’이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하고 번거로웠지만, 단지 음표 모양을 일정하게 프린트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감사할 지경이었다.

당시에 학생들 사이에서 쓰이던 프로그램으로는 ‘앙코르(Encore)’와 ‘피날레’ 두 가지가 있었다. 앙코르는 배우기 간편한 대신 기능에 한계가 있었고, 피날레는 표현 가능성은 다양하지만 배우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다. 대체로 현대음악까지 사보를 해야 하는 작곡과 학생들의 경우 결국 피날레를 사용해야 하는 환경이었지만, 한번 앙코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갈아타기가 여간 어려운데 아니었다. 다행히 필자는 신입생 때 피날레 사보 아르바이트를 구했던 만큼, 빠른 시간 내에 피날레를 익혀야만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어서, 이후에 곡을 쓸 때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난 꿈의 프로그램 ‘시벨리우스’

피날레로 열심히 사보하던 대학 시절을 몇 년 보내고 슬슬 졸업을 준비할 무렵, 피날레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편하고 기능적으로 월등한 사보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벨리우스(Sibelius)’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인데, 여기에는 피날레의 번거로운 점들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피날레의 경우 입력하는 내용에 따라 매번 툴 바에서 해당 내용을 클릭해야 했다. 예를 들어 음표를 입력하다가 쉼여림을 입력하려면 마치 워드에서 글씨를 쓰다가 표를 삽입하듯 마우스로 해당 툴을 클릭한 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피날레와 달리 시벨리우스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단축키로 돼 있어서 마우스 쓸 일이 훨씬 적었다. 요약하면, 시벨리우스는 컴퓨터가 아닌, 실제 종이에 악보를 그리는 환경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당장 이 꿈의 프로그램을 구해서 사용해보고 싶었으나, 피날레와는 달리 엄청난 고가인 데다, 음대에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어둠의 경로조차 전무해 도저히 학생의 처지로서는 구매해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막연한 동경과 궁금함만을 간직한 채 또 몇 년이 흘러 유학길에 올랐는데, 그곳에서도 피날레와 시벨리우스의 우열을 가리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피날레를 사용하다 시벨리우스로 갈아탄 사람들의 열정적인 시벨리우스 예찬



을 들어보면 당장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현대음악 악보의 다양한 특수 주법을 무궁무진하게 입력할 수 있는 것으로 피날레의 다양성과 유연함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람들의 주장도 들려왔다. 그러다가 작곡 콩쿠르에 입상해 시벨리우스 프로그램을 부상으로 받게 되었다. 그길로 달려와 같이 들어 있던 매뉴얼 책과 노트북을 들고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 내내 프로그램 익히기에 전념했다.

일단 시벨리우스는 ‘갈아타기’라는 행위가 별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익히기 쉬웠다. 몇몇 단축키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 것만 헛갈리지 않으면 피날레를 오래 써온 사람도 큰 무리 없이 소화가 가능했다. 그리고 일단 입력 속도와 효율이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높았다. 그동안 내가 왜 그토록 피날레로 사보하며 시간을 낭비해왔나 싶을 정도였다.

작곡과 사보가 바로 가능할 정도로 발달한 기술

요즘은 연주자를 위해 종이 악보 대신 아이패드로 시벨리우스나 피날레 파일을 열어 악보를 보고 넘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상용화되었다. 얼마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스태프 패드(Staff Pad)’를 개발해 아이패드와 같은 터치 화면에 악보를 디지털 펜으로 그리면 바로 인식해 사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시벨리우스보다 훨씬 더 진일보한 기술인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Windows10이 깔려 있는 ‘Surface’라는 태블릿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보 프로그램 하나만을 위해 태블릿 PC를 사는 것은 참 낭비겠지만, 어쨌든 강렬한 구매욕이 샘솟는다. 이것만 있으면 요즘처럼 바쁜 날, 지하철에서도 쉽게 곡을 쓰고 바로 사보까지 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글
신지수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마친 후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대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즐긴다.

홈페이지
www.jeesooshin.com

블로그
jagto.tistory.com

전형을 비껴 시인의 시간을
구현한 건축, 운동주문학관

반 노 오 스 래 텔 된 지 어 장 의 소

건축에서 시간을 담는 일은 중요하다.
서울의 건축에 특징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 도시가 쌓아온 시간과 이야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운동주문학관은 시인의 연고와 직접 닿은 곳이
아님에도 그의 시간과 시의 의미를 잘 살려낸
공간이다. 기와나 돌담을 엮은 식의
'만들어진 노스텔지어'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간 시간의 흔적을 드러내는
건축으로 공간의 여운이 길어졌다.

노스텔지어는 언제부터 현대의 지성들에게는 재미없는 단어가 되었을까? 복고, 빈티지의 추종 등등 딱 봐도 신기한 정도에서만 그치며, 지적인 호기심을 주지 못하는 감성의 것들이다. 1세기 전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아돌프 로스는 '지역의 장인이 만든 수 술이 달린 구두는 모차르트도 듣지 않고 라틴어도 할 수 없는 일 개 촌부의 작업이므로 노력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자신 같은 지식인들은 그런 노스텔지어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했다. 지금 생각하니 제일 명쾌한 답이 아닌가 한다. 노스텔지어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식인의 작업은 개인의 기록만이 아닌, 사회에 의미 있는 정신을 내놓아야 하는 사명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인간사의 시간적 흐름에 무관한 작업을 하기도 무책임하다. 새로운 실험이든, 노스텔지어에 반하는 작업이든 건조 환경의 형성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의 연속성을 새로운 어휘로 드러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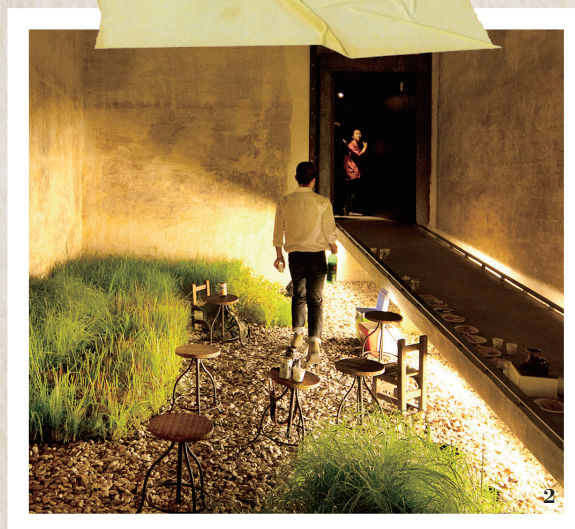
건축이 시간을 드러내는 몇 가지 방법

1990년대의 호황과 개발에 힘입어 빨리빨리 지은 근생 건물들의 짧은 시간이 담긴 건축 표면에 염증 난 건축가 중, 현재 서울시 총괄건축가인 승효상은 코르텐(Corten Steel)이라는 녹슨 철로 시간성에 대해 주장했다. 재료 그 자체에 생성과 풍화의 순간을 담고 있는 표면으로부터, 현대 물질문명의 타락을 꾸짖는 메시지를 만들어냈다. 시간이 윤리인 셈이었다. 무표정하게 칠해지지 않은 풍화된 철판이 타락하지 않은 것이었다. 다다이즘 작업에서, 일상에서 발견된 사물(Found Object)이 예술에 대한 저항이었던 것처럼, 철판 한 장이 윤리의 상징이었다. 김해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의 병풍 같은 벽에도 코르텐 강판이 둘러쳐져 있다. 그리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은 소박한 저항처럼 보인다. 우리네 삶과는 다른 풍화된 듯 보이는 철판은 비유를 해본다면 부뚜막에 걸린 숯단자와 같은 친근감일까? 노스텔지어와는 다른 추상이 들어가 있다.

이와 반대로 노스텔지어를 위해서는 한옥, 돌담, 처마 등의 옛 요소들이 되찾아졌다. 별 뜻 없어 보이는 전근대적 기와지붕 풍경의 반복이 시간성을 담보하는 틀이 되었다. 대량생산과 기계 맞춤 생산이 가능한 현대에서 노스텔지어는 '그때 그랬지' 하는 편한 느낌을 자아낸다. 빈티지나 혼성의 시간, 멀쩡한 나무를 불에 그을려 만드는 빈티지 가구와 인테리어의 코드도 다를 바 없다. 오래된 사진첩의 한 페이지처럼 도시에는 이런 구석도 필요하게 되었다. 현재를 잠시 잊기 위한 도구처럼, 마치 여행을 온 것처럼 현실을 피해 있는 공간인 것이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필요한 지점이다.

동주의 시간을 오롯이 전하는 허구의 공간

운동주문학관은 이야기가 교차하는 곳이다. 서울성곽의 복소문, 현재 창원의 즈음에 위치해, 성곽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중에 내려가다 문학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내가 방금 지나온 문학관을 '시인의 언덕'에 올라가 다시 한번 내려다보게 된다. 근처의 창원의 문은 광해군을 축출하려는 인조반정의 세력이 문을 박차고 궁으로 진격한 길이며, 또한 김신조 일당이 넘어온 길이 흰하 보이는 곳으로 600년 서울의 시간을 목도할 수 있는 장소다. 지금은 성곽을 둘러가는 시민의 발길에 복악산 돌들이 닳고 닳아 미끄러운 알갱이가 된 길이지만, 시인의 고향·동무 생각, 친지, 동물, 곤충, 들꽃, 꽃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는 곳이다. 마치 오래된 정원처럼 시인이 먼저인지 집이 먼저인지, 시인의 시는 일제강점기



에 쓰여졌지만 그 음성은 지금도 맑게 들리고, 현대인의 감성을 터뜨리는 반노스텔지어적인 현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 집도 시간이 지나면 시인처럼 점점 더 소박해져서 어느 시기에 지어진 것인지 알 수 없을 듯하다.

현재 이 문학관은 영화감독, 시인, 건축가, 사진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에게 운동주의 정신을 공간으로 승화한 수작으로 여겨지고 있다. 건축가 이소진은 1차 설계 완결 후 현장에서 발견하게 된 가압장을 보고 대지의 이야기를 증폭시킬 수 있는 보석을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 설계는 전면 바뀌게 되고 줄어든 예산 덕에 전시 기법 또한 건축 공간과 일체화해 설계됐다. 물탱크의 바닥에 맞추어 관람자가 진입하도록 해 마치 땅에 묻힌 감옥의 느낌을 형성하고 시인이 체험한 억울함, 답답함을 느끼게 한다. 이곳은 현상이 아닌 허구의 공간이지만 그가 학생 시절 자주 올랐던 시인의 언덕에 가까운 곳에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무거운 문이 닫히면 시작되는 동주의 아픈 시간들, 어려운 시절에 시인의 꿈을 꾸는 무기력함에 대한 참담함, 그의 언어는 공간으로 살아남아 아웅다웅 싸움이 심한 도심을 한발 떨어져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려다보게 한다. 싸우지들 말게나, 아프지 말게나, 우리 같은 하늘을 지붕 삼아 꽃과 나무와 물과 새들과 이 도시를 청초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노스텔지어를 정신으로 승화시킨 시인의 시구를 떠올리게 하는 이 문학관 같은 공간이 우리에게 정말 많이, 길토끼를 돌아서면, 아니면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곱씹어볼 만큼 필요하다.

- 1
운동주문학관
제3전시실
'달린 우물'은 시인의 후쿠오카 감옥시절에서 모티브를 얻어 설계한 공간이다. 원래 있던 물탱크를 원형 그대로 살려 시인이 느꼈을 억울함과 답답함을 관객에게 전한다.
- 2
제2전시실
'달린 우물' (© 진효숙).

글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미국건축사. 저서로 <랜드마크: 도시를 경쟁하다> <파빌리온, 도시에 감정을 채우다> <표면으로 읽는 건축>이 있으며, 서울건축문화제에서 '담박소세노들: 여름건축학교' '한강감정: 한강건축상상전'을 기획했다.

사진 제공
진효숙 건축사진가
종로문화재단



등장인물 만수, 순철, 지영 - 30대, 오래된 동갑내기 친구들
무대 지하실. 그들만의 아지트이자 모임 장소. 무대 가운데 책상이 있고 그 위에 금고가 하나 놓여 있다.

순철, 만수, 지영은 일을 하고 있다. 순철은 영업을, 만수는 농사를, 지영은 사무 일을 하고 있다. 순철은 여기저기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한다. 만수는 쟁기와 낫으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한다. 지영은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면서 커피를 마신다.

이들의 행동은 모두 마임으로 표현된다.

셋은 곧 하던 일을 정리하고 각자 앞에 있는 문을 열고 아지트로 들어온다. 세 사람이 밭을 내딛자마자 전화벨이 울린다.

순철, 만수, 지영 여보세요?

순철 아, 여보. 지금 잠깐 나와 있어. 들들 데가 있어서. 아까 말했잖아. (휴대전화를 멀리하고) 소리 지르지 마. 볼일 보러 나온 거야. 난 왜 맨날 소리부터... 아니라니까!

지영 글썄 저는 모르는 일이라니까요? 왜 우리 오빠가 받은 대출금을 내가 갚냐고요. 난 그 인간 보증 서준 적 없다고 했죠?

만수 예, 의사 선생님. 잘되었다고요? 아, 예 다행이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술비는 제가 곧...

순철 금방 들어가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지영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네요!

만수 끝났습니다.

순철 끊어!

지영 끊어요!

셋은 서로를 인식한다.

순철, 만수, 지영 (과장되게) 안녕!

사이

만수 자, 그럼...

지영 돈부터! 회비부터 모으자고!

지영은 가장 큰 금고를, 순철은 그 속의 다른 금고를, 만수는 마지막 금고를 열고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낸다.

순철 (봉투를 넣으며) 권순철 66번째 납입. 현재까지 납입금 6천 6백만원.

지영 (봉투를 넣으며) 홍지영 66번째 납입. 납입금 동일.

만수 (봉투를 넣으며) 이만수 66번째 납입. 납입금 역시 동일. (공식적인 말투로) 2014년 4월 30일 제 66회 사계 모임. 참가자 권순철, 홍지영, 이만수. 불참자 없음. 총 적립금액 1억 9천 8백만원. 모임 규칙 첫째, 계모임은 매달 마지막 날 진행되고, 금액은 백만 원이다. 둘째, 직계가족의 죽음이 있을 때 당사자에게 모든 갯돈이 돌아간다. 셋째, 갯돈은 삼단금고에 보관되며...

순철 그만 됐어. 다 아는 내용이잖아.

지영 벌써 1억 9천? 다음 달이면 2억대로 진입하는 거야?

만수 그렇게... (상자를 금고 속에 다시 넣는다)

순철 너희는 만약 타게 된다면, 어디다 쓸 거야?

만수 (조용히) 아무 데도, 내겐 소용없는 돈이야.

지영 난 일단 가방을 좀 바꿀 거야. 구찌나... 펜디? 그다음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브랜뉴 신상으로 갈아주고! (눈치 보며) 우리 가족 중 누군가가 죽기를 바라는 건 당연 아닌데, 뭐 혹시 내가 타게 되면 사고 싶은 게 많다는 뜻이야.

순철 하하! 넌 갖고 싶은 것도 많다. 어쩔 땐 부럽기도 해. 돈이 생기면 난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어. 평생 돌아오지 못해도 좋아.

지영 장례식에 보태자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많아질지 누가 알았겠어.

만수 (순철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데?

순철 응? (사이) 몰라. 생각 안 해봤어. 마누라만 없는 곳이면 어디든.

지영 하하! 순철아. 너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해. 그게 솔직한 거다애.

사이

만수 이제 그만 가자. 다음 모임은 5월 31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지영 가족들은 건강하셔? 만수 네네 아버지는? 순철이 너희 부모님은?

순철 응, 뭐 그러저럭. 워낙 정정하신 분들이라.

만수 ...

지영 왜 말이 없니? 아버지는 좀 어떠시냐고?

만수 (중얼대며) 이러려고 시작한 게 아닌데.

지영 뭐라고?

만수 먼저 갈게.

지영 너 숨기는 거 있지?

만수 ... (급히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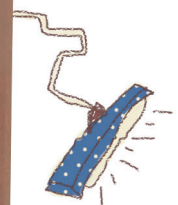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 만수는 조심스레 전화를 받는다.

지영, 순철은 살금살금 다가가 통화를 엿듣는다.

만수 (통화) 예... 여보세요? 지금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영 (소리친다) 안 돼애애애애!

순철 (돌변하여) 제기랄!



만수 너희 왜 그래?

지영 (전화기에 대고) 얘! 이 돌팔이 의사 놈아! 당장 살려놓지 못해!

순철 (전화기에 대고) 네가 그러고도 의사냐! 이런 씨을!

만수 진정해 애들아. 아무 일 없어. 병원에서 아버지가 날 찾으신대.

지영, 순철 (몇 초간 굳어 있다가) 아... 그래애?

만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봐 그런 거야?

순철 (능청 떨며) 그럼! 십년지기의 아버지가 생사의 문턱에 계신데 흥분이 안 되겠어, 처지?

지영 (능청 떨며) 그러엄!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래. 아까는 진짜 눈 돌아가는 줄 알았다니까.

전화벨 소리

순철 (통화) 여보세요. 예, 제가 순자 남편인데요. 병원이요? 예? (화색이 돈다) 순자가 교통사고를요? 위급하다고요? 수술이요? (웃으며) 아이고~ 이걸 어떡하죠? 제가 지금 수중에 돈이...

지영 (휴대폰을 빼앗아) 저기요.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주세요. 수술비 드릴게요. 너희카드 1434-5665-9012-8756 홍지영이요. 할부되죠? 3개월로 해줘요. (끊는다)

순철 (마지 못해) 고마워. 수술비 꽤 나왔을 텐데.

지영 고맙긴. 사람 살리는 게 먼저 아니야? 그게 죽이고 싶은 마누라라고 말이지.

만수 애들아, 난 가봐야 되는데...

순철 잠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영 뭐가? 제일 기뻐하던 게 누구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더라.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줬어야 했는데.

전화벨 소리

지영 (통화) 내가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말랬죠? 응? 지금 돈 안 부치면 당장 죽이겠다고? 얼씨구, 맘대로 하세요. 그놈, 더 이상 우리 가족도 아니에요.

순철 (휴대폰을 빼앗아) 계좌 불러주시죠.

지영 어머 애 봐? 전화기 안 내놔?

순철 너희은행 391-593404-14430 김산와. 2천 5백만 원. (휴대폰으로 입금한다) 입금했습니다. 풀어주시죠.

지영 애 네가 뭘데 참견질이야!

순철 이제 솔직해지자. 난 네 오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지영 그래 고맙네! 네 마누라는 백 살까지 살 거대!

순철 고맙네! 네 오빠는 백오 살까지 사시길!

지영 백년해로가 웬말이냐~ 백 년 하고 오십 년은 더 살았으면!

순철 네 오빠가 네 마누라보다는 명이 길 것 같은데?

지영 네 마누라는 이백 살 먹고도 네 무덤 위에서 잔소리를 해댈걸.

만수 (갑자기 웃음이 터진다) 하하하하하! 순철이는 지영이네 오빠의 건강을 빌고, 지영이는 순철이 마누라의 건강을 빌다... 아름답다, 친구들아. 우리 아버지 건강도 빌고 있는 거지? 근데 있잖나. 여기 이 돈이 나한테 전혀 쓸모없는 돈이야.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잘해드려

야 할 텐데... 수술비는 항상 모자라지, 병원비도 밀리지... 이러다가 돌아가시면... (사이) 뭐 갯돈이야 생기겠지. 그 돈으로 뭘 하지? 2억 원짜리 성대한 장례식을 해드릴까? 관을 아예 금으로 맞출까? (사이) 아니, 그건 아니잖아. 다 쓸데없는 일이야.

긴 사이

순철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지영 그래...야 권순철. 너 아까 말이 좀 심했다?

순철 미안하다. 뻘냐?

만수 가자, 이제, 제발.

순철, 만수, 지영은 차례로 돌아선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이 전과는 다르게 전화벨이 길게 이어진다. 셋은 마치 무언가를 짐작한 듯, 아주 천천히 전화를 받는다.

지영 (화들짝 놀라서) 예? (사이) 아니죠? 거짓말이죠?

순철 (낮이 나가) 아, 네...

만수 (힘겹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 순철, 만수가 아지트로 돌아온다. 셋은 순서대로 금고를 열고 만수가 상자를 꺼낸다. 말없이 각자의 지분을 손에 쥔다. 그동안 부어왔던 자신들의 돈이다. 돈 봉투를 쥔 채로 몇 초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곤 원래 일하던 자리로 돌아간다. 첫 장면처럼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자신들의 두 손에 쥐여진 봉투들이 눈에 보인다. 셋은 하늘을 향해 봉투를 내던진다. 하얀 봉투들이, 그들의 돈이, 욕망과 욕심이 허공에 휘날린다.

세 친구는 다시 일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 얼굴엔 생기가 없고 몸은 축 처져 있다.



작가소개

장재원. 1990년 1월 11일 출생. 인동 장씨 36대손. 재삼 재·옴 원. 과거 선비였던 친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 고시를 봐야 할 운명이었으나 연극판에 뛰어들면서 벌써 고사를 지내야 할 판. 태어난 지 11일 만에 삼자합당을 겪고 좌절.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을 천명한 해에 태어남. 약 24년 후 윤종빈 감독의 영화를 보고서야 태어난 해의 분위기를 감지함. 당시 외국에선 독일이 통일을 이룩했고, 러시아의 전설적인 록 가수 빅토르 치가 의문사로 죽고, 전설적인 러시아 골키퍼 아신이 죽음. 러시아어와 문학을 전공하고 연극 동아리에서 여기저기 기웃대다가 대학로로 뛰어듦. 1년 만에 지쳐서 직업을 찾고자 하나, 잘 될지는 미지수. 직업을 찾아도 연극을 계속할 것은 확실함. 누구냐처럼 연극계의 자유분방함을 꿈꿨으나 졸업 후 1년간 '현시창'을 느낀. 사람들을 하나하나 때려놓으면 전부가 너무 좋는데 모아놓으면 왜 이렇게 되는지 심히 고민 중. 이번 세기 안에 한국의 나이제가 사라졌으면 하고 기도하고 또 절하고 있는 중. 모든 종류의 블랙코미디를 존경하며 비논리적인 것을 좋아함.

소개글 오세혁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인> 편집위원

<10분 희곡 릴레이>는 젊은 작가 혹은 지망생들의 재기발랄한 10분 단막극입니다.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인에 가시면 더 많은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webzine.e-stc.or.kr)

www.sfac.or.kr



거리예술 시즌제

서울의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자! 생활 속 공간인 공원과 도심에서 4월~6월 주말마다 거리예술 공연이 펼쳐진다. 창작중심 단지, 프로젝트 루미너리 등 14팀의 다양한 거리예술을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선유도공원,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DDP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및 장소

4월 2일(토)~3일(일) 선유도공원
4월 9일(토)~10일(일) 서울숲
4월 16일(토)~17일(일) 어린이대공원
4월 23일(토)~24일(일)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000

서울무용센터 개관 행사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홍은예술 창작센터가 긴 리모델링을 끝내고 서울무용센터로 거듭났다. 새로운 모습의 서울무용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개관 행사가 펼쳐진다.

일시 4월 8일(금) 오후 5시~7시

장소 서울무용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000

- 시민청·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 관악어린이 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성북예술창작센터
- 금천예술공장
- 연화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케이드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제휴협력실 문화지원기증센터
- 공공예술센터 축제지원센터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기타 문화행사 추천

MON

4

- 2016 서울연극제 개막식(~5.8)

11

- **PLAY-UP 아카데미-재기장**
〈인간의 감각과 배우의 몸〉(~4.12)
- 정원영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 성신 피아노 소사이어티 창단연주회

18

- **2016 서울메세나 Partners' Day**
- 2016 서울연극제 젊은연출가전 〈무라〉(~4.20)

25

- **이원국의 월요일레 이야기**(~12.26)

TUE

1

5

- 2016 아르스노바 2: 관현악 콘서트
- 2016 서울연극제 젊은연출가전 〈다락방〉(~4.7)
- 2016 서울연극제 젊은연출가전 〈갈매기B〉
- 음악극 〈기억하지 말랬잖아〉
-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프로젝트 〈도시괴담〉

12

- **예술로 놀이터 〈무엇일까?: 흔들고 떠드는 사물들〉**(~5.28)
- 두산인문극장 2016: 모험:연극 〈게임〉(~5.15)
- 2016 서울연극제 젊은연출가전 〈메리크리스마스〉(~4.12)
- 연극 〈피에타〉(~4.17)

19

- 오페라 마티네 〈까발레리아 루스띠까나〉

26

- 피아노 듀오 '아말' 내한 공연
- SAC 브루크너 시리즈 2014~2016

WED

2

6

- 국립국악원 4월 수요일출전
- 22회 듀오 스타콘서트
- 연극 〈국을 잊었습니다〉(~4.24)

13

- 두산인문극장 2016 모험: 전시 〈삼키기 힘든 Unswallowable〉

20

- **예술로 놀이터 〈건축창의예술〉**(~5.25)
- 명창 안숙선의 명연주
- 제90회 이탈리아 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27

-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 토크쇼 '내 인생의 만화'**
- 스트라디바리 콰르텟 & 허승연
- 국립극장 정오의 음악회 4월

THU	FRI	SAT	SUN
3	1	2	3
	●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12.31) ● 〈모네, 빛을 그리다〉intro展(~6.30) ● 2016 서울댄스프로젝트 〈춤바람 커뮤니티〉모집(~5.9) ●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4.3) ● 국립현대무용단 〈이미아직〉(~4.2) ● 연극 〈리처드 3세 理查三世〉(~4.3)	● 거리예술 시즌제-선유도공원(~4.2) ● 2016 상반기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 우리도 작가_불학기 ● 어린이국악공연 〈놀자, 놀자, 놀자-호랑이와 꽃감〉 ● 김희정 첼발로 독주회-Conjunction	● 로버트 맥더피의 〈새로운 세계〉 ● 316앙상블 정기연주회
7	8	9	10
● 연극 〈귀.국.전-불행〉(~4.10) ● 남산골기화공연 〈국악 생존가〉(~4.24) ● 페스티벌 오브 피아니스트- 테오 게오르규 Piano ● 현대무용단-탐 제21회 레파토리공연 ● 2016 혜화동1번지 6기 동인 봄페스티벌- 심시티 〈섹스 인 더 시티〉(~4.17)	● 서울무용센터 개관 행사 ● 뮤지컬 〈아미데우스〉(~4.24) ● 국립오페라단 〈라트라비아타〉(~4.9) ● 오페라 〈투란도트〉(~4.10) ● 연극 〈흑흑흑 회회회〉(~4.24) ● 2016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 〈햄릿아비〉(~4.17)	● 창작재움공(空)방 정규프로그램 〈업사이클링공예체험〉(~5.28) ● 거리예술 시즌제-서울숲(~4.10) ● 숨쉬는 안전한 서울 展(~6.30) ● 남산골레퍼토리-산조 마스터클래스(~4.28) ● 2016 서울연극제 젊은연출가전 〈개미집〉(~4.10) ● 2016 서울연극제 젊은연출가전(정의)(~4.10)	● 2016 성북창작센터 갤러리_맺음 후원 전시-언니모자 〈평범한 폭력〉전(~4.30) ● 2016 예술가곡여행- 헬무트도이치 & 임선혜
14	15	16	17
● 연극 〈귀.국.전-그녀를 말해요〉(~4.17) ● SAC CUBE 2016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5.8) ● 한화생명과 함께하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 PLAY-UP 아카데미-고재경 〈음악임의 경제적 효율성〉 ● 예술로 놀이터 〈잠자리의 눈으로 바라보기〉(~5.25) ● 수지오페라단 오페라 〈가면무도회〉(~4.17) ● 마탄의 사수(~4.24)	● 거리예술 시즌제-어린이대공원(~4.17) ● 2016 상반기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 교육프로그램 〈은빛 피터팬 이야기〉(~4.30) ● 세종예술시장 '소소' ● 국립극장 레퍼토리 〈향연〉 ● 2016 서울연극제 젊은연출가전 〈올 아비 정초부〉(~4.17)	● 2016 교향악 축제-인천시립교향악단 ● 스트라디움 라이브&토크 〈신지혜의 시네마뮤직 4화〉
21	22	23	24
● 연극 〈귀.국.전-commercial, definitely 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4.24) ● 금호아트홀 앙상블 시리즈- 시마노프스키 콰르텟 ● 2016 교향악축제-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 2016 혜화동1번지 6기 동인 봄페스티벌- 심시티 〈멋진 신세계〉(~5.1)	● 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 1주년 행사 ● 뮤지컬 〈마타하리〉(~6.12) ● 가족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난쟁이〉(~5.22) ● 2016 교향악축제-서울시립교향악단 ● 숨가 있는 카페_최동호	● 거리예술 시즌제-DDP(~4.24) ● 2016년 사랑방위크숍 〈도시사진전〉 ● 2016 국립극장 〈완창판소리〉 4월 ● 놀라운 콘서트 Haydn ● 클림트, 베토벤을 만나다	● 인식개선 프로젝트 3회차 ● 이경미 첼로 독주회
28	29	30	
●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DECADE〉(~5.3) ● 세 도시 이야기 '빈'-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 오페라 〈루살카〉(~5.1) ● 국립극장 믹스&초이스 4월	● 세종 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기념공연 〈DECADE〉(~5.3) ● KBS교향악단 제705회 정기연주회 ● 국립발레단 〈세레나데&봄의 제전〉(~4.30)	● 한마음살림장(~5.1) ● 토요일은 청이좋아 ● 가족음악극 〈만만파파 옹피리〉(~5.8)	

01

FRI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시민의 일상에서 사용되던 물건이 모여 서울의 작은 박물관이 만들어집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한 생활유산을 기록하고자 하는 이번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12월 31일(토)

참여방법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클릭 후 '응답하라 2015' 카테고리 등록

문의 fb.com/museumseoul 02-3290-7192~4



국립발레단 <라 바야데르>

무용수의 기량과 연기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발레단의 대표 작품. 유리 그리가로비치 안무의 이번 <라 바야데르>에는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와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의 프리드만 포겔이 무대에 오른다.

일시 ~4월 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2시·7시, 일 오후 2시

장소 예술의 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R석 8만 원, S석 6만 원, A석 4만 원, B석 2만 원, C석 5천 원

문의 kballet.org 02-587-6181



<모네, 빛을 그리다> Intro展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이 미디어와 만나 새롭게 태어났다. 클로드 모네가 웅장하게 그려낸 자연의 풍경으로 건조하고 숨 가쁜 일상 속, 잠시나마 휴식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일시 ~6월 30일(목)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시민청 소리갤러리(B1)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33-7219



연극 <리차드 3세>

중국 대륙의 옷을 입은 셰익스피어 <리차드 3세>가 명동예술극장에 오른다. 중국국가화극원의 중국어 특유의 리듬감과 경극으로 재탄생한 셰익스피어 작품을 왕 시아오잉 연출로 만나보자.

일시 4월 1일(금)~3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장소 명동예술극장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A석 2만 원

문의 ntck.or.kr 1644-2003

활력콘서트

시민예술가들이 선사하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일시 평일 오후 12시·12시 30분, 주말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0057



연극 <어리:이제의 연인>

즉흥 연주와 소리, 원초적인 몸짓으로 양녕대군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담아낸 연주극 <어리>. 기존 연극의 틀을 벗어나 사자의레인 '씻김굿'의 프레임 속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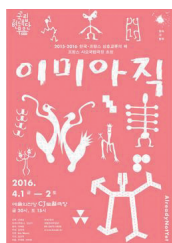
일시 4월 1일(금)~10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오후 4시·7시, 일 오후 4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www.herbritts.kr 0505-300-5117



국립현대무용단 <이미아직>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 초청작품으로 프랑스 사요국립극장에 오를 국립현대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기존에 없던 장면부터 새로운 춤 동작까지 더욱 섬세해진 모습으로 무대에 오른다. 한국 전통 장례문화에 등장하는 '꼭두'를 모티프로 삶과 죽음을 현대적 삶에 비추어 재해석한 작품.

일시 4월 1일(금)~2일(토)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예술의 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kncdc.kr 02-3472-1420

BERNARD AUBERTIN

모노크롬의 대표 작가 베르나르 오베르텐(Bernard Aubertin, 1934~2015)의 국내 첫 개인전. 대표작인 레드 페인팅 시리즈 <Tableau feu>, 조각으로 구성되어 붉은색과 불의 요소를 통해 구축된 오베르텐의 작품 세계를 회고할 수 있다.

일시 ~4월 23일(토), 평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일요일 휴관

장소 통의동 리안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leeahngallery.com 02-730-2243

02

SAT

거리예술 시즌제

서울의 거리에서 예술을 만나자!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을 주제로 4월~6월 주말마다 공원 및 도심에서 진행되는 거리예술 공연 프로그램. 대형 공공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거리예술을 선유도공원, 서울숲, 어린이대공원, DDP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및 장소 4월 2일(토)~3일(일) 선유도공원
4월 9일(토)~10일(일) 서울숲
4월 16일(토)~17일(일) 어린이대공원
4월 23일(토)~24일(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69

04

MON

2016 서울연극제

올해로 37회를 맞이하는 서울연극제가 새롭게 태어났다. 최용훈 예술감독을 중심으로 경연, 초청, 특별 초청의 총 49개 작품을 선보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쟁쟁한 극단들과 실험, 도전이 돋보이는 젊은 연출가들의 다양한 연극을 만날 수 있다.

일시 4월 4일(월)~5월 8일(일) 35일간
장소 남산예술센터,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예그린씨어터, SH아트홀, 동양예술극장 3관, 예술공간 오르다, 예술공간 서울 등
문의 stheater.or.kr 02-765-7500



05

TUE

아르스 노바 2: 관현악 콘서트

스탈린의 분노를 유발하며 작곡가를 위협에 몰아넣었던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에서 발췌한 40여 분 길이의 모음곡이 펼쳐진다. 지휘 크와메 라이언, 첼로 이상엔더스.

일시 4월 5일(화) 오후 8시
장소 LG아트센터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1만 원
문의 sejongpac.or.kr 1588-1210



음악극 <기억하지 말랬잖아>

황두수 연출의 2016년 신작, 음악으로 만나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와 감각적 영상으로 감성을 충전해보자!

일시 4월 5일(화)~5월 1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4시·7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올레홀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1566-5588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프로젝트 <도시괴담>

서울시립미술관(SeMA)과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가 한불수교 130주년을 맞아 기획한 교류 프로젝트.

일시 4월 5일(화)~5월 29일(일) 평일 오전 10시~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전 10시~오후 7시 *월요일 휴관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3층 프로젝트 갤러리
문의 sema.seoul.go.kr 02-2124-8942

06

WED

국립극단 <국물 있사옵니다>

국립극단 '근현대 희곡의 재발견' 네 번째 시리즈. 전도된 가치관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부조리를 풍자와 아이러니로 통렬히 고발했다. 당시 젊은 관객을 열광시켰던 이근삼의 1966년 작, 서충식 연출.

일시 4월 6일(수)~24일(목)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 극장
참가비 전석 3만 원
문의 ntck.or.kr 1644-2003



07

THU

연극 <귀.국.전-불행>

남산예술센터 주제가극전 <귀.국.전>의 첫 번째 작품으로, 남산예술센터의 공간 특성을 살려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했다. 극장 내 동시다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극장 곳곳을 돌아다니거나 스스로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나서야 한다. 김민정 구성 및 연출.

일시 4월 7일(목)~10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남산골기획공연 <국악 생존기>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전통예술단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척박한 21세기 현대사회에서 '국악'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던 단체들의 눈부신 생존 이야기와 그 지혜가 담긴 음악으로 관객들과 공감하고자 한다.

일시 4월 7일(목)~24일(일) 중 5회
장소 남산골한옥마을 서울남산국악당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hanokmaeul.or.kr 02-2261-0512





현대무용단-탐 제21회 레퍼토리공연

1980년대 창단해 36년의 춤 역사를 지닌 현대무용단 탐의 레퍼토리 공연. 2012년 '현대무용단-탐 가을신작무대'에서 초연된 예술감독 조은미의 작품 <길 위에(on the Road)>가 무대에 오른다.

일시 4월 7일(목) 오후 8시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삼성홀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02-3277-2584



연극 <흑흑흑 희희희>

극단 맨세어터의 첫 번째 오리지널 장편 창작극. 최덕문, 이창훈, 우현주, 전미도 배우의 캐스팅으로 '죽음을 대면하는 우리의 자세'에 끈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형제의 밤>의 김봉민 작, 연출.

일시 4월 8일(금)~24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3시, 6시30분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관람료 전석 3만 5천 원
문의 02-3443-2327



서울무용센터 개관 행사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홍은예술창작센터가 긴 리모델링을 끝내고 새롭게 태어났다. 새로운 모습의 서울무용센터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하는 개관 행사로 만나보자.

일시 4월 8일(금) 오후 5시~7시
장소 서울무용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04-0235



숨쉬는 안전한 서울 展

숨 쉬는, 안전한 서울에 관한 기획전시로 서울 레고 모형, 레고 체험판 등과 함께 서울의 옛 사진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일시 4월 9일(토)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시민청 시티갤러리(B1)
관람료 무료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1

국립오페라단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초심자라면 꼭 만나야 할 작품,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 젊은 마에스트로 이병욱과 임형진 연출의 재연출로 만나는 국립오페라단의 대표 오페라.

일시 4월 8일(금)~9일(토)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석 12만 원, R석 10만 원, S석 8만 원, A석 5만 원, B석 3만 원, C석 1만 원
문의 nationalopera.org 1544-2514



남산골레퍼토리-산조 마스터 클래스

산조의 명인 정화영, 이지영의 마스터클래스와 예술가들을 위한 신체 활용의 전문가 Bruce Feltman의 알렉산더 테크닉 특강.

일시 4월 9일(토), 28일(목)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예술가의집 일대
관람료 무료
문의 hanokmaeul.or.kr 02-2261-0511



오페라 <투란도트>

푸치니의 걸작이자 유작인 오페라 <투란도트>. 오페라 역사상 최고의 투란도트라고 추앙받는 프리마돈나, 조반나 카솔라를 만날 수 있다.

일시 4월 8일(금)~10일(일) 금·토 오후 8시, 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25만 원, S석 18만 원, A석 13만 원, B석 8만 원, C석 5만 원, D석 3만 원
문의 sac.or.kr 1544-9373



연극 <검은 옷의 수도사>

안톤 체호프의 초현실적인 소설 <검은 옷의 수도사>를 연극으로 만난다. 초현실적이고 탐미적인 흐름으로 형이상학적 심리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전훈 연출.

일시 4월 9일(토)~매주 토·일 8시 *15세 이상 관람가
장소 아트씨어터 문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02-742-7753



작가 故차범석 선생 10주기 추모 공연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

신구, 손숙 등 연극계 거장들이 무대에 오른다. 제 6회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으로 수많은 작품을 통해 인간애를 보여준 이종환 연출이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시 4월 9일(토)~24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오 3시·6시 30분, 일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4월 9일 6시 30분 1회 공연.

4월 20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관람료 R석 6만 원, S석 4만 원

문의 iseensee.com 02-577-1987

10

SUN

마르쎬@혜화

마르쎬@는 농부와 요리사, 수공예 작가가 함께 만드는 도시형 농부 시장이다. 직접 농사지은 식재료와 요리한 음식, 각종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으며 작은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

일시 4월 10일(일) 오전 11시~오후 4시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예술가의집 일대

관람료 무료

문의 marcheat.net

2016 성북창작센터 갤러리_맺음 후원 전시-

언니모자 〈평범한 폭력〉전

성폭력 생존자들의 원고를 모집해 그 일상성을 탐구한다. 눈에 잘 띄지 않는 '평범한 폭력'이 생존자와 작가들의 눈을 통해 드러나는 과정을 전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시 4월 10일(일)~30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000

11

MON

PLAY-UP 아카데미-재키장

〈인간의 감각과 배우의 몸〉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 연극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연극센터 재교육 프로그램. 강사 재키장과 함께 신경학적 접근을 통한 움직임을 배운다.

일시 4월 11일(월)~12일(화) 오후 1시~6시

장소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룸

관람료 무료

문의 e-stc.or.kr 02-743-9336



12

TUE



두산인문극장 2016 모험: 연극 〈게임〉

마이크 바틀렛(Mike Bartlett)의 최신작으로 하우스 푸어와 자본가가 벌이는 극단적인 생존 게임을 소재로 근미래 현대사회의 양극화로 인한 주거 문제를 말한다. 〈목란언니〉의 전인철 연출.

일시 4월 12일(화)~5월 15일(일)

평일 오후 8시, 토·오 3시·7시, 일 오후 4시

장소 두산아트센터 스페이스111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doosanartcenter.com 02-708-5001

13

WED

두산인문극장 2016 모험:

전시 〈삼키기 힘든 Unswallowable〉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얻기 위해 '모험'을 화두로 이야기할 예정인 '두산인문극장'. 올해의 주제인 '모험'을 리메지희, 박광수, 이혜인, 조혜정&김숙현 작가의 전시로 만날 수 있다.

일시 4월 13일(수)~5월 21일(토)

평일 오전 10시 30분~오후 8시(주말·공휴일 오후 7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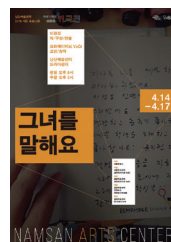
장소 두산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doosanartcenter.com 02-708-5050

14

THU



연극 〈귀.국.전-그녀를 말해요〉

남산예술센터 〈귀.국.전〉 두 번째 작품. 지난해 거대한 사건과 삶의 관계를 다뤘던 〈비포애프터〉의 연장선상으로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엄마'들을 〈그녀를 말해요〉를 통해 만나고자 한다. 이경성 작·구성·연출.

일시 4월 14일(목)~17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SAC CUBE 2016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

작가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대표작으로 20세기 3대 미국 연극에 손꼽히는 <세일즈맨의 죽음>이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다. 4월 20일 수요일에는 '관객과의 대화'가 준비돼 있다.

일시 4월 14일(목)~5월 8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관람료 OP·R석 6만 원, S석 4만 5천 원, A석 3만 원

문의 sac.or.kr 02-580-1300

19
TUE



오페라 마티네 <까발레리아 루스띠까나>

매월 오전 11시 세종 체임버홀에서 만날 수 있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장면. 서울시오페라단의 <까발레리아 루스띠까나>를 이진용 예술총감독의 해설로 쉽게 만나보자.

일시 4월 19일(화) 오전 1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783~6

15
FRI



PLAY-UP 아카데미-고재경

<움직임의 경제적 효율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전문 연극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연극센터 재교육 프로그램. 강사 고재경과 함께 <움직임의 경제적 효율성>을 배운다.

일시 4월 15일(금)~5월 2일(월) 월·수·금 오후 2시~5시 (8회)

장소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룸

관람료 무료

문의 e-stc.or.kr 02-743-9336

20
WED

명창 안숙선의 명연주

국악계의 살아 있는 전설, 명창 안숙선의 공연. 김지애, 배한나, 고수 이태백, 남상일 등도 함께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판소리 <단가 사철가>, <춘향가>와 민요 <육자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시 4월 20일(수) 오후 8시

장소 JCC 아트센터 콘서트홀

관람료 전석 10만 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783~6

16
SAT

세종예술시장 '소소'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젊은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세종문화회관의 예술 시장. 독립출판물, 커뮤니티 아트 퍼포먼스, 사진, 회화, 공예 등 약 100팀이여는 예술 장터를 다양한 공연과 함께 만날 수 있다.

일시 4월 16일(토)~6월 18일(토)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뒤뜰 예술의 정원

관람료 무료

문의 sejongpac.or.kr 02-399-1077

21
THU



연극 <귀.국.전-commercial, definitely-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

남산예술센터 <귀.국.전> 세 번째 작품. 끊임없이 자신을 '상업적'이라고 지칭하며 한국 사회를 과감하고 유머러스하게 폭로한다. 구자혜 작·연출.

일시 4월 21일(목)~24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전석 3만 원

문의 nsartscenter.or.kr 02-758-2150



국립극장 레퍼토리 <향연>

우리의 전통 무용을 동시대적 감각을 살려 세련되게 담아낸 작품 <향연>이 다시 무대에 오른다. '전통의 세계화'를 위한 국립무용단의 대형 프로젝트로 간결한 연출과 다채로운 군무가 돋보이는 작품.

일시 4월 16일(토)~19일(화)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6

금호아트홀 앙상블 시리즈-시마노프스키 콰르텟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청중을 사로잡은 현악사중주단을 금호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다.

일시 4월 21일(목) 오후 8시

장소 금호아트홀

관람료 전석 4만 원

문의 kumhoarthall.com 02-6303-1977

22

FRI

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 1주년 행사

구의취수장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리예술창작센터가 개관 1주년을 맞이했다. 공연과 전시가 함께할 예정.

일시 4월 22일(금) 오후 3시~9시
장소 거리예술창작센터
관람료 무료
문의 ssacc.or.kr 02-3437-0082

시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시가 있는 카페>

시인을 직접 만나 작품과 작품 속 시인의 감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며 4월에는 최동호 시인이 참가한다.

일시 4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세미나실
관람료 무료(사전 예약)
문의 sculture.seoul.go.kr 02-744-8046~7



가족뮤지컬 <마법에 걸린 일곱난쟁이>

"일곱 난쟁이가 원래는 7인의 기사였다"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더해 탄생한 뮤지컬. 작곡가 송시현이 음악 감독으로 참여해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

일시 4월 22일(금) 오후 2시
장소 대한민국예술인센터 세미나실
관람료 무료
문의 sculture.seoul.go.kr 02-744-8046~7

23

SAT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유태평양의 흥부가_미산제>

'국악 신동'으로 잘 알려진 유태평양이 국립극장 완창 판소리 무대에 선다. 재담보다는 서민적인 내용에 중점을 둔 담백한 창법의 미산제 '흥부가'를 선보인다. 고수 조용수, 김태영.

일시 4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KB청소년극장
관람료 전석 2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6



클림트, 베토벤을 만나다

위대한 두 예술가 클림트와 베토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베토벤의 명곡을 들으며 두 천재의 관계를 해설이 있는 콘서트에서 만나보자.

일시 4월 23일(토) 오후 2시
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S-BOX석 3만 5천 원
문의 stompmusic.com 02-2658-3546

26

TUE

천원의행복 시즌2 온침표

<렉처 콘서트_Over the Chamber Music>

세종문화회관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 '천원의 행복'이 10주년을 맞아 '온침표'로 재탄생했다. 4월에는 클래식 공연 <렉처 콘서트_Over the Chamber Music>으로 열리며 신청 기간은 4월 5일 자정부터 7일까지.

일시 4월 26일(화)~27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세종체임버홀
관람료 전석 1,000원(사전 신청)
문의 happy1000.sejongpac.or.kr 02-399-1000

SAC 브루크너 시리즈 2014~2016

2014년부터 시작한 <Great Composer Series 2014~2016 브루크너>가 3년째를 맞이했다. 임헌정이 이끄는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손열음과 함께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을 연주할 예정.

일시 4월 26일(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5만 원, S석 3만 5천 원, S-BOX석 3만 5천 원
문의 sac.or.kr 02-580-1300



스트라디바리 콰르텟&허승연

취리히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음악가들이 모여 세계 실내악 무대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낸 스트라디바리 현악 4중주단의 첫 내한 공연.

일시 4월 26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관람료 R석 5만 원, A석 4만 원
문의 nowonart.kr 02-951-3355

27

WED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 토크쇼 ‘내 인생의 만화’

사회·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분한 생활유산을 기록하고자 하는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의 론칭 행사. 만화애호가 김형규의 진행으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만화가 허영만이 참여하여 서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일시 4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8시 30분

장소 시민청 바스락홀(B2)

관람료 무료

문의 sfac.or.kr 02-3290-7194

**세종체임버홀 개관 10주년 공연 〈Decade〉**

세종문화회관 클래식 전용홀 ‘세종체임버홀’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해 양성원의 체임버스토리를 시작으로 국내 최고의 실내악 앙상블 팀이 바로크 음악부터 현대음악까지 선보일 예정.

일시 4월 28일(목)~5월 3일(화)

평일 오후 7시, 토 오후 5시, 일 오후 3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관람료 R석 5만원, S석 4만원

문의 sejongpac.or.kr 02-399-1624

30

SAT

국립국악관현악단 〈정오의 음악회〉

매달 새로운 음악과 쉽고 친절한 해설, 맛있는 다과가 함께하는 국립극장 국악 브런치 콘서트. 전인평 작곡 ‘실크로드의 노래’를 시작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축제’까지 다양한 우리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일시 4월 27일(수) 오전 11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1만 5천 원, S석 1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6

한마음살림장

시민예술가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선보이고 공유하는 시민 소통 장터. 아가자기한 소품부터 다양한 체험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일시 4월 30일(토)~5월 1일(일) 오후 12시~오후 6시

장소 시민청 시민플라자

문의 seoulcitizenshall.kr 02-739-5817

28

THU

국립오페라단 〈루살카〉

체코의 설화를 바탕으로 드보르작이 작곡한 오페라 〈루살카〉를 국립오페라단의 공연으로 만난다. 예술감독·연출 김학민.

일시 4월 28일(목)~5월 1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관람료 R석 15만 원, S석 12만 원, A석 8만 원, B석 5만 원, C석 3만 원, D석 5천 원

문의 nationalopera.org 02-580-3500

**가족음악극 〈만만파파 용피리〉**

‘만파식적’ 설화가 음악극으로 재탄생했다. 국립국악원이 제작한 어린이 국악극으로 생생한 국악기와 노래, 극이 더해져 무대에 오른다.

일시 4월 30일(토)~5월 8일(일) 평일 오전 11시, 주말 오후 2시

장소 국립국악원 예약당

관람료 S석 3만 원, A석 2만 원

문의 gugak.go.kr 02-580-3300

〈국립극장 믹스&초이스〉

드러머 겸 크리에이터로 활약하는 남궁연의 연출로 이번 4월은 밴드 크라잉넛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일시 4월 28일(목)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ntok.go.kr 02-2280-4114~6

정리 이나래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배우, 연출가, 극작가를 위한

서울연극센터 연극인 교육 프로그램

PLAY-UP

아카데미

2016

정규과정

고재경	움직임의 경제적 효율성 4.15.(금)~5.2.(월) 매주 월-수-금 14~17시 (8회)
김소희	공간을 바꾸는 화술 4.26.(화)~5.26.(목) 매주 화-목 10~13시 (10회)
조만수	의미를 발생시키는 읽기 방식 6.7.(화)~6.30.(목) 매주 화-목 15~18시 (8회)
정영두	중심의 발견 8.23.(화)~9.13.(화) 매주 화-목 10~13시 (8회)
극작가 워크숍	극작 교육 신규 개설 프로그램 6~8월

심화과정

김혜리	음성, 그 섬세함의 확장과 자유로움을 위하여 7.11.(월)~8.5.(금) 매주 월-수-금 10~13시 (12회)
강량원	신체행동으로 설계하는 연기기술 3 — 리허설 기술 8.8.(월)~9.9.(금) 매주 월-수-금 10~13시 (15회)

특별과정

장은주	인간의 감각과 배우의 몸 4.11.(월)~4.12.(화) 월-화 13~18시 (2회)
고선웅	되어지는 말 5.16.(월)~5.19.(목) 월-목 14~16시 (4회)
김신록	시간과 공간과 몸의 연결 — 뷰포인트 7.4.(월)~7.7.(목) 월-목 10~13시 (4회)

교육참가비
무료

프로그램문의
02-743-9336
www.e-stc.or.kr

강의명과 강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과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참가방법 및 모집대상은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에 개별 공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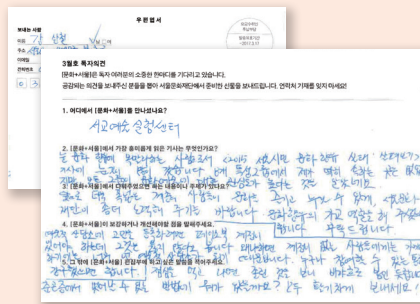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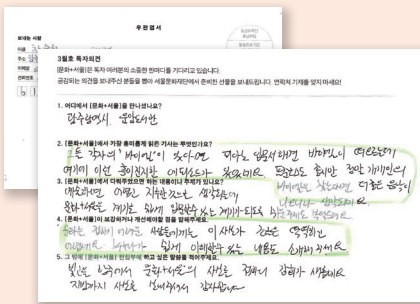
4월~10월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룸

서울연극센터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가 있나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1. 광주광역시, 안암도서관
2. '그들 각자의 '바이엘'이 있다면' 기사. 피아노 입문서 하면 바이엘이 떠오르는데 여기에 이련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표준 코드도 좋지만 정말 개개인의 바이엘을 찾는다면 더 좋은 음악이 나오리라 생각되네요.
3. '예술' 하면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문화+서울]로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쉬운 주제도 부탁드려요.
4.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월간지가 조금은 딱딱하고 어렵네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도 소개해주세요.
5. 빛고를 광주에서 [문화+서울]을 접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지방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수정 님

1. 서교예술실험센터
2. 늘 문화 향유에 목말라하는 사람으로서 '2015 서울 시민 문화 향유 실태 살펴보기' 기사에 눈길이 많이 갑니다. 8개 특성 그룹에서 제가 딱히 속하는 곳은 없었지만 모든 그룹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았어요.
3. 앞으로 더욱 폭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누릴 수 있게, 서울문화재단이 좀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 향유의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4. 예술적 상담소에 고민을 등록하려면 페이스북 계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이하기가 너무 먼 예술적 상담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강구했으면 합니다.
5. 점심을 먹고 나면 졸린 것을 보니 바야흐로 봄인 듯합니다. 춘곤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모두 활기차게 보내세요!

강상철 님

편집 후기

막차 시간이 다가오는데, 마지막 원고를 기다립니다. 초조합니다. 아! 지금 도착했군요. ㅎㅎㅎ

이규승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시행착오를 통해 삶이 더욱 단단해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정연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봄이 왔어요. 산과 들에 그리고 우리에게!!!!
feat. 춘곤증

이나래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4월은 날씨도 마음도 일년 중 가장 좋은 때아닌가 합니다. 다들 좋은 날들을 살고 계신가요.

이아림 | 오니트(주) 편집부

[문화+서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문화+서울] 웹진(www.sfac.or.kr/

munhwaplusseoul)에서

매달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편리하게 만나시거나,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 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대학로연습실, 두산아트센터, 몽엔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청 문화체육과,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남산예술센터
2016 시즌 프로그램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3시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제작
남산예술센터
예매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
대학로티켓닷컴
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오만
사건
자판

4.07-
4.10 **불행**

구성·연출 김민정
공동제작 무브먼트 당당

주
제
기
획
전
〈
歸
國
展
〉

귀
국
전

**그녀를
말해요**

4.14-4.17

작·구성·연출 이경성
공동제작 크리에이티브 VaQi

**commercial,
definitely —**

마카다미아, 검열, 사과
그리고 맨스플레인

4.21
— 4.24
작·연출 구자혜
공동제작 여기는 당연히,극장

NAMSAN ARTS CENTER



테마 토크
이 공간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사람과 사람
현대무용가 김설진

진실 혹은 대담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정치·사회·예술적 의미

쟁점 1
매거진 <악스트(Axt)>의 '듀나 인터뷰'를 둘러싼 소동

쟁점 2
대학의 획일화 우려되는 '프라임 사업'

화제
문화체육관광부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공간 1
남산예술센터 '남산여담-장정일의 연극읽기'

공간 2
등촌동 골목에 파고든 전시 공간 '일년만 미술관'

4월의 서울문화매뉴얼